ISSN 2635-415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

제2권 2018



목 차

김종일 1. 최근 터키의 쿠데타시도 실패와 페툴라 귤렌의 포스트모던 이슬람 연구
2. 터키 안보와 이해관계에 대한 정체성 변화 연구(2002-2012)
이정순 3. 이슬람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에 관한 고찰
4.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변모 양상 요인 분석 연구
정형남 5. 사우디의 변화와 아랍의 기독교
6.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과 아라비아 최초의 선교사 바울의 메시지

ACTS Middle East Research Institute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

제2권



ACTS Middle East Research Institute

2018



ACTS 중동연구 제2권

- 발 행 일 : 2018년 7월 5일
- 발 행 인 : 김영욱
- 발 행 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 전　　화 : 031) 770-7896
- 이 메 일 : actsmer@gmail.com
- 홈페이지 : actsmer.modoo.at

- 출 판 부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 등록번호 : 제 1990-000001호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 전　　화 : 031) 770-7747
- 이 메 일 : actsmer@gmail.com
- 홈페이지 : www.acts.ac.kr

- 제 작 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 본 책에서는 나눔명조체를 사용하였습니다.
- 본 책의 모든 권한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에 있으며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By ACTSMER.

- ISSN 2635-4152
- 값 12,000원

축 사

김 영 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오늘날 중동 지역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는 43년 전, 1974년에 세워진 초 교파 기독 대학으로서, '아세아 복음화'라는 뚜렷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전 학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CTS 세계지역연구소는 본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 세계지역연구소 중 하나인 중동연구원은 현재 최고의 중동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본교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매년 1회 씩 출간하기 시작한 「중동연구」 논총은 국내 신학대학 중 최초의 중동 전문 학술 논총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하는 「중동연구」가 아무쪼록 중동 지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중동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관심 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앞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기간행물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격 려 사

김 만 우

ACTS 중동연구원초대원장. 중동선교사협의회고문,
미국필라델파아제일장로교회원로목사

ACTS 중동연구원의 발전소식과 연구논문집 발간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쁩니다. 더욱이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지금은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는 김진홍 목사의 중동연구원 원장 취임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ACTS는 1966년 빌리 그래함 목사의 Berlin Congress of World Mission이 개최된 지 2년 후인, 1968년 무니헴 박사에 의해서 Singapore Congress for Mission of Asia and Pacific Areas가 개최되어, 그 영향으로 한국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한철하 박사가 설립한 선교지향 대학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ACTS의 뚜렷한 공헌은, 세계선교에 있어서 아시아선교를 우선함으로, 선교의 축을 서구에서 당시까지 피 선교지였던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오늘날 세계선교를 약진케 했습니다.

최근 21세기 후반을 전망하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중국과 인도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Chindia' 시대를 예측하는 것을 보면, ACTS는 과연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학자 토마스왕의 중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서진, 사무엘 헌팅턴의 문화충돌, 루이스 부시 박사의 10/40 창문(10/40 Window)은 대부분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이론들이 대두되기 전에 이미 ACTS가 그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ACTS의 또 다른 공헌은, 40년 전에 미주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세계 8개 '문화권역별 선교연구원 및 선교대학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한국교회의 요청으로 16개 권역으로, 다시 32개 지역으로 세분된 것은 얼마나 기발한 선교전략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 연구원들 중 하나가 바로 중동연구원입니다.

그 당시 권역별로 선교관 건물을 건축할 때, 중동연구원 연구실은 신재춘 장로와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의 귀한 헌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후, ACTS 중동연구원은 워싱턴DC 지역 교회들로 구성된 ACTS 터키연구원(원장 이원상 목사)과 통합하여 연구교수로 부임한 정형남 박사의 사례를 감당했으며 한때 중동 현장 선교사들을 방문해서 연수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적 신학, 한국적 목회학, 한국적 선교학을 언급합니다. 한국선교의 지나간 반세기를 돌아보며, ACTS가 시도하고 추진해 온 선교유형을 다시 주목해 보고 재발견해서 한국적 선교신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전략도 연구하고, ACTS의 선교특징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선교의 흐름에 접목한다면, 세계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ACTS의 진지한 선교 열정과 세계 각처 동문의 활동은 ACTS 설립 정신이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중동연구원이 이 일을 위해 선두에 서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중동연구 논총의 두 번째 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돌립니다.

격 려 사

김 진 홍
ACTS중동연구원원장, 수표교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선입견, 편견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꽁지머리를 보고 불량한 청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삶이 건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 나온 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지쳐 있는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게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처럼 봤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삶이 고단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나도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부끄러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쳐 있는 사람을 내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맡길 곳이 없구나. 너에게 부탁한단다. 네가 그를 품어 주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고단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잊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품어 주셨기에 내가 그의 긍휼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한참을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90명이었는데, 5월에 들어 갑자기 500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예멘인들은 예멘의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에 대피해 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제주도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난민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즉 제주도에 온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면 수개월(6개월에서 1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들이 잠적, 불법 취업 등의 방법으로 불법체류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동을 알아야 합니다. 예멘 난민 문제가 보여주듯이, 중동은 이제 우리에게 결코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품지 않으려면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중하며, 이번 '중동연구' 제2권의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논문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중동연구'가 중동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나 그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하는 깊이에 깊이를 더하는 문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걷히고,
중동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제2권을 펴내면서

우리나라 문중에는 전통적으로 '묘답□ 첮'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묘답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말합니다. 문중에서 묘답은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겨졌으며 미래를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백 년을 훌쩍 넘기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역은 이슬람권이며, 16억이 넘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안에서 묘답처럼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동지역을 크게 보면, 수많은 아랍 국가와 비아랍 국가인 터키(튀르크), 이란(페르시아), 이스라엘(유대), 쿠르드의 5대 민족과 그 민족이 사용하는 5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중동은 유일신의 창조신앙을 가진 세계 35억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세계 3대 종교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중동은 충돌과 대응 그리고 시기와 반목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세계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본 중동연구원은 작년에 이정순 박사를 연구원으로 새롭게 모신 이후, 올해는 다시 중동에서 다년간 사역 경험이 있는 김진홍 목사를 중동연구원 원장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북아프리카 지역부터 레반트 지역에까지 걸쳐 중동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연구원으로 또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 파슨즈(T. Parsons)의 얘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 집단이나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유지기능(Maintenance Function), 목적달성기능(Goal Attainment Function), 통합조정기능(Integration Function),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의 네 가지 기능을 필요로 하며, 이 중 하나의 기능이라도 균형이 무너질 때 그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은 더는 10년 전의 그 중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서서히 변모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중동연구에 있어서 아랍과 비아랍의 균형을 가지고 중동 선교 뿐만 아니라 중동의 정치와 외교,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교 길라잡이의 하나로 이번에 두 번째 논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가슴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머리(학문)로도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본 논총을 통해, 지금도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무슬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막, 오지 그리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권 선교사들과의 동역과 교류를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중동연구원
소개

순 서

- 연구원 원장 및 연구 교수 소개

- 중동연구 창간호(2017) 논총 목차

Middle East Research Institute

김 진 홍 원장

[약력]

- 감신대(BA). 감신대 신대원(M. Div),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아랍어연구,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수학,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랍선교회 선교사 파송, Wesleyan Theological Seminary in Assuit 교수(역사신학), 前애굽한인교회 및 우이교회 담임목사, 現수표교교회 담임목사, 現중동선교회 및 인터서브선교회 이사, 現기독교대한감리회 아랍선교회 회장 및 선교국 산하 이슬람연구원 원장, 現감신대 객원교수.

[저서 및 논문]

- 사는 게 즐거우세요?(2013, 우이Books), 기도의 사람(2014, 우이Books) 외.

김 종 일 박사

[약력]

- 한국외대(BA), 터키 국립 Istanbul Univ. (MA. & Ph.D. in history), 영국 Wesley Theological College, MA in Theology(수료), 장신대 신대원(M.Div.), 前터키국립 Ankara Univ. 전임교수, 前침신대와 장신대 외래교수, 現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現 한국외대 외래교수.

[저서 및 논문]

- 「터키 군 한국전쟁 참전 사」(*Turkish ed.*, 서울: 보훈처, 2007), 「터키중소기업진출가이드」(공저,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 「국가대표 터키어 완전 첫걸음」(서울: 부커스베르겐, 2012), 「터키어회화사전」(서울: 문예림, 2015), 오스만제국의 마지막 국회 의사록 연구(1992), 터키 국부 아타튀르크의 리더십 연구(1998),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KIEP 심층연구 논문, 2011),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에서 현 터키 이슬람이 가진 특성 연구"(KIEP 심층연구 논문, 2015) 외.

이 정 순 박사

[약력]

- 한남대(B.A), 아세아연합신학대 대학원 (M. Div. in English, Th. M, Ph. D.), 영국 WEC International 선교훈련원(MOC)졸업(Dipl.Miss.), 영국 Oxford University 방문연구원(Visiting Fellow) 역임. 오엠(OM)국제선교회 순회선교사(Logos와 Doulos 선교선 승선), 한국오엠(OM) 국제선교회 초대부 대표 역임, 순회선교사역 및 지역연구차 전 세계 6대주 91개의 다른 나라 방문(1980~2018). 서울장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와 그리스도대 외래교수 역임, 백석대 기독교학부(선교학) 교수 역임(2003~2017). 現한국오엠국제 선교회 이사(자문위원) 및 선교타임즈 편집위원. 現아세아연합신학대중동연구원 수석연구원.

[저서 및 논문]

- 「하나님을 향해 홀로선 여인들」(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0), 「무슬림 여성과 베일」(서울: CLC, 2002), 「이슬람문화와 여성」(서울: CLC, 2007), 「세계선교와 한국여성선교사들」(서울: CLC, 2009), 「21세기 한국이슬람의 어제와 오늘」(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A. Scott Moreau 편집. 「선교학 사전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공역 (서울: CLC, 2014), 「과학자 계의돈 박사의 한국선교이야기」(서울: CLC, 2016) 외 논문 다수.

정 형 남 박사

[약력]

- 한국외대 아랍어과(B.A.), 총신대 신대원, 아세아연합신학대(Th. M),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n), 前중동선교회 본부장, 前Jord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JETS) 교수, 現GMS & 중동선교회 및 천안장로교회 파송선교사로 요르단 주재 이라크 난민교회 목회자, 現 아세아연합신학대 연구교수.

[저서 및 논문]

- 「이슬람과 메시아왕국 이슈」(서울:CLC,2009), "아담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비교 연구(ACTS, Th. M), "아브라함 아들 제사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비교 연구"(ACTS 신학과 선교, 2014), "The Issue of the Replacement Theology of the Christian Zionism"(KMQ in English 2016), "예루살렘 중심적 세 종교들과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와 "예수의 재림 지점이 요르단 남부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응답"(ACTS 중동연구 1호) 외 다수.

액츠『중동연구』제1권(2017)
창간호 논총 목차

김종일

1.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 연구

2. 터키의 최근 외교 정책 변화 연구

이정순

3. 무슬림 여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4. 예멘 무슬림 여성의 위치와 선교적 접근법

정형남

5. 예루살렘 중심적 종교들과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

6. 예수님의 재림 지점이 요르단 남부지역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응답

목 차

- 축사
- 격려사
- 펴내면서
- 중동연구원 소개

김 종 일 Dr. Kim, JongIl

1. 최근터키의쿠데타시도실패에서드러난 페툴라굴렌의포스트모던 이슬람연구 **21**
   Study of Fethullah Gülen's Postmodernism Islam through the Recent Failure of Turkey's Military Coup Attempt

2. 터키안보와이해관계에대한정체성변화연구(2002~2012)..... **55**
   Turkey's Changing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from 2002~2012

이 정 순 Dr. Lee, ChungSoon

3. 이슬람모스크의상징성과역할에관한고찰……..... **89**
   A Study on the Symbols and Roles of Islam Mosque

4. 현대사우디아라비아여성의지위변모양상요인분석연구..... **135**
   An Analytic Study of the Factors changing the Status of Modern Saudi Arabian Women

정 형 남 Dr. Chung, HyungNam

5. 사우디의변화와아랍의기독교 …..…..... **173**
   The Change of Saudi Arabia and the Christianity of Arab

6. 예루살렘성전에대한트럼프지지자들의주장과 아라비아최초선교사바울의메시지……..... **209**
   The Assertion of the Supporters of Trump and the Message of Paul the first Missionary in Arabia on Jerusalem Temple

제2권(2018) 논문목차

김종일

1. 최근 터키의 쿠데타시도 실패와 페툴라 귤렌의 포스트모던 이슬람 연구
2. 터키 안보와 이해관계에 대한 정체성 변화 연구(2002-2012)

이정순

1. 이슬람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에 관한 고찰
2.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변모 양상 요인 분석 연구

정형남

1. 사우디의 변화와 아랍의 기독교
2.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과
   아라비아 최초의 선교사 바울의 메시지

최근 터키의 쿠데타 시도 실패에서 드러난 페툴라 귤렌의 포스트모던 이슬람연구 [1)]

Study of Fethullah Gülen's Postmodernism Islam through the Recent Failure of Turkey's Military Coup Attempt

김 종 일 [2)]

Kim, Jongil

목 차

Ⅰ. 서론
Ⅱ. 터키의 정체성 변화 조짐에 대한 배경
Ⅲ. 페툴라 귤렌의 포스트모던 이슬람
Ⅳ. 향후 터키에서의 주요 정치 사안
Ⅴ. 결론

1) 본 글은 『한국중동학회』 제37권 제3호(2017.2) 논총에 게재된 논문임.

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국문 초록)

최근 터키의 쿠데타 시도 실패에서 드러난 페툴라 귤렌의 포스트모던 이슬람연구

지난 2016년 7월 15일에 발생한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 실패 사건은 현 터키공화국을 커다란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는, 이번 쿠데타 시도의 주범으로 지목된 페툴라 귤렌과 그 지지 세력을 향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과 함께 공포와 독재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현 에르도안 정부와 페툴라 귤렌이 가진 공통적인 정체성은 현 터키를 궁극적으로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부터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의 이슬람 정책을 눈에 보이는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포스트모던 이슬람'을 추구하는 귤렌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이슬람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서 그 근본적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은 양측 모두 현 세속주의에서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양 측의 공통 목표로부터 지금 터키공화국의 세속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터키의 설립 이념에 대한 궁극적인 공격이며 도전이기 때문이다.

[중심 단어: 에르도안, 쿠데타, 터키공화국, 세속주의, 페툴라 귤렌, 포스트모던 이슬람]

Abstract

Study of Fethullah Gülen's Postmodernism Islam through the Recent Failure of Turkey's Military Coup Attempt

Kim, Jongil [3)]

The failure of Turkey's military coup attempt on July 15, 2016 is bringing great confusion to the Republic of Turkey. Turkey, which recently announced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s showing extensive purging along with fearful and dictatorship-like movements towards Fethullah Gülen, the main person being blamed for the coup attempt, and his supporters. However, the common identity that the current Erdoğan government and Fethullah Gülen have is to ultimately make Turkey into a politically Islamic nation. The fundamental difference that can be seen is that President Erdoğan's Islamization is utilizing the visible administration system, whereas Gülen's Islamization, or the so called 'Postmodernism Islam', is seeking to bring change from the inner and spiritual system. In other words, both sides want to revive Islam in the political sphere from the current secular state. Whatever their difference is, the current secularism of the Republic of Turkey is being threatened by the two parties' common goal. This is because it is an ultimate attack and challenge towards the ideology of Turkey's political establishment.

[Key words: Coup, Erdoğan, Fethullah Gülen, Postmodernism Islam, Republic of Turkey, Secularism]

---

3) Ashin university, Middle East Research Institute.

I. 서론

지난 7월 15일에는 터키공화국의 수립(1923) 이래 다섯 번째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1960년을 시작으로 1980년, 1997년, 2007년(군의 경고 서신에 의한 무혈 쿠데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발한 이번 쿠데타 시도는 그동안에 있었던 네 번의 쿠데타와는 달리 불과 발생 6시간 만에 실패로 그 막이 내렸다. 이번 쿠데타 시도 실패로 말미암아 아래 표-1)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터키는 국가비상사태[4]를 선포한 가운데 현 정부의 숙청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번 사건의 연루자 색출 움직임과 함께 관련자의 연행, 구금 및 체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터키에서는 터키군을 위시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법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매우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

---

4) www.milliyet.com.tr/ohal-nedir－gundem-2280844 (검색일: 2016.7.21). 터키에서의 국가비상사태(State of national emergency)의 선포는 1983년 10월 27일에 발효된 제2935호 국가비상사태 법에 따르면 국가적인 재해, 위험한 전염병, 경제적 위기를 비롯해 국가의 치안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때 헌법에 언급된 자유 민주주의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강화, 집중으로 이에 대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지역을 구획하여 계엄을 선포하기도 한다. 본 국가비상사태의 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연장 및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는 국회의 입법 혹은 동의 절차 없이도 헌법을 초월하여 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안을 제정하며 시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표-1) 쿠데타 사상자 및 구금 체포자 통계 [5)]

	정부 측 사상자	쿠데타 시도 측
사망	246명 (시민 179, 경찰 62, 군인 5)	24명
부상	2,185명 (경찰 135, 군인 21, 시민 2,029)	49명
구금		13,369명 (경찰 1,611, 군인 8,900, 법관 2,114, 시민 689)
체포		6,016명 (경찰 470, 군인 3,847(장성 123, 장교 1,052, 사병 2,672), 법조인 1,572, 공무원 34, 시민 689)
출국금지		21,060명 (공무원 3,588, 일반 16,697, 국제기관종사자 757, 외교관 18)

그러나 한편, 이번 쿠데타를 가리켜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범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작해서 너무 어설프게 끝나버린 이번 쿠데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뒤로 바로 이어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그동안 현 정부의 정적으로 알려진 '페툴라 귤렌(Fethullah Gülen)'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한 '피의 숙청'이라고도 언급될 정도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은 현 정권 유지를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이야기도 떠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많은 사상자와 대통령궁, 국회(TBMM)와 국가정보원(MIT) 건물의 파괴에 대

5)www.hurriyet.com.tr/darbe-girisiminin-bilancosu-13-bin-369-kisi-gozalti-6-bin-16-tutuklama-21-bin-60-pasaport-iptal-40168179. (검색일 2016.7.25).

통령의 암살 기도 등과 같은 매우 실제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 생생하기조차 하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이제 터키가 세속주의를 완전히 뒤로 하고 이란 같은 이슬람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수년 전에 폐지되었던 사형제도의 부활을 통해 유럽연합 가입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인권 탄압과 장기 독재의 공포 정치 시기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이 벌써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 정부에 의한 자국민을 향한 인권 문제의 대두는 자연스럽게 터키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및 종교적 탄압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고 제2장부터는 이번 터키의 쿠데타 시도 배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터키의 정체성 변화 조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터키공화국의 핵심 이념인 세속주의와 맞서고 있는 현 집권당의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후 본 고의 본론이 되는 제3장에서는 이번 사태에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페툴라 귤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가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이슬람에 관해서 연구해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연구된 결과물을 토대로 이번 쿠데타 시도 실패가 가져다줄 향후 터키에서의 주요 정치적 사안도 함께 진단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출간된 문헌이 없으므로 현지의 신문 기사 및 방송 내용을 다수 참고 및 인용하였다.

II. 터키의 정체성 변화 조짐에 대한 배경

현 터키공화국의 헌법 제1장 제1조 제1~2항에는, 터키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정교분리의 세속 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결속을 위하며,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 민족, 개혁을 추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제4항에서는, 상기 제1~2항에서 명시된 공화국의 정체성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있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6] 그러나 지금 터키공화국은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에 의해 세속 주의 정체성이 위협받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의 시도 저변에는 두 가지 핵심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종교적 배경으로의 이슬람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오스만 터키제국(A.D. 1299~1922)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발상이다.

1. 현 터키 집권당(정의발전당:AKP)에 대한 이해

지금의 터키공화국은 비록 수백 년 동안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터키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 세계의 리더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화국 건국 때부터 중동의 아랍국가들과는 달리 매

6) www.tbmm.gov.tr/anayasa/anayasa82.htm (검색일 2016.7.2).

우 강한 탈 脫 이슬람화와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시작된 국가이다. 이는 강한 이슬람 정체성을 가진 다른 아랍국가들과는 매우 특이한 형태이며,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념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이슬람의 정치개입 불허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매우 특이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터키 국내의 경제 악순환 속에서 등장하게 된 현 집권당인 정의발전당(AKP)은 강한 이슬람 성향을 지니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4선 四選의 15년째 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면서 터키를 통치해 오고 있다.[7] 이는 터키 국내적으로는 공화국 건국이념에 대한 매우 강한 도전이며 동시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후 중동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터키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의발전당의 장기집권 성공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집권당으로서 정의발전당에 대해 거는 국민적 기대이다. 정의발전당을 다른 기존의 우익 성향을 지닌 터키 정당들과 비교하면, 여타의 정당들처럼 어떤 특이한 상황(군사혁명 등의 사회적 소요)에서 태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8] 또한, 다른 터키 정당들(CHP, MHP 등)처럼 전통과 국가적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당도 아니었다. 단지 국내 경제의 악순환 속에서 타

7) https://tr.wikipedia.org/wiki/Adalet_ve_Kalk%C4%B1nma_Partisi (검색일 2016.7.4).

8) 현재 터키 내에서 좌익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을 의미하며, 우익은 이슬람주의 성향의 정당을 의미한다.
www.beycan.net/710/sagcilik-ve-solculuk-nedir-sag-ve-sol-gorusun-farklari-nelerdir.html (검색일: 2015.7.8).

정당들에 대한 국민적 희망이 끊겼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리고, 더는 선택할 정당이 남아 있지 않다고 여겨졌을 때 어부지리 漁父之利로 집권한 당이었다.

정의발전당 이전의 터키 국내 경제는 난항과 악순환을 거듭했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실망과 새로운 정당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기대감이 지금의 집권당을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 그래도 이전의 이슬람 성향의 복지 당(RP)과 덕목당(FP) 의원들에 의한 새로운 당의 결성이라는 면에서는 분명 신당이었고, 신당의 출현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또한, 정의발전당의 정치지지 세력들은 당시 터키에서 보수 혹은 원리주의 이슬람에 뿌리를 두었던 중산층 무역 상인들이었다(김종일, 2012, pp. 257~258). 그러면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새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세속주의 자본주의자들이 세워놓았던 기존 제도를 인정하는 정책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지자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장기집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공화국 초기부터 국가적 숙원이었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정의발전당의 외교적 성공이다. 1999년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가속을 얻게 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느 집권당도 하지 못했던 가입에 대한 청신호가 국민으로부터 장기집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셈이 되어버렸다.

사실 이 부분도 정의발전당의 외교적 성공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들여 온 지난 전체 집권당의 노력에 관한 결과로 보는 것

이 더 합당하겠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발전당으로서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드는 행운을 얻게 되어 버린 것이다(*Ibid.*, p. 260). 그러므로 정의발전당의 등장과 집권은 이러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새로운 당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기대 그리고 터키 경제의 돌파구로 인식됐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희망이 모두 한데 어우러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발전당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우익 이슬람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선 四選째 집권 성공은 결국 에르도안과 집권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적인 표를 얻으면서 계속된 집권에 성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집권당이 가지고 있던 우익 이슬람 성향이나 에르도안 개인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오히려 터키 국내의 화폐개혁, 환율조정, 악성 인플레이션 등의 원만한 조율을 통해서 국내 경제를 이끌어 갔던 에르도안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반감이 보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2013년 이스탄불에서의 민주 시위로 알려진 게지(Gezi) 공원 시위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도 익히 보았듯이, 아직도 많은 터키 국민은 아타튀르크에 의해 설립된 조국이 여전히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집권당이 이루어내고 있는 탈脫 세속주의를 향한 일련의 정치적 행각과 이미 드러난 에르도안 대통령 개인의 재정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결코 작은 사안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또다시 터키 경제에 위

기가 찾아오면 국민은 언제라도 새로운 정권을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언제라도 현 집권당의 실각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의미는 다시 세속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래 공화국의 모습으로 환원될 수 있음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도 짧게 다루겠지만 이번과 같은 무력과 폭력을 통한 군사 쿠데타 시도가 굳이 아니더라도 터키의 향후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현 정권의 집권은 늘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 시도는 그 성패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경제 질서 개념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현 에르도안 정부가 그동안 이루었던 개혁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터키 국내적으로는 공화국의 핵심 이념인 세속주의에 대한 매우 강한 위협과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수당인 현 집권당에 의해 터키 세속주의가 위협받는 일련의 정책들이 국회 안에서 법안으로 상정되어 입법을 거쳐서 발효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터키 세속주의와 충돌되는 가장 예민한 두 가지 사안은 1934년에 발효되었던 공화국 초기의 복장 服裝법(Kıyafet İnkılâbı)의 폐지와 터키 군부 내 개혁이었다.

먼저 터키에서 복장 법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여성의 히잡 착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시대의 복장이다(Turan 1995, p. 180). 혹자는 터키의 복장 법 자체가 규제와 금지의 법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터키에서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는 단순하게 '입고, 못 입고'의 문제를 벗어나 터키 세속주의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속주의가 이 복장 법에 달려있다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된다(Lewis, 1984, pp. 100~101).

다음으로 터키 내 군부의 개혁인데, 지금까지 공화국의 수호자 자리를 지켜왔던 터키군 내부에 이제 더는 아타튀르크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할 세속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지금 터키는 매우 강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현 집권당으로서는 탈세속주의와 이슬람 성향의 다양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터키 군부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터키 군부의 막강한 군사력을 줄이는 사안이 지금 유럽연합이 터키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정회원 가입 조건 중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현 터키 집권당의 군부 정치개입 방지책은 현 집권당의 개혁 의지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었다. 이는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의 군부 세력이 늘 부담스러웠을 에르도안에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갖다 주었다(İstanbul Politika Merkezi, 2005. pp. 7~8).

2. 7.15쿠데타 시도의 원인과 그 배경

이번 터키에서 쿠데타 시도의 실패 원인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된다.

첫째, 이번 쿠데타 시도 정보의 사전 누출이다. 이번 쿠데타가 발발했던 초기에 모든 언론은 러시아의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번 쿠데타 시도에 가담했던 한 군 장교의 은밀한 고발로부터 그들의 거사가 들통나게 되었다.[9]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터키에서의 모든 쿠데타 시도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새벽 시간에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는 전형적인 새벽 시간이 아닌 모든 국민이 귀가하는 초저녁에 감행되었다는 것에 필자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둘째, 군 수뇌부의 통일된 합의체 돌출의 실패이다. 이번 현지 언론은 전체 터키군의 10% 정도만이 이번 쿠데타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듯이 일부 군 핵심 장성들과 장교들 만에 의한 이번 쿠데타 주도는 군부 내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동원된 대부분의 군 사병들조차 이번 쿠데타 시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군 작전의 하나로만 알고 있다가 자신들이 쿠데타 시도 세력임을 알게 되면서 정부에 투항했던 상당수 군인이 있었을 정도였다.[10]

마지막으로,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국민적 열망과 지지에서 이번 쿠데타 실패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미 전해진 것처럼 이번 쿠데타 시도를 실패로 끝나게 했던 국민적

---

9)www.ntv.com.tr/turkiye/15-temmuz-gunu-saat-15-00te-bir-binbasi-mite-ihbar-etti,2HC3Y3MFZkqWyY9xFoRDcA (검색일: 2016.8.3).

10) www.youtube.com/watch?v=fmRyS6ihAhM (검색일 2016.8.3).

강한 저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슬람 경향의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에 대해 이를 지키려는 세력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비록 현 정권이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에 의해 수립되어 지켜져 온 핵심 건국이념으로서의 세속주의를 위협해 왔다는 사실로부터 국민적 염려와 불안이 고조됐다는 것만은 숨길 수가 없다.[11)]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국민투표로 선출된 현 집권당을 터키 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기며 그 타당성을 결코 부여할 수는 없다는 국민적 의식의 고조가 이번 쿠데타 시도를 실패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터키 세속주의에 대한 이해

터키 세속주의는 단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만 간주하지 않으며, 교육, 문화 및 삶의 전 영역에서 이슬람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한 집단의 종교적 사고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현 터키 설립 초기의 수많은 개혁은 바로 이러한 세속주의 정신의 실현을 위해 나타났거나, 혹은 이 세속주의 실현의 성공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김종일, 2011, pp. 275~276). 그러나 터키가 이러한 세속주의를 천명하고 출발했다고 해서 그들의 국민 신앙인 이슬람을 배격했다거나 이슬람

11) www.sozcu.com.tr/2016/gundem/15-temmuz-darbe-girisimi-iste-bu-yuzden-basarisiz-oldu-1331995 (검색일: 2016.8.4).

정신에서 이탈된 일방적인 서구화 추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터키 세속주의를 좀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서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의미에서의 세속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아랍 정통 이슬람(수니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이슬람법(쿠란)과 이슬람 전통과는 그 성향을 달리하면서도 지역 전통과 문화적 요소를 이슬람 안에 포함한 의미에서의 세속주의이다(김종일, 2015, *op. cit.* pp. 473~478).

그렇다면 터키의 건립 자이며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1881~1938) 자신은 이 세속이라는 의미를 이슬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슬람 없는 정치와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용했을까? 아니면 인구의 매우 높은 무슬림 구성비(99% 이상)를 가진 터키로써는 비록 아랍 정통 이슬람이 추구하는 법과 전통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겠지만 고유의 민속신앙을 합친 터키만의 이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사용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타튀르크의 연설, 저서 그리고 그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즉, 그가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공화국은 매우 강한 세속주의의 표방이 수반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그의 강한 세속주의 주창에는 그의 강한 실리주의 추구와 현실주의 정신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므로 아랍 이슬람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그것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이슬람이 절대로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포용심이 그

의 사상에 깊게 포함되어 있었다(*Ibid.*, pp. 473~478).

그러므로 아타튀르크가 추구한 세속주의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측면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본다. 즉, 그는 국익을 위해서는 이슬람을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현대성과 서구세속주의에 비교해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의도적인 규제들을 통해서 국내 공공분야에서 이슬람은 차선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Ibid.* pp. 476~477).

그렇다면 이 세속주의가 터키 내 이슬람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가장 커다란 영향은 무엇보다도 공화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인종, 언어 및 종교와 관계없이 국가의 국민 모두를 동등한 객체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총체적 국가사회 실현을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국민 대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화국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화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다양한 이슬람 종파와 다양한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평등과 균등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으면서 오스만 터키제국의 불완전했던 통치 제도를 벗어나 모든 국민이 평등과 균등의 삶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은 터키 세속주의가 끼친 가장 커다란 영향이면서 동시에 이를 특징짓는 매우 특이한 사항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Ibid.* pp. 477~478).

III. 페툴라 귤렌의 포스트모던 이슬람

1. 귤렌의 성장 배경과 사상

이번 쿠데타 시도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페툴라 귤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성장 배경과 사상 체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1941년 터키 동북쪽의 에르주룸에서 출생 한 귤렌은 이맘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이슬람 교육을 꽤 철저히 받으며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슬람과 과학, 신앙과 이성, 국가와 종교의 조화에 대해 시킬 것인가를 연구한 쿠르드 출신 '사이드 누르시(Said Nursî)'[12] 책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첨단 과학과 물질만능주의 앞에서 이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슬람의 재해석이며 이를 이슬람의 새로운 빛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주장은 정부의 관리, 언론인, 작가, 변호사, 지성인, 기업인, 대학생 등의 수많은 추종 지지 세력을 가지게 되면서 광명(Nurcu) 파派 운동을 일으킨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이드 누루시가 저술한 6천 페이지에 달하는 '광명의 책들(Risale-inur)'이라는 저서를 독파한 그는 누르시의 사상과 수피즘의 신비주의를 병합시켜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으로 재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의 '귤렌

12) 사이드 누르시(1878~1960)는 터키 이슬람 사상가로서 그의 사상은 지성인들 가운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 세계가 변화되는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으로 첨단 과학을 만들어내고 물질문명이 지배되는 시대에 이슬람의 샤리아 법으로는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없고 무슬림의 지적 세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tr.wikipedia.org/wiki/Said_Nurs%C3%AE (검색일 2016.8.4).

종파(Gülen Cemaat)'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Işıklı, 2010. pp. 5~10).

1959년부터 이맘의 삶을 시작한 그는 터키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설교하던 중 국가모독죄로 연금되기도 하였으며, 1980년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 시기에는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면서 한동안 숨어 지내기도 하였다. 1999년에 신병치유를 위해 미국으로 옮긴 그는 현재까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2008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세계 100대 지성' 투표 결과 미국의 양심으로 알려진 노엄 촘스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세계적 학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슬람 사상가이며 동시에 학자, 저술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터키 안에서 이슬람의 현대화에 노력하는 융합 운동가로도 평가받아 왔다(*Ibid.*, p. 15~20).

1960년대 초부터 터키 국내에서 세속주의,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등 이념 갈등이 심화되자 귤렌은 공개 설교를 중단하고 이슬람에 세속주의를 가미한 서구식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일련의 변화를 위한 이슬람 운동을 가리켜 이른바 '히즈멧(HIZMET, 봉사라는 뜻)'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봉사를 바탕으로 진정한 이슬람의 가치를 알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재하여 있다. 이러한 '히즈멧' 운동은 고비용 양질의 교육을 내걸면서 수준 높은 교육으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어 결국 세상을 이슬람화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현 집권당과의 갈등을 빚기 이전까지 이미 터키 내 정치, 경제, 법, 교육, 신문방송 미디어, 병원, 언론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 오면서 광범위한 '귤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13]

2. 귤렌 운동(Gulen Movement)의 핵심과 문제점 분석

귤렌의 핵심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알라가 빛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식이 빛이며, 셋째는 선하게 사용하는 재물이 빛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라가 빛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지식이 빛인가에 대해서 그는 종교 과학은 의식의 빛이고, 문명과 기술은 지성의 빛인데 이 둘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진리는 더욱 분명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재물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슬람 공동체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14)]

그러므로 이를 요약해 보면 종교와 과학의 빛이 이슬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든 무슬림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이슬람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의 종교 가치를 함양하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알라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의식의 빛이요, 과학은 지성 곧 이성의 빛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같은 빛이다. 그러므로 사원에서 알라를 섬기는 일이나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탐구하는 일은 결국 같은 일로 간주한다(Önsel, 2016. pp. 24~25).

이러한 그의 사상은 아래 그의 설교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

---

13) www.meforum.org/2071/fethullah-gulenin-buyuk-ihtirasi (검색일 2016.8.4).

14) https://tr.wikipedia.org/wiki/G%C3%BClen_Hareketi (검색일 2016.8.5).

이 세속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터키 국민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고도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 “이슬람 신앙은 이웃에게 선한 삶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진정한 무슬림은 수염을 기르고 모스크에서 쿠란을 외우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장사할 때 고객을 속이지 않을 때 그 참 신앙이 드러난다. 무슬림 성직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늘 젖어 사는 모습이다. 비록 여성이 머리에 히잡과 차도르를 착용하지 않아도 진정한 무슬림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중략) ... 우리는 알라의 빛들이다. 왜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나?... 모든 사람은 서로 연합해야 한다. 자신 안에 갇혀 있는 한 여러분은 티끌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연합하면 여러분은 내가 되고 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다... (중략) ... 모든 영혼도 몸도 하나이다. 물에 있는 컵을 깨뜨리면 물은 한 곳으로 흐른다. 누구든지 이곳으로 오라. 어떤 종교를 소유하였든 이 빛 안으로 오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15)

귤렌의 이러한 종교 일치와 통합주의 사상은 이슬람의 현대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1998년에 열렸던 당시 로마 교황청의 종교 간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16)에서 당시

---

15)http://fgulen.com/tr/ses-ve-video/fethullah-gulen-hitabet/fethullah-gulenin-anadolu-vaazlari/17968-muminler-icin-namazin-onemi-edremit-vaazi (검색일 2016.8.5).

16)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는 그리스도인들과 타 종교인들의 상호 이해와 대화, 연구 증진을 위해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가톨릭과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1962~1965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으로 로마

교황 존 폴(John Pual) 2세와의 만남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종교 간 갈등이 아닌 대화와 화합의 관용으로 이끌려고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슬람 종교를 재해석하는 계몽 운동가이자 이슬람 사상가로 알려진 귤렌이 집필했던 60여 권의 책에서 나타난 그의 핵심 사상은 앞에서도 언급된 '이슬람의 현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귤렌 운동(Gülen Hareketi)'으로 지칭한다. 이 운동은 대략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국가가 이슬람 공동체가 되어서 봉사(HİZMET)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도움(HİMMET) 운동으로, 수많은 학교, 언론기관, 재단 및 사단 법인을 설립하고 이슬람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인재를 양육하고 이슬람 공동체를 세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의 마련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실(İHLAS) 운동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었다.[17]

또한, 이 외에도 이 귤렌 운동에 가담한 자들은 공동체 네트워크 안에서의 보안과 비밀 유지를 위해 철저한 단합을 강조한 '연합과 일치' 운동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귤렌 운동은 그들이 세운 교육

가톨릭과 다른 종교와의 관계 개선이 천명됨에 따라 로마 가톨릭과 다른 종교 간의 상호 이해의 교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이슬람과의 교류에 주력하고 다시 유대교와도 대화의 가교를 놓기 위해 노력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D%99%A9%EC%B2%AD_%EC%A2%85%EA%B5%90%EA%B0%84_%EB%8C%80%ED%99%94_%ED%8F%89%EC%9D%98%ED%9A%8C (검색일: 2016.8.6).

17) https://tr.wikipedia.org/wiki/G%C3%BClen_Hareketi (검색일 2016.8.6).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철저한 봉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귤렌 운동의 실상은 겉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것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것이었다.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봉사는 바로 자신들이 세워나가는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궁극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를 위해서는 현 터키공화국조차 자신들의 이슬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식의 야심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결국 국가전복을 꾀하려는 이번 터키의 쿠데타 시도로 이어지면서 이를 입증하게 되었다.[18]

현재 귤렌 운동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귤렌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귤렌이 가진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쿠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정치와 이슬람 종교의 일치이며 그에게 있어서 이슬람과 터키공화국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의 개념은 이슬람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이러한 귤렌의 야심적 사상은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터키공화국의 세속주의 이념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19]

한편 1999년 현 집권당이 아직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을 당시 터키

---

18) www.turkcebilgi.com/fethullah_g%C3%BClen'in_d%C3%BC%C5%9F%C3%BCnce_yap%C4%B1s%C4%B1_ve_ele%C5%9Ftirisi (검색일 2016.8.1).

19) www.turkcebilgi.com/fethullah_g%C3%BClen'in_d%C3%BC%C5%9F%C3%BCnce_yap%C4%B1s%C4%B1_ve_ele%C5%9Ftirisi (검색일 2016.8.2).

국방위원회는 익명을 요구하는 한 터키 민간단체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귤렌과 그의 운동에 대한 다각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귤렌 운동의 문제점들이 대체로 발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72페이지에 걸쳐 귤렌 운동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터키 국내외 귤렌 운동과 관련된 이슬람 활동에 대한 위협을 다방면으로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

첫째, 귤렌은 이슬람 신학자 겸 은퇴한 이맘으로서 그가 주도하고 있는 귤렌 운동은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터키 내 이슬람 이단으로 알려진 '광명' 파 派의 수차례 변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같은 그룹이다.

둘째, '귤렌' 운동의 기본 이념과 목적은 현 세속주의의 터키공화국을 전복시키고 이슬람 정부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미 터키 내 여러 정당의 비호 아래 급성장하고 있으며 벌써 몇몇 정당은 이미 귤렌 지지 세력에 의해 조정 당하고 있다.

셋째, 현재 터키 내외적으로 귤렌 운동의 하나로 설립된 수많은 사립 교육기관들은 유사시 불법 이슬람 교육 기관으로 언제든지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를 위한 준비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최근의 귤렌 운동은 터키 국내적으로는 '으시윽(ISIK)' 보험

20)https://stratejikoperasyon.wordpress.com/2014/08/08/fetullah-cemaati-dosyasi-ankara-eski-emniyet-muduru-cevdet-saralin-cemaat-raporu (검색일 2016.8.3).

회사와 '아시아' 신용금고 같은 국제적 규모를 가진 많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재정확보를 꾀하여 왔으며 노동 단체들과도 연관되어 청년 사업가 협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귤렌은 이슬람과 튀르크 민족주의를 연결하는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이슬람 성향의 정당인 '덕목' 당(후에 터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체 결정된 후 지금의 집권당 출범 계기가 됨)의 비호 아래 세계 이슬람 협회의 목적 달성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해외 활동으로는 중앙아시아의 튀르크 공화국들과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으면서 각국에 살아가는 튀르크 수니 무슬림 사이에서의 규합 움직임을 통해 이란 시야 무슬림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에도 이바지해 왔다.

마지막으로, 귤렌은 그리스 정교 지도자 및 가톨릭 교황과의 접견을 성사시키는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슬람권 리더십에 대한 입지와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다분히 보인다.

이러한 귤렌 운동의 지부로는 터키 국내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영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과 같은 중부 유럽 국가에 각각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사립 교육 기관[21]과 문화원 설립 및 식당의 운영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유학생들이 귤렌 장학금을 받고 현재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

21) http://haberkore.com/rainbow/2961 (검색일 2016.8.5).

22)www.turkeykorean.net/note/board.php?board=tinfo&page=3&sort=wdate&command=body

아울러 이 귤렌 운동의 확고한 목표로는 단기적으로 볼 때, 터키 내 정부 고위 인사 층과 터키 군대 내에 그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귤렌 세력에게 가장 커다란 방해물인 터키 국내 서구세속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과 동시에 해외 원조를 받아 터키 내 모든 이슬람 종파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이슬람 연합세력을 만들어서 터키 국내 이슬람 정당들과 함께 정부 안으로 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터키공화국의 정체 政體를 이슬람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향후 터키에서의 주요 정치 사안

귤렌 운동은 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정권 초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 귤렌과 에르도안 사이에 발생한 상호 이해에 대한 마찰과 갈등을 시작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귤렌 운동의 핵심 중 하나인 교육사업의 하나로 설립되었던 터키 전역에 귤렌 소유의 학원들이 폐쇄되는 것을 시작으로 완전한 결별이 시작되었다(Şık 2014. pp. 305~306).

이번 터키 쿠데타 시도 세력의 배후를 귤렌 조직으로 밝히면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 拔本塞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현 집권당으로서는 집권 초기부터 최근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기 전까지 매우 두터운 친분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no=110&PHPSESSID=c33e3ee6a833e933e7e9f6edf87c5b0b (검색일 2016.8.5).

사실 속마음은 전혀 편할 리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아는 터키의 두 거대 이슬람 그룹이 이제는 적으로 변해 반목질시 反目嫉視의 자리에 서 있으며 두 그룹 모두 각각의 생존을 위해서 결코 못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터키의 향후는 당분간 이러한 이슬람 내 갈등이 상호 심화되어 나갈 것이 쉽게 짐작되며, 이를 빌미로 현 정권의 대대적 정적 숙청 작업도 한몫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이번 사건은 파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과 더 나아가 서로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서 심해지면 내전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같은 강성 이슬람 성향을 보이면서도 이들을 둘로 갈라서게 만들어 버린 이번 사건의 발단은 귈렌으로부터 비롯된다. 귈렌 측은 이미 수년 전 현 집권당의 당수였던 에르도안의 재정적인 비리와 정치적인 비합리성을 세상에 폭로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에르도안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이미 수년 전부터 터키 국내 귈렌 관련 모든 기관과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므로 이번 쿠데타 시도는 어제의 친구였던 에르도안과 현 집권당을 향한 귈렌의 복수극으로 요약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 세속주의를 갈망해 왔던 아타튀르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현 정권에 대항하며 귈렌 측과 연합했던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23]

지금 터키 에르도안 정권은 비록 쿠데타 시도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계속된 정권 유지라는 대명제를 놓고는

23)https://tr.wikipedia.org/wiki/AK_Parti-G%C3%BClen_Hareketi_%C3%A7at%C4%B1%C5%9Fmas%C4%B1 (검색일: 2016.8.6).

여전히 불투명한 국내 정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 정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현 터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정치 핵심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번 쿠데타 시도 세력의 숙청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공포 정치 움직임으로 이번 사태를 조용하게 관망해온 대다수 국민에게 조국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고조시켜 줄 것이다. 아울러 터키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려해 온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 이번 사태는 부정적 반향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실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년 전에 폐지되었던 사형제도의 부활이라는 이슈가 터키 안에서 제기되자, 유럽연합은 곧바로 사형제도의 부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터키 국민의 유럽 내 무비자 통행법 가능성과 터키의 유럽연합 정회원 가입 가능성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시사한 바 있다.[24] 터키 정부도 이에 질세라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터키에 대한 유럽연합의 부정적인 결정은 유럽연합과 최근 체결했던 시리아 난민수용 이행 약속을 즉각 포기하고 그들을 유럽으로 모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25]

둘째, 이번 쿠데타 시도 실패 이전부터 이미 붉어지기 시작한 에

24)https://onedio.com/haber/ab-den-idam-aciklamasi-idam-cezasi-uygulayan-hicbir-ulke-ab-uyesi-olamaz--721713 (검색일: 2016.8.6).

25) www.sabah.com.tr/gundem/2016/08/02/cumhurbaskani-erdogandan-abye-sert-tepki (검색일: 2016.8.6).

르도안 대통령의 축재 蓄財 사실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대다수의 터키 국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겨주게 되어 향후 정권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봉이 수백억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 수혜 대통령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부인 역시 백화점 싹쓸이 쇼핑을 즐기는 쇼핑광이라는 소문을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26]

여기에 최근 터키 대도시들에서의 잦은 폭탄 테러 사건에 이번 쿠데타 시도 사건까지 겹치면서 터키의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터키의 국제 신용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향후 외국자본의 터키 내 유치가 저조해질 것이며 실업률 고조에 따른 서민 경제는 날로 어려워질 것이다.[27] 현재 에르도안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풀어서 모든 공무원의 임금 인상 단행이라든지 다양한 물질적 포상 혜택을 아낌없이 퍼붓고 있지만 결국 이는 터키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28] 사실 터키공화국 역사 가운데 집권당의 교체이유가 항상 국내 경제적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4 연정의 16년 집권이라는 대기록을 남기고 있는 현재의 집권당이라 할지라도 향후

---

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0/2016072000059.html (검색일: 2016.8.6).

27)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003200085.HTML (검색일: 2016.8.6).

28) www.haberaktuel.com/iste-memur-maaslarina-yapilan-zam-haberi-1006248.html (검색일: 2016.8.6).

국민 경제의 파탄 초래로 정권교체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중동에서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 조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 터키 정부는 이번 쿠데타 시도의 배후세력으로 귤렌을 지목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귤렌의 배후에는 그를 감싸며 터키로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암암리에 거부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는 터키의 대외정책 가운데 그동안 터키에서의 굳건했던 미국의 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 실례로 이번 쿠데타 시도 발발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외국 공식 첫 순방 국가가 러시아였다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29]

이러한 터키의 외교적 포석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양국은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으로도 풀이될 수 있으며, 미국을 향한 터키 정부의 말 없는 위협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중동의 IS 사태가 '미국-터키-수니 무슬림 국가'와 '러시아-시리아-시아 무슬림 국가' 사이에서의 대결 구도를 갖게 해 주었지만 향후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 시도는 중동에서의 이러한 외교적 구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 미국의 선거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승리가 중동 정책 변화에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근본적으로 페툴라 귤렌의 터키 인도로 터키 정부의 환심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귤렌을 지키면서 터키 정부의 미움을 사며 러시아 같은 경쟁국에 그 자리를

29) www.milliyet.com.tr/erdogan-in-rusya-ziyareti-alman-dunya-2291873 (검색일 2016.8.6).

내어줄지에 대한 심각한 저울질이 기다려지고 있다.

V. 결론

지금 터키에서는 과거 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했던 쿠르드 반군(PKK)의 테러 행위들이 이제 수도를 비롯해 안정권으로 여겨졌던 서부의 대도시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소위 IS의 테러까지 가세하여 연일 위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페툴라 귤렌 그룹의 주도하에 발생하였던 쿠데타 시도 실패는 터키를 정치 및 사회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더욱 몰아가고 있다. 이에 터키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터키의 주요 제3차 산업으로 주목을 받아 오던 관광 사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터키 경제의 앞날에도 검은 먹구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중동 외교에서도 터키 정부가 처한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크게는 시리아 사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터키의 불분명한 외교적 태도 표명과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수용 이후 터키 사회와 경제의 찾아온 혼란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무책임한 자세가 그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현 터키 사회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터키 세속주의자들과 이슬람 보수주의자들과의 반목과 질시 그리고 갈등과 충돌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서로 얽혀져 있다.

그러나 터키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오는 2023년

에 종료되는 로잔조약으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터키 동부의 유전과 중앙 고원의 붕소 같은 차세대 광물의 채취권 등이 회복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터키는 중동에서 다시 도약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경제적 부흥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터키는 과거 수백 년간을 중동 전체를 지배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지탱해 왔던 오스만제국의 후손으로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일 (2011).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 V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2). “터키 안보와 이해관계에 대한 정체성 변화 연구(2002-2012)”, 『중동문제연구』, 제11권 4호.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_____ (2015).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 갈등과 터키 이슬람 연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 IV.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준범 (2015).「중동 테러리즘」. 청아출판사.

Gümüşoğlu, Hasan. (2009). "İslam Mezhebleri Tarihi", Kayıhan Yayınları. Istanbul.

Işıklı, Alpaslan. (2010). “Said Nursi Fettullah Gülen Ve Laik Sempatizanları”, Kaynak Yayınları. Istanbul.

İstanbul Politika Merkezi, (2005). "TÜRK SİVİL-ASKER İLİŞKİLERİ VE AVRUPA BİRLİĞİ: SÜREGELEN BULUŞMAYA HAZIRLIK", Nihaî Uzman Raporu, İstanbul Politika Merkezi(IPM) işbirliği ile Avrupa Güvenlik Araştırmaları Merkezi.

Lewis, Bernard. (1984). “Modern Türkiye'nin Doğuşu”,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Ankara.

Önsel, Mustafa. (2016). “Ağacın Kurdu”, Alibi Yayınevi, Ankara.

Şık, Ahmet. (2014). “Pararel yürüdük. Biz bu yollarda AKP-Cemaat ittifakı nasıl dağıldı?”, Postacı Yayınevi, Istanbul.

Turan, Şerafettin. (1995). “Türk Devrim Tarihi”, 3. Kitap, I. B., Bilgi Yay., Ankara.

[웹 사이트]

http://fgulen.com

http://haberkore.com

http://missiontimes.co.kr

http://news.chosun.com

https://en.wikipedia.org

https://ko.wikipedia.org

https://onedio.com

https://stratejikoperasyon.wordpress.com

https://tr.wikipedia.org

https://www.beycan.net

https://www.haberaktuel.com

https://www.hurriyet.com.tr

https://www.meforum.org

https://www.milliyet.com.tr

https://www.ntv.com.tr

https://www.sabah.com.tr

https://www.sozcu.com.tr

https://www.tbmm.gov.tr

https://www.turkcebilgi.com

https://www.turkeykorean.net

https://www.turkhukuksitesi.com

https://www.yonhapnews.co.kr

https://www.youtube.com

터키 안보와 이해관계에 대한 정체성 변화 연구(2002~2012)[1)]

Turkey's Changing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from 2002~2012

김 종 일 [2)]

Kim, Jongil

목 차

Ⅰ. 서론
Ⅱ. 터키의 안보환경 변화
Ⅲ. 터키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Ⅳ. 결론

[주제어: 국가안보, 아타튀르크, 에르도안, 이슬람, 중동, 터키, 터키-미국 관계, 터키-EU 관계, 터키의 정체성 변화, AKP정책]

---

1) 본 글은 중동문제연구, 제11권 4호(중동문제연구소, 2012, 1~30)에 게재된 논문임

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 Abstract |

Turkey's Changing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from 2002~2012

Kim, Jongil [3)]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easons behind the changes in Turkey's changing security on security interests and identity interests. To evaluate foreign policy and a state's perception of interests, one needs to incorporate both a structural and domestic level-of-analysis for greater depth and insight. In this particular case, Turkey's security interests have chang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also the election of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KP) into the Turkish political sphere has resulted in a change in Turkey's political identity from what was previously a Kemalist, military-backed secular democracy to a more uniquely Turkish political Islam that reconciles both its Muslim social identity and democracy in the political sphere. These two factors have changed Turkey's perception of interests and both security and identity interests agree on Turkey's potential as a leader in the Middle Eastern region. Because of these changes in interest perceptions, this has ultimately changed the dynamics in Turkey-EU and Turkey-USA relations.

[Key Words: AKP, Ataturk, Islam, Middle East, Turkey, Turkey's changing security, Turkey's identity interests, Turkey-EU-USA relations.]

3) Ashin University

I. 서론

지금 터키는 공화국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 혹은 최대의 변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앙이 있으면서도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르게 강한 이슬람 세속주의[4]를 건국이념으로 표방해 온 터키는 최근 이슬람 성향을 지닌 AKP[5]가 6.12총선(2011)에서 또다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삼선 三選의 초유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AKP의 짧지 않은 기간의 집권은 자연스럽게 국내외적으로 터키 최고 최대의 이념인 세속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현 집권당 AKP는 100% 기독교 국가들로만 구성된 유럽연합(EU)의 정회원 가입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일관성을

4) 세속주의(Secularism)와 세속화(Secularization)는 구별된다. 이 세속주의는 터키공화국 설립 이념들 가운데 하나로서 공화주의, 민족주의, 국민주의, 정부주의, 개혁주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터키공화국의 기본 정신이다. 터키의 세속주의는 단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만 보지 않으며, 교육, 문화 및 삶의 전 영역에서 이슬람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함께 한 집단의 종교적 사고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천명하고 있다. 터키공화국의 초기 수많은 개혁은 바로 이 세속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나타났거나 이 세속주의 실현의 성공으로 생겨난 것으로 본다(Kim, Jongil 1999, 133). 그러나 터키공화국이 이러한 세속주의를 천명하고 출발했다고 해서 그들의 국민 신앙인 이슬람을 배격했다거나 이슬람의 정신에서 이탈된 일방적인 서구화를 추구했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5) 현재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inma Partisi:AKP)은 2001년 8월 창당되어 2002년 총선에서 34%의 득표율을 얻고 국회의원 550석 가운데 363석을 차지하며 집권했다. 이후 2007년 7월 22일 조기 총선에서 AKP는 46.7%의 득표율로 국회의원 550석 가운데 341석을 차지하며 재집권했다. 또한, 2011년 6월 총선에서는 49.8%의 득표율로 327석을 차지하며 삼선의 집권에 성공했다.

가지고 외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실례로 그들의 이슬람 신앙관에 비추어볼 때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몇몇 법안들이 EU의 요구에 따라 차례로 폐지되고 있음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6]

그러나 동시에 터키 세속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들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건국 이래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터키 여성의 공공기관에서의 히잡(Hijab)[7] 착용 금지 법안이 현재 AKP에 의해 폐지 움직임이 보이고, 그동안 줄곧 터키 세속주의의 파수꾼처럼 여겨졌던 현 터키 군부의 힘을 와해시키려는 일련의 정치행각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동 이슬람 아랍국가들로부터의 온갖 항의와 질타를 뒤로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던 터키가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악화하더니 2011년 9월에는 앙카라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또 2012년 초에는 터키 영공에 들어온 이스라엘 F-16기를 적기 敵機로 간주한다는 폭탄 같은 선언도 있었다.[8]

---

6) 사형법 폐지(1984), 간통법 폐지(1999).

7) 이슬람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Hijab)은 보통 베일로 통칭하는 이슬람 여성의 복식명칭이며 지역과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터키에서는 '히잡'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온몸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의상은 튀르반(Türban), 그냥 스카프와 비슷한 정도로 가볍게 착용하는 것은 차르샤프(Çarşaf)라 불린다. 터키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착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 무슬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신 '튀르반'을 착용한 여성은 보수적인 이슬람 성향이 매우 강한 여성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다. 단지 머리에 '차르샤프' 정도만 두른 여성은 그냥 관습적인 복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터키의 '히잡 착용 법안'이라는 표현은 차르샤프(Çarşaf)가 아니라 튀르반(Türban)을 의미한다.

8) www.sabah.com.tr/Gundem/2011/09/13/israil-artik-turk-f16-icin-dost-degil.
(검색: 2012.10.29), Sabah'(2011.9.13).

현재 터키는 동부의 수자원 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이라크, 시리아와의 국경분쟁이나 쿠르드 반군진압을 위한 과다한 국방비의 지출 등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제 악순환 극복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터키는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과 주변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지금 서방은 터키의 최근 행동 변화를 놓고 많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터키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방으로의 관심을 통한 터키 정체성의 변화라고도 평가했고 또 어떤 이들은 냉전 시대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라고도 평했다.

또 국제사회와 터키 내 다른 견해로는 선도적인 AKP가 이슬람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터키의 국가안보 인식과 환경의 변화는 동맹구조를 변화시켰고 강력한 신흥 국가로의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동시에 AKP의 집권에 따라 터키의 정치적 정체성은 친서방, 케말주의자의 세속주의적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면서 보다 독특한 터키의 정치적 이슬람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터키의 현 집권당인 AKP의 주요정책들을 통해 AKP의 정체성을 정확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AKP가 이끄는 현 터키공화국은 과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의 기회인가? 또 현 AKP에 의한 터키를 정말로 건국이념이 위협받을 정도의 위험한 시기인가? 아니면 고도의 외교정책을 통해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유럽까지를 다시 한번 손아귀에 넣고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의 세력다툼에서 패권(Hegemony)을 장악해 보

려는 정치적 의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에 더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제 터키의 현 정체성을 가리켜 더는 군부의 지원, 엘리트 주도, 아타튀르크(Atatürk)에 의해 구축된 친 서방 세속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정치적 정체성에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 이러한 안보와 정체성 측면에서의 변화는 터키의 대외정책과 국제정치에서의 역할을 알려주는 방향 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외정책은 단순히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나 국가적 정체성의 측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터키의 권력에 관한 관심을 이슬람의 사회 정체성과 세속주의적 민주정치 정체성에 조화시키려는 독특한 정치적 이슬람을 창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II. 터키의 안보환경 변화

터키 안보환경의 변화는 냉전 종식 이후부터 시작된다. 터키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변 지역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터키는 먼저 소련을 겨냥한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의 위협과 터키 북동쪽의 카르스(Kars)와 아르다한(Ardahan) 지역의 위협에 대한 주변 지역의 요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Grigoriadis 2010, 52) 냉전 기간 터키는 소련의 위협을 피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국들과 동맹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서구도 1947년의 트루먼(Truman) 독트린을 통해 터키에 많은 원조를 보내면서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였다. 이는 머지않아 1952년

터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 한국전쟁 참전으로 이어졌고 이는 또한 터키의 안보 상황에 있어서 서방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터키를 향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제 국제정치가 과거와 같이 양극체제가 아니라 터키를 향한 지역 역학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 터키 외무장관 다웃올루(Davutoğlu)는 '다양한 지역 별자리들의 중심(the center of a variety of regional constellat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Paris and Meral 2010, 80). 서방 동맹국들은 상호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위협상황이 공동 관심사가 아닐 때는 그 가치 부여가 어렵게 보인다.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 터키가 최근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 문제와 같은 사안들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들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둘째는, 위의 변화와 함께 국가 경제가 국가 권력 및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게 되었다. 현재 터키의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 16위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며[9], 브릭스(BRICS)[10] 경제 시대에서 거츠(GUTS)[11]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비록

9) Steven A. Cook, "How do you say "Frenemy" in Turkish?," Foreign Policy, June 1, 2010, (검색: 2012.1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6/01/how_do_you_say_frenemy_in_Turkish

10) 브릭스(BRICS)는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경제용어임

11) 터키를 한국, 독일, 미국과 함께 묶어 영어 앞글자를 딴 'GUTS'(영어로 배짱이라는 뜻)

터키가 EU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긴 하지만, 반대로 터키에도 막대한 경제적 기회가 같이 주어졌다. 또 터키에서 에너지 공급이 점차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하자 2011년 3월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원유 확보를 위해 접경 국인 이란과 이라크와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돈독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터키의 내외부적 위협의 변화

터키의 구조 변화를 통해 터키의 안보위협 또한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제 터키에 있어서 과거 소련과 주변 동맹국들은 더는 직접적 위협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더욱 강력한 위협 세력이 부상하게 되었다. 사브리이브라힘오울루(Sabriibrahimoğlu)는 2002년 2월 20일 자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 사설에 기고한 내용에서 보면 터키의 국방예산이 2001년에 34% 인상되었는데 이는 터키가 자국의 안보위협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터키에 있어서 이제 시리아도 예전의 냉전 시대만큼 큰 위협을 주지 않게 되었다. 1958년 이집트와 함께 시리아의 아랍연합공화국(UAR) 결성은 터키의 동남쪽 국경 부근에서 터키가 주변 아랍국가에 의해 둘러싸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시리아는 과거 소련

로 표현하면서 "놀라운 르네상스를 누리고 있는 세계 4 대 강국" 이라고 소개했다 (검색 2012.1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0/2012053000289.html

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소련의 군사 무기를 보유하였는데 이는 터키의 국방력보다 강력하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시리아의 군비확충은 절대 증강되지 않았으며 터키의 국방력이 동남쪽에 있는 주변국들을 능가하게 되었다(Makovsky 1999, 98).

터키는 최근 쿠르드 분쟁과 시리아 민주화 사태로 인해 양국이 긴장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수년간 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2004년 초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최초로 터키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터키는 중동평화를 위해 시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었다(Kibaroğlu & Oğuzlu 2009, 577-593).

또 터키는 서구와 같이 이란의 핵확산을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과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터키의 대이란 외교적 접근방식은 미국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즉, 터키는 이란에 강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UN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투표를 행사했었다. 이 외에도 터키는 미국의 터키 내의 콘야(Konya)에서의 군사훈련 확대 거부와 2004년 터키 남부지역의 인지를리(Incirli)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 전투기 배치를 거부하면서 미군에게 이란 침공의 우위권을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Sarıibrahimoğlu 2005). 또한, 최근 2010년 5월에는 터키와 브라질은 이란으로부터 저농축 우라늄을 받았고 그 대가로 연료봉을 보내는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조약이 이란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포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최소한 미로에 봉착된 당시의 협상을 타개한 발전으로 보인다.

이러한 터키와 브라질의 노력은 이란에 가해진 제재를 상대적으로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으며 협상 체결 이후 터키의 외무장관 다웃오울루는 “이번 상호 협상으로 이제 테헤란에서 긍정적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더는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었다.[12)]

한편 터키가 국경 동부의 주변국들과의 다각적이고도 절충적인 외교정책을 보여 왔던 것과는 달리 국경 서부의 그리스에 대해서만은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은 특이한 일로 보인다. 터키가 비록 위기 혹은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공중 조기 경계관제(AEW&C) 항공기나 관측 위성과 같은 주요한 군사 장비를 확충했다는 사실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대응하는 차선책임을 보여준다(Sarıibrahimoğlu 2005, 26).

최근 터키는 사이프러스 문제가 유럽 내에서 자국에 대한 의견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터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신분이나 서방국가들과의 안보동맹으로도 서방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어낼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터키에 새로운 경각심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는 터키가 서방 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국방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 터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강력한 국내 위협 중 하나는

12) “Iran signs nuclear fuel-swap deal with Turkey,” BBC News, May 17, 2010,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8685846.stm. (검색 2012.11.5).

소위 쿠르드 노동당(PKK)과 쿠르드 자유민주회의(KADEK)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터키의 국제 관계 속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좀처럼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당분간 처리 안 되고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시점에서 독립적인 쿠르드 국가의 건설은 심각한 터키 국내분열 조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터키의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터키의 대외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미국과 터키 사이에서 발생한 긴장감에 대한 첫 징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드러나게 되었다. 2003년 터키는 미군의 이라크 공격을 위한 터키 내 공군기지와 영공 사용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 제공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대 對 터키 신뢰에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끼게 해 준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터키의 처지에서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을 위한 독립 국가건설의 가능성과 터키 내 쿠르드인들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였다(Hughes & Sarıbrahimoğlu, 2003, 4-5).

2003년 3월, 터키는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 북부 40km 이내에 주둔시켰다. 당시 터키 에르도안(Erdoğan) 총리는 “터키는 국익수호를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필요하다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월경 越境을 언급했는데(Sarıibrahimoğlu 2003, 2). 이는 전적으로 터키 주변으로 쿠르드 독립 국가 건설을 절대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터키가 쿠르드 민족을 얼마나 커다란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이러한 위기감과 긴장감을 얼마나 고조시켜 주었는지를 바로 보여준 것이었다.

비록 터키의 이해관계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부터 중동과의 동맹 관계로의 변화 혹은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터키의 존립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 그것이 비록 미국과 같은 서구 우방에 의한 것일지라도 – 불허 不許하겠다는 강경함과 단호함이며 이는 현 터키 안보에 있어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키바르오울루(Kibaroğlu)와 오우주루(Oğuzlu)의 언급도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터키는 부상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합의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입장으로 자국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 자신이며, 서구의 국제 네트워크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터키의 새로운 입장은 서구의 프리즘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서구의 연결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Kibaroğlu & Oğuzlu 2009, 577-593).

또한, 이는 만약 미국이나 유럽의 행보가 터키의 안보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터키는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터키의 지역적 염원과 소프트파워[13]의 증가

13) Soft power: 교육 · 학문 · 예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성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는 것과 달리 설득을 통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힘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세계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위에서 알아본 터키의 지역적 염원은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터키의 소프트파워는 주변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터키의 강한 포부이다(Nye 1990, 166). 또한, 지역의 안정 역시 터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터키는 지역적 리더십과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Kibaroğlu & Oğuzlu 2009, 584-585).

이에 대한 사례로는 1992년 초 터키는 주변의 개발도상국들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터키국제협력단(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ency)의 설립을 거론할 수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로 성장하였다. 2010년 터키의 공식 개발원조(ODA)는 총 9억 6천 7백만 불($)로 가장 큰 수혜국은 아프가니스탄이다.[14] 터키는 또한 2005년 말 이래로 인근 50개국과 무역진흥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이래로 터키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국제평화유지군으로도 체류하고 있다.

현재 터키 외무장관 다웃오울루(Davutoğlu)는 터키의 주변 지역에서 소프트파워를 지지하는 핵심설계자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그에 의하면 터키는 오스만 터키제국 때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다국적 동맹 관계

연성 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소프트파워는 대중문화의 전파, 특정 표준의 국제적 채택, 도덕적 우위의 확산 등을 통해 점차로 커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활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14) http://www.ldc4istanbul.org/uploads/TIKA&TDC.pdf

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점은 최근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그는 터키 북동쪽의 카르스(Kars) 지역과 대서양 사이에서 더욱 통합적이고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터키의 안보 상황에 대한 분석은 터키의 안보 인식에 따른 터키의 행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적 모습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과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간과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터키의 정치적인 정체성과 이것이 터키의 이해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I. 터키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본 장에서는 근대 터키를 특징지은 케말주의자들의 세속주의적인 민주주의 배경 속에서 현 집권당인 AKP의 발흥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터키가 서구사회와 교류하며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케말주의자와 세속주의적 민주주의

터키는 약 98%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터키

에서의 민주주의 역사는 공화국의 창시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 Kemal Ataturk)과 함께 시작된다. 오스만 터키제국의 몰락 이후 아타튀르크는 국가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첫째, 대외적 위협으로부터의 정치적 생존, 둘째, 국가의 근대화로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가 쓴 수단이 바로 서구화 정책이었는데 이는 서구의 이상에 맞춘 세속주의와 민주화 과정이기도 했다. 아타튀르크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현대성과 서구세속주의에 비교해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하향식 제도적 규정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이슬람이 차선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정부의 교육부문 독점, 칼리프의 숙청, 이슬람 학교(마드리샤) 금지, 종교행사 규제, 종무기관(The Directorate of Religious Affiars)의 설립, 비 성직주의(Laicism)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국가에 의한 종교의 엄격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Keyman 2007, 220).

그러므로 아타튀르크로부터 시작된 터키의 새로운 정체성 유지를 위해 터키 군부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스스로 '세속주의의 수호자'로 여기며 지금까지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Dağı 2005, 23-24). 그래서 터키 내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와 사회질서 확립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터키 군부는 정치적 정체성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그 지위는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 안에서 점차로 격상되어 갔다. 도안(Doğan), 아이든르(Aydinli) 그리고 외즈잔(Özcan)의 언급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터키인은 아직도 터키를 군부 국가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공생관계를 통해 터키가 국가를 건립하고 수호하는 군부에 속박되고 있다는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도 본다(Akyaz & Aydınlı & Özcan 2006, 77-90). 터키의 군부는 1960, 1971, 1980년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의 세속주의적 정체성을 공격하는 어떠한 위협 가능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터키의 대중에게 있어서 군부는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15]

2. 현 집권당(AKP)의 정체성 연구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터키의 AKP 발흥은 세속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장애물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현 AKP 지도자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수상과 귈(Abdullah Gül) 대통령은 원래 이슬람 기반 정당인 복지당(Refah Party) 소속 의원이었다. 복지 당은 1994년과 1995년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슬람 기반의 리더들이 1995년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통치를 맡게 되었으며 당시 에르바칸(Necmettin Erbakan) 정부에 의한 통치는 터키 세속주의에 대한 강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1997년에 다시 군의 개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Taşpınar 2007, 122). 이후 2000년에는 복지당 안에서 전통주의자들인 친 에르바칸 측과 새로운 혁신주의자들인 에르도안 지도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발생했으며 이후 터키 헌

15) 군부는 국가 안전보장위원회(NSC)에서 의제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통제권을 갖는다. 1980년대에는 군부 감독하에 대학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OK)를 설립하였고, 미디어 감시를 위해 라디오· 텔레비전 위원회(the Radio and Television High Council)을 구성하였다.

법재판소에 의해 2001년 6월 복지 당이 해체되자 2001년 8월 14일에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그룹은 새로운 정당을 발족시키게 된다(Dağı 2005, 23-24).

2002년 총선에서 AKP의 공약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계획'은 곧바로 당의 중심기반이 되었고, 곧바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입지를 굳혀갔다. 당시 AKP는 터키 의회의 3분의 2(550석 중 360석)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2007년의 재선으로 이어져 갔다. AKP는 주로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의 이슬람 성향의 보수 중산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이었다(Taşpınar 2007, 122).

AKP의 공약과 당 지도자들에 따르면 AKP는 결코 이슬람 정당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또한, 현 AKP의 장기집권 성공도 이슬람 성향에서 그 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이는 당시 보수 중도우파의 친이슬람 정당인 행복 당(the Felicity Party)이 총선에서 역대 최저인 2.5%의 표만을 얻어낸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Dağı 2005, 33).

헤인스(Jeffrey Haynes)는 당시의 여론조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AKP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결코 이슬람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이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듯 보인다. 예를 들면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가능성이 터키인들에게는 종교적, 이념적 요소보다 훨씬 중요하다."(Haynes 2010, 317). 그러므로 AKP의 승리 요인은 경제정책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AKP는 터키가 2001년 20%에 달하는 실업률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오히려 힘을 얻기 시작했다(Sarıibrahimoğlu 2005, 24).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2002년 획득한 신임투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AKP는 경제발전에 헌신했다. 2005년 새로운 터키 리라(YTL)와 화폐개혁이 당시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정책은 성공적이어서 2002-2007년 사이 터키 경제는 해외투자의 증가와 함께 7.5% 성장하였다(Taşpınar 2007, 122).

또한, AKP는 대중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였다. 키맨(Keyman)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은 빈곤 문제에 대한 AKP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AKP는 자선활동과 부와 복지의 분배를 통해 기초생필품 사용을 쉽게 해 주었는데 그 예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석탄, 음식, 학교 교재의 배급 등을 들 수 있다(Keyman 2010, 316).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9·11 사태가 AKP의 창당 다음 달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포비아와 불신의 국제정세 속에서 친 이슬람적 의제를 주창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AKP의 정책 중 대부분은 사실 본래의 중도보수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으(Dağı)는 이를 가리켜 '사회적 영역 안에서는 이슬람과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Dağı 2005, 30). 그러므로 AKP가 전면적인 이슬람적 의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슬람에 대한 동조를 바탕으로 터키 안에서 매우 독특한 '정치적 이슬람'을 재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터키의 건립과 함께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 금지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에 대한 히잡 착용의 합법화 추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터키 헌법재판소에 의해 2008년 7월 결국 기각되었으며 또 다른 정책들로는 이슬람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주류 판매 억제 등이

있다(Haynes 2010, 316).

이 외에도 2004년에는 에르도안에 의해서 간통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더욱이 그는 다른 의혹의 시선들을 뿌리치고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을 정부 관리로 대거 임명하기도 했다(Taşpınar 2007, 126). 이에 따라서 2005년 앙카라에서와 2008년 이스탄불에서는 일시적으로 주류 판매 금지가 발효되기도 했었다. 결국, 이러한 세속주의에 대한 도전에 끊이지 않던 의혹으로 인해 2008년 AKP는 터키 헌법재판소에 기소되었지만, 나중에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Taşpınar 2007, 126).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하나는 비록 AKP를 '이슬람적'으로 낙인찍을 수 없더라도 AKP는 여전히 이슬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처음 공화국의 건국이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해 주는 명백한 사례들로는 1923년 이래 소위 '세속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리며 시민사회와 정부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군부의 힘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Larrabee 2010, 161).

2003년 터키의 국가 안전보장위원회(NSC)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위원회 안에 민간 공무원의 수적 증가와 비교하면 군 장교의 수는 감소하였으며, 그동안 군 장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많은 일이 새로운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되었다. 또 위원회 사무국의 월별 회의는 격월 회의로 축소되었다. 또한, 그동안 국가안전 보장위원회에서 정부를 위한 국가 의제를 '확정'하는 것에서 '제안'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터키 고등교육위원회(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OK)와 라디오·텔레비전 위원회(the Radio and Television

High Council) 안에서도 군부 인사들이 해고되었고, 군 예산을 검토하는 일도 민간 감사원(the civil Court of Auditors)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Sarıibrahimoğlu 2005, 23).

이 외에도 터키 군부와 AKP와의 긴장은 다른 사안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이프러스 문제와 관련하여 군부의 반대 입장과는 달리 AKP는 UN의 사이프러스 재통합 계획에 수긍하는 태도를 밝히고 나섰다. 더구나 소위 '에르게네콘(Ergenekon)'[16] 재판으로 잘 알려진 사건에서는 현 AKP 정부의 전복을 꾀한다는 죄목으로 다수의 현직 및 전직 군 장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17]

이슬람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AKP의 또 다른 정책으로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서구의 정체성과 서구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EU의 회원자격을 얻기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2002~2005년간 AKP는 EU 회원국 표준규정에 따라 여덟 건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과시킴으로 AKP는 터키공화국 역사상 EU와의 관계 형성 부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당으로 평가될 정도가 되었다(Taşpınar 2007, 127). 몇몇 학자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 '터키 내 유럽화의 황금기(Golden Age of Europeanization in Turkey)'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Larrabee 2010, 173).

---

16) 터키의 군부를 중심으로 한 반反 정부 비밀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의 고귀 장성급들이 국가전복 및 반란죄로 체포되고 관련된 많은 언론 기자가 체포 구금된 사건으로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죄목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본 사건은 1997년 1월 한 TV의 '정부 안에 있는 불법들'이란 고발 방송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http://tr.wikipedia.org/wiki/Ergenekon_Operasyonu

17) 터키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군 내부에 아타튀르크와 그의 세속주의를 지켜나가는 '수호자'그룹이 절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까지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케말리즘(Kemalism)으로부터 우회하는 듯한 AKP가 케말주의자들의 측면에서 보아도 터키 서구화와 근대화를 위한 정점이라고 여겨지는 EU 가입 정책에 반대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터키의 이전 복지 당과 같은 친 이슬람적 정당은 '기독교 클럽'이라는 이유로 터키의 EU 가입을 처음부터 반대했었기 때문이다(Kibaroğlu 2009, 585).

이에 대한 첫째 대답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둘째 대답은 AKP의 치밀하고도 고차원의 정치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AKP는 지금까지 뚜렷한 이슬람 성향을 보이며 터키 안에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자유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때, 터키의 EU 가입은 이전까지의 정부 차원의 종교 활동과 정책 참여에 대한 통제와 제한으로부터의 매우 유리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Cook 2005, 99).

같은 맥락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터키 내 AKP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군부 세력의 축소 움직임 또한 EU의 군 관련 표준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AKP의 EU 가입 시도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기회와 뚜렷한 대의명분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AKP의 대 對 EU 정책은 민주화의 확산과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보일뿐더러 동시에 AKP가 EU 가입을 최우선적인 국가정책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시민사회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여론의 지지를 잃지 않은 채 공식적으로 줄여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종교적(이슬람) 자유의 확대를 위한 AKP의 관련 정책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AKP는 국내 쿠르드 문제 해결 노력에서도 위와 비슷한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 안에서 쿠르드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같은 해 쿠르드인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 명목으로 국내 쿠르드어 TV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였다(Öniş 2010, 371).

AKP의 대 對 EU 정책은 국내 민주주의 확산에도 그 길을 넓혀 주었으며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여론형성이 서구 세력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반영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터키 정치에서 반서구 감정은 어느 형태로든 늘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Grigoriadis 2010, 65) 그런데도 과거와의 뚜렷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론에 의한 정책수립이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 날이 갈수록 큰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비록 AKP 지도부가 AKP와 이슬람을 등식 관계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여전히 중도 우파적 정책과 터키 내 세속적 민주주의를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이슬람에 대한 동조를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귤 대통령은 터키의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와 종교적 자유를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EU 정책 사안에 이미 찬성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귤은 수차례에 걸쳐 터키를 민주주의적 이슬람국가의 모델로서 묘사한 바 있다(Sarıibrahimoğlu 2005, 18).

2003년 이슬람회의기구(OIC) 회의에서도 귤은 민주주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슬람 국가들은 통치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인권과 여성 권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Kirişçi, Kemal 2011, 40). 에르도안 수상도 터키를 민주주의의 모델이며 종교, 문화, 문명화의 다리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란을 형제국가라고 지칭하며 매우 강경하게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위해 목

청을 높이고 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터키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현재 외무장관 다웃오울루(Davutoğlu)의 공헌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터키 주변 지역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페리스(Paris)와 메랄(Meral)이 그를 지칭해서 '과다한 활동가'로 불렀던 것처럼,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세르비아와 발칸, 이라크 수니파와 시아파,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등의 분쟁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다(Paris & Meral 2010, 80~81). 다시 말하면 그는 터키의 주변 지역에서 리더십 가능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함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정치적 정체성 수립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3. 터키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

최근 터키의 EU 가입절차의 불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AKP가 민주화를 위해 계속해서 정치 및 사회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위 정책이 단순히 EU로의 가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EU 가입 협상 절차가 지체됨에 따라서 터키가 EU 가입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Larrabee 2010, 175).

에르도안도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앙카라 기준(Ankara criteria)'으로 다시 이름 붙여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서 '앙카라 기준'이란 터키의 개혁절차는 자국의 경제-정치

적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들은 EU 회원자격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터키의 발전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Öniş 2010, 366).

한편 AKP는 이슬람을 숨겨진 의제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며 터키 내 이슬람의 뿌리를 가진 민주주의를 다시 정착시키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지를 중도 우파 정당으로 굳혔다는 사실은 AKP가 보수적인 이슬람교도와 중산층으로부터의 지지뿐만 아니라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인 다양한 층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KP가 이슬람 조직에 동조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전체적이고도 전국적인 동의를 먼저 구하려는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Taşpınar 2007, 126).

'이슬람 수호자'라고 불리는 현재 터키의 정체성은 주변 지역 내 강호로 부상하고자 하는 터키의 열망과 합법성과도 일치하고 있는데, 야닉(Yanik)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리켜 이슬람과 서구를 잇는 다리라고 불렀으며(Yanik 2009, 542), 터키의 정체성이 '문명의 충돌'을 막아낼 수 있다고도 확언하였다.[18] 그 하나로 2003년부터 터키는 이슬람회의기구(OIC)의 사안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OIC의 사무 국가가 되었다. 현재 OIC는 UN 대표단과 함께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의 이익 신장은 물론 총체적인 협력과 회원국 간의 이슬람 결속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19]

18) 야닉(Yanik)은 Samuel Huntington의 저서 *The Clash of Civilizations* (1996)에서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데, 문화와 종교의 정체성은 냉전 이후의 이 세계에서 갈수록 충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강대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위해 이슬람 세계와 중동지역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터키의 새로운 정체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터키 정치적 정체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터키는 지금도 세속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치의 굳건한 기둥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이슬람과도 양립하고 있다. 이는 더는 엄격한 규제자가 아니라 종교적 표현을 위한 자유의 수호자인 것이다. AKP는 세속주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과 친근한 용어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터키에서의 이슬람을 떠올릴 때 즉각적으로 원리주의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급진적이고 근본주의 이슬람은 현재의 터키 정체성에서도 설 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터키의 정치적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특정 중동국가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또한 그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AKP의 리더십과 여론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터키의 정체성은 인근 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영향력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역 내 권력 강화를 위한 안보이익은 터키의 외무장관 다웃오울루(Davutoğlu)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확립된 바 있는 정체성의 이익과 양립된다. 그가 표명했던 주변국과의 '제로 프라블럼스(Zero problems)'와 '전략적 깊이(Strategic depth)'(Larrabee 2010, 157-180)는 터키가 터키의 중

19) http://www.oic-oci.org

& http://www.fimcivilsociety.org/f/library/OIC_Overview_and_Analysis.pdf

동지역 안에서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강한 리더십의 가능성을 갖게 해 주었다.[20]

이렇듯 AKP의 종교적 자유 확대 추구와 당 지도부를 통해 보여준 친이슬람 성향은 여론지지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케말주의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 터키에서 보이는 현상은 정치적 이슬람과 세속주의적 민주주의의 조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물리적 능력과 힘에 관한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다양한 정체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터키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국제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변모하는 안보환경과 변화하는 정치적 정체성이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 고에서는 냉전 이후 터키의 안보이익에 대한 관점과 터키의 정치적 정체성 변화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서 터키의 명확한 사례들을 가지고 안보이익과 정체성 이익이 국가의 이해관계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

20) 'Zero-Problems' 정책은 주변 국가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전략이며 주로 경제적인 교류 관계에서 강조된다. 래라비에 의하면 터키는 과거 오스만제국 때부터 발칸,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까지 이르는 공유적 역사와 문화 관계를 강조하며 주변 국가들과 상호 외교적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터키의 정책을'Strategic Depth'라 부른다.

았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외교정책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터키 외교정책에 있어서 불변과 부동의 정책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첫째, 세속화를 바탕으로 한 서구화와 현대화의 추구이며 둘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터키공화국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에 의해 제정된 여섯 가지 기본 이념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21] 그리고 이 기본 이념을 떠나서 결코 터키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거나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AKP의 친이슬람 경향으로 인해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념추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8년의 집권 기간 AKP의 반세속주의 경향과 친 이슬람적 경향의 결과로 발생했던 적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더욱 지혜롭고 합법적인 대처가 없을 때 국내외적으로 닥치게 될 후폭풍들 또한 AKP 당정책 임자들이 감수해야 할 작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터키는 이제 곧 공화국 수립 80주년을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공화국 80년의 역사 전체가 두 개의 정체성, 즉 사회적으로는 이슬람이라는 정체성과 정치적으로는 유럽인이라는 정체성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고군분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제 터키는 국제사회에서도 나토 회원국, 세계 경제 16위 그리고 G-20 회원국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면서 국제적으로 그 역량을 힘

21) 공화주의(Republicanism), 민족주의(Nationalism), 국민주의(Populism), 국가주의(Statism), 개혁주의(Revolutionism), 세속주의(Secularism).

껏 발휘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비록 국내외적으로 아직 예민하고 수많은 미해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KP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터키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해결사로서 교량 역할에 대한 기대로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국내외에서 터키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AKP 정부를 장기집권으로 데려가 주었다. 하지만 AKP 장기집권 성공을 이슬람에 대한 국민적 간절한 염원이나 세속주의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으로부터 돌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AKP의 개가는 지난 500여 년 동안 과거 오스만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얻었던 외교적 역량과 경험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쓰라린 패망과 함께 찾아온 국가상실의 위기에서의 전 국민의 단합된 독립전쟁으로 귀하게 얻어낸 조국의 안녕을 국제질서 가운데 보존하려는 정신이 공화국 내내 함축되어 온 것이다. 이제 그 축적된 국제 외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소프트파워가 AKP 정부에 와서 그 진가를 발했다. 그러므로 터키의 안보이익 변화와 정체성 이익에 관한 논의는 터키의 이익 증대와 인근 지역 안의 소프트파워 행사 가능성으로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국가안보와 정체성 이익의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지만 현 터키의 이해관계 인식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종일(2006). “중동의 수(水)자원 분쟁 연구 - 터키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24-2호. 한국외대 중동문제연구소.

_____(2010). “Türk Siyasi Devriminde Atatürk’ün Önderliği Hakkında Bir Çalışma”,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1-2호.

_____(2011). “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 V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재만(1997). “중동평화와 국제질서: 터키의 기능과 역할”, 『중동연구』 제16-1호, 한국외대 중동문제연구소.

Akgün, Mensur(1994). “Türk Dış Politikasında Bir Jeopolitik Etken Olarak Boğazlar”, Türk Dış Politikasının Analizi.

Armaoğlu, Fahir(1987). “20. Yüzyıl Siyasi Tarihi (1914~1980)”, Turkiye Is Bankasi.

Armaoğlu, Fahir(1991). “20. Yüzyıl Siyasi Tarihi (1980-1990)”, Turkiye Is Bankasi.

Akyaz, Doğan, and Ersel Aydınlı, Nihat Ali Özcan(2006). “The Turkish Military’s March Toward Europe”, Foreign Affairs, 85, 1:77~90.

Bağcı, Hüseyin(1999). “Küresel ve Bölgesel Gelişmelerin Işığında Türk Dış ve Güvenlik Politikaları Üzerine Bir Değerlendirme”, Yeni Türkiye.

Baharçiçek, Abdülkadir(1999). “Uluslararası Sistemdeki Yeni Yapılanmaların Türkiye Açısından Yarattığı Bazı Önemli Sonuçlar Üzerine Bir Değerlendirme”, *Yeni Türkiye 21. Yüzyıl Özel Sayısı*,

Yıl:4, No. 19.

Cavlan, Esra and Ataçoğlu, Nurşin Güney(1996). “Avrupa’da Yeni Güvenlik Arayışları. NATO-AB-Türkiye”.

Cook, Steven A(2005). “The Right way to Promote Arab Reform.” *Foreign Affairs*, 89, 2:91~102.

Dağı, İhsan(2001). “İnsan Hakları ve Demokratikleşme: Türkiye-Avrupa Birliği İlişkilerinde”.

Dağı, İhsan(2005). “Transformation of Islamic political identity in Turkey: Rethinking the West and westernization,” Turkish Studies, 6, 1:23~24.

Efegil, Ertan. and Erol Mehmet Seyfettin(2007). “Turkiye-AB iliskileri”, Orion Yayinevi.

Eralp, Atilla(1997). “Soğuk Savaş’tan Günümüze Türkiye-Avrupa Birliği İlişkileri. Türkiye ve Avrupa”.

Grigoriadis, Ioannis N.(Winter 2010). “Friends No More? The Rise of Anti-American Nationalism in Turkey.” *The Middle East Journal*, Vol. 64, No. 1, 51~66.

Gruen, George E.(2003). “Turkey's Political Earthquake: Significanc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gion.”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25:87~97.

Günlübol, Mehmet and Kürkçüoğlu, Ömer(1985). “Atatürk Dönemi Türk Dış Politikasına Genel Bir Bakış”, AAMD, Vol. No.2.

İçener, Erhan and Çağlıyan-İçener, Zeyneb(2011).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s identity and its role in the EU's decision to open accession negotiations with Turkey”.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11:1, 19~34.

İnsel, Ahmet(2002). “12 Eylül'den Çıkış Kapısı”, Radikal İki.

Karaman, Lütfullah(1944). “Kurtuluş Savaşı ve Dış Politika Bağlamında Din Öğesi ve Hindistan Müslümanları”, Türk Dış Politikasının Analizi.

Keyman, E. Fuat(2007). “Modernity, Secularism and Islam: The Case of Turkey.” Theory, Culture & Society 24, 2:215~234.

Keyman, E. Fuat(2010). “Modern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urkey: The AKP Experience and its Limits.” Constellations 17, 2:312~328.

Kibaroğlu, Mustafa and Tarik Oğuzlu(2009). “Is the Westernization Process Losing Pace in Turkey: Who's to Blame?” *Turkish Studies* 10, 4:577~593.

Kim, Jongil(1999). “Türkiye ve Güney Kore Devrimlerinde Atatürk ve Park Jeong-hi’nin Önderlikleri Hakkında Mukayeseli Bir Çalışma” Istanbul University.

Kinross, Patrick(1995). “Ataturk; The Rebirth of a Nation”, Phoenix.

Kirişçi, Kemal(2011). “Turkey's Demonstrative Effec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Middle East”, *Insight Turkey*, Vol. 13, No.2, 33~55.

Kürkçüoğlu, Mehmet and Günlübol, Ömer(1985). “Atatürk Dönemi Türk Dış Politikasına Genel Bir Bakış”, AAMD, Vol. I, No.2 (Mart 1985), p. 462.

Larrabee, Stephen F.(April/May 2010). "Turkey's New Geopolitics." *Survival*, No.52-2, 157~180.

Makovsky, Alan(1999). “The New Activism in Turkish Foreign Policy” *SAIS Review* 19.

Nas, Çiğdem(1996). “Batı Avrupa Birliği Oluşumu Karşısında Türkiye’nin Durumu”, Değişen Dünya ve Türkiye.

Nye, Joseph(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166.

Olson, Robert(2006). "Relations among Turkey, Iraq, Kurdistan-Iraq, the wider Middle East, and Iran." *Mediterranean Quarterly*, 17:4.

Öniş, Ziya(2010). “Contesting for Turkey's Political ‘Centre’: Domestic Politics, Identity Conflicts and the Controversy over EU Membe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18, 3, 371.

Paris, Jonathan, and Meral, Ziya(2010). “Decoding Turkish Foreign Policy Hyperactivity”, *The Washington Quarterly* 33.

Rumelili, Bahar(March 2011). "Turkey: Identity, Foreign Policy, and Socialization in a Post-Enlargement Europ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33:2, 235~249.

Sarıibrahimoğlu, Lale(February 20, 2002). “Turkey suspends 88 programmes”, *Jane’s Defense Weekly*.

Sarıibrahimoğlu, Lale(April 30, 2003). “Turks clear early-warning aircraft project for launching.” *Jane’s Defense Weekly*.

Sarıibrahimoğlu, Lale(February 26, 2003). “Turkish delay over US basing decision hinders deployment.” *Jane’s Defence Weekly*.

Sarıibrahimoğlu, Lale(March 5, 2003). “Turkey moves on US deployment but doubts remain”, *Jane’s Defence Weekly*.

Sarıibrahimoğlu, Lale(May 25, 2005). “Country Briefing”, *Jane’s Defense Weekly*.

Sarıibrahimoğlu, Lale. “Growing Commitments”, *Jane’s Defense Weekly*, 18.

Şimşir, Bilal(1993). "Yeni Türk Cumhuriyetleri ve Türkiye 1991 Yılındaki Gelişmeler", *Değişen Dünya'da Türkiye ye Türk Dünyası Sempozyumu*, 59~98.

Taşpınar, Ömer(November/December 2007). "The Old Turks' Revolt: When Radical Secularism Endangers Democracy", *Foreign Affairs*, 122.

Yanik, Lerna K.(2009). "The Metamorphosis of Metaphors of Vision: "Bridging" Turkey's Location, Role and Identit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Geopolitics*, 14:542.

이슬람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에 관한 고찰 [1)]

A Study on the Symbols and Roles of Islam Mosque

이 정 순 [2)]

Lee, ChungSoon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모스크의 언어적 정의
3. 모스크의 역사
4. 모스크 건축과 그 종류
5. 모스크 형태: 외형과 내형
6.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
7. 나가는 말

[주제어: 이슬람, 모스크, 무슬림, 상징, 역할, 무함마드, 쿠란]

---

1) 본 글은 「한국선교(KMQ)」, Vol. 10, No. 4/2011, 가을호/통권 39 호에 게재된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게재함.

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수석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s and Roles of Islam Mosque

Lee, ChungSoon[3)]

Islam is more than a religion! It is a world view, a culture encompassing a system influencing the thought and actions of the Muslim community. The area where the mosque is built is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 building that announces that it is an Islamic area. In general, Muslim places of worship are called mosques. But in the Muslim world, the mosque is more than a place of worship.

During the last 1,40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Islam in 610 AD, the mosqu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and political arm bolstered by religion. In places where Christians resided, the mosque was always built larger to give a sense of dominance.

Muhammad said that the earth has been made a mosque for me. The mosque is the beginning and a centre for the propagation of Islam. In the course of their conquest, Muslims always first built a mosque. The erection of a mosque was a social obligation upon the ruler.

In Muslim communities, mosques are the central institutions that direct everything related to their lives. The mosque is not only a religious centre but also the very objective of Islam. From the very beginning the mosque has had multi-purposes. It forms the centre of the Muslim Ummah, Muslim faith and is the hub of all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informal social intercourse.

---

3) Ashin Univers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Islam, we should correctly recognize the symbolism and the role of the mosque. The mosque is not a mere building but a symbol, and it's the role varies. The symbolism and role of the mosque depends on whether it is in a Muslim or non-Muslim country. Muslims regard the mosque as the best place in the world.

One of the symbols of Islam, the mosque has been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in the early Islamic era to this day. Muslims can pray anywhere without a mosque, but the mosque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since the beginning of Islam. Early mosques were very simple, but soon after they met with Byzantine architectural traditions, they began to change. The mosque acquired a minaret from the Byzantines; pillars from the Goths, the dome shape from Buddhism; and mosaics and arabesque from the Persian and Chinese Turks. Through these imitations, Muslims developed and made them a part of their architecture to adapt to other cultures.

The construction of the mosque was a social duty of the ruler. As society has become more stable and rich, more and more Muslims have built mosques with their own resources. Establishing or sponsoring a mosque was often recognized as one of the ways of salvation. Families and individuals who built the mosque were socially respected.

Today, Islamic mosques are easily seen in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even in Korea. There are 17 mosques and about 60 musalla (prayer rooms) in Korea. Mosques in Korea are permeating into Korean society as a powerful tool of the propagation of Islam.

[Key Words: Islam, Mosque, Muslim, Symbol, Roles, Muhammad, Quran]

I. 들어가는 말

이슬람 모스크[4]는 이슬람의 시작이자 핵심이며, 이슬람 전파의 강력한 도구이다.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일반적으로 무슬림[5]들의 예배 장소를 모스크라고 한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에서 모스크는 예배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슬람에서 모스크는 이슬람 예술의 여왕으로서 대표적인 종교 생활의 중심이자 정치적, 사회적 모임의 장소이다. 610년 이슬람이 형성된 이후 지난 1400년 동안 모스크는 세월의 흐름과 시대적 상황과 지도자들에 따라 종교성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변하여 오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더욱 규모가 큰 모스크를 지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지구 전체가 나의 모스크로 창조되었다.[6]"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모스크는 아라비아반도와 북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부 아프리카의 베넹(Benin, 베닌), 강비에(Genvie) 세계 유일의 수상가옥 마을에도,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에

---

4) '이슬람 모스크'를 이하 '모스크'라 지칭한다.

5) 이슬람(Islam)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Muslim)이라 한다.

6) al-Bukhari 8:56 Jabir reported That The Prophet(Muhammad) ".....and for me the earth has been made a mosque." Maulana Muhammad Ali, 'The Mosque', A Munual of Hadith, (Columbus, Ohio; The Ahmadiyya Anjuman Ishaat Islam Lahore Inc, 2001). 하디스(Haidth)는 무함마드의 말, 행동과 묵인사항을 기록한 언행록이다. 하디스는 꾸란 다음으로 권위를 갖고 있다.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 1976년 5월 21일 서울 한남동 중앙 모스크(성원 또는 센터)[7]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현재 부산, 경기도 광주, 전주, 안양, 안산, 인천 부평, 파주, 대구, 광주, 포천, 구미, 창원, 김해, 제주, 대전과 김포에 17개의 이슬람 모스크가 있으며, 그 외 50~60여 개의 임시 예배소가 모스크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8]

이슬람은 단순한 믿음이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이슬람은 종교적인 용어의 옷을 입은 사회 경제적, 사회 교육적, 입법적, 사법적, 그리고 군사적인 시스템으로서, 그 안에는 구성원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 비무슬림들과의 관계까지 통제하는 규율들이 있다.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에서 모스크는 그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시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9] 이슬람 신앙의 '다섯 기둥'은 신앙고백, 기도, 성지순례, 단식, 희사이다. 이것 중에 모스크는 신앙고백인 예배와 관계있어 중요하다.

우리가 이슬람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모스크의 상징성[10]과

---

7)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는 '모스크'를 '이슬람 성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서울 중앙성원'을 '서울 중앙모스크'라 지칭한다. '서울 한남동 중앙모스크'을 이하 '서울 중앙모스크'라 지칭한다

8) http://www.koreaislam.org/mosque/intro2.jsp(2011.1.8. 접속); 정지섭 「조선일보」 2006년 9월 21일 자, A14면 "무슬림들의 작은 안식처 '기도방(무살라)'..." - 향수 달래고 수다 떨고...몸 지지는 건 '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90년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기도방은 현재 서울 거여동, 중화동을 비롯하여 안산, 수원, 하남 등에 모두 60곳이 넘는다. 2001년 생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기도방은 찾는 이가 400~500명에 이르며 번창하자, 아예 운영권을 중앙교단에 넘기고 작년 말 '이슬람센터'로 지위가 격상됐다

9) S. Solomon & E. Alamaqdisi, The Mosque Exposed(Charlottesville, VA: ANM Press, 2007), 22.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슬람 한 종파[11]의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모든 종파에 해당되는 모스크에 관한 고찰이다.

2. 모스크의 언어적 정의

모스크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곳', '엎드리다(prostrate)'라는 뜻의 '사자다(sajada), 수주드(sujud)'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슬람에서 엎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로 간주하며, 예배는 알라(Alleh)[12]의 계시된 법(Sharia, 샤리아)에 복종하는 것이다.

모스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보통 그곳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와 그것의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작은 모스크는 무살라(musalla) 또는 마스지드(masjid)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스크는 아랍어로 마스지드(مسجد), 영어로는 모스크(mosque), 중국어로는 칭전스(淸眞寺), 스페인어로 '메스키타(Mosquita)', 불어로 '모스케(mosquée)', 독일어로

10) 상징(Symbol)의 일반적 정의: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시에 많은 의미가 있고, 사회적, 심리적 영향력이 크며, 의미하는 내용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상징의 형태(form)는 하나이지만 단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하지 않고 여러 의미를 전달한다(예: 추상화).

11) 이슬람은 크게 순니(Sunni)와 쉬아(Shia)파로 나눈다. 순니파는 무함마드 이후의 아부바르크, 오마르, 오스만과 알리를 정통 칼리프로 믿는다. 그러나 쉬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알리 및 그의 아들들 하산과 후세인으로 이어지는 혈통에 의한 계보를 믿는다.

12) 알라(Allha)는 하나님이란 의미이다. 영어로는 'God'이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 꾸란의 한국어판은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9)를 사용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과 꾸란의 알라를 구별하기 위하여 알라로 지칭한다.

‘모쉐(moschee)’ 그리고 터키어로 ‘자미(cami)’라고 한다. 한국에서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성원 또는 ‘마스지드’라고 부른다.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모스크라는 용어보다는 마스지드란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스지드 알 주마(Masjid al -Jum'a, 금요 모스크)’ 혹은 ‘자미(Jami, 집회)’는 금요일 모스크에서 행하는 공동 기도 모임에 사용되기도 한다. Musalla(무살라)는 기도를 위한 비공식 지역들과 야외 공간들에 사용된다.[13]

무슬림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 힌두교인, 불교인 등 비무슬림들 간에 예배장소에 대한 용어의 표현이 때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의미와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 꾸란[14]에서는 모스크(마스지드)란 단어가 28번 언급되고 있다. 특히 꾸란 제2장인 알-바까라장에서는 6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의 의무적 실천 기능 중 하나인 예배의 기능이 특히 강조된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15]

3. 모스크의 역사

이슬람의 상징 중의 하나인 모스크는 초기 이슬람 시대의 모스크가 오늘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꾸란은 카바가 인류 최

13) John L. Esposito,ed.,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07.

14) 꾸란(Quran)은 아랍식 발음, 코란(Koran)은 영어식 발음. 꾸란은 알라의 메시지를 무함마드가 낭송하고 이를 추종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15) 황의갑, “이슬람 세계의 마스지드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8 권2 호 (중동문제연구소, 2009), 112.

초의 모스크라고 말한다; "최초의 집이 인류를 위해 세워졌나니 이는 축복받은 박카[16]에 있으며"(꾸란 3:96)[17].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이후 모스크의 원형은 메디나에 있던 무함마드의 집 안마당으로 간주한다. 무슬림들은 모스크 없이 어디에서든지 예배의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모스크는 이슬람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함마드가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Hijra)[18]했을 당시 그곳의 거주민들 대다수는 무슬림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유대교로 개종한 아랍인들 및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아랍 다신 교도들이었다. 무함마드는 모스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메디나에 도착하자마자 모스크를 세웠다. 간소한 지붕을 올린 모스크는 나란히 줄을 지어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 길이보다 폭이 더 넓게 설계되었다.[19] 그것이 현재 세계 각지에 있는 모스크의 원형이다.

초기 모스크는 무함마드가 예배를 지휘하고, 신의 말씀을 전하고, 신자의 다툼을 조정하고, 재판하고, 정치적인 토론이나 결정을 내리고, 자제를 교육하는 곳이며, 신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사교하는 장이기도 했다. 무함마드에 의해 건립된 첫 번째 모스크는 둥근 지붕, 벽감이나 뾰족탑이 없었다.[20]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들이 온 제국의

16) 박카란 지금의 메카 도시의 옛 이름이다. 이도시안에 카바신전이 들어있는 함람사원(모스크)이 있다.

17)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9). 필자는 꾸란 구절 인용에서는 번역본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슬람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알라(Allah)를 사용하여 혼돈을 피하도록 한다.

18) 이슬람력이 시작한 해(622년)를 '헤즈라' 또는 '히즈라'라고 부른다.

19) 로버트 어윈, 『이슬람 미술』 황의갑 옮김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5), 64.

모든 부분에 세워졌던 것은 두 번째 칼리프인 우마르(Umar)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아라비아반도에만 그의 통치 동안 4,000여 개의 모스크들이 세워졌다.[21] 무함마드 이후 마당과 공터에 세워진 모스크가 오늘날 지붕에 돔을 갖춘 종교적 형태의 모스크로 발전되었다.

이슬람은 사막의 한 가운데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독창적인 문명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무슬림이 아라비아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됨에 따라 모스크 역시 세계 곳곳에 지어졌다. 이슬람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비잔틴제국과 사산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초창기 모스크들은 매우 소박하지만, 곧 비잔틴 건축적인 전통들과 만나게 되자, 그것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22] 모스크는 비잔틴으로부터 뾰족탑을, 고트족으로부터 기둥들을, 불교로부터 돔의 모양을, 페르시아와 중국계 투르크 족으로부터 모자이크와 아라베스크를 취했다.[23] 이러한 모방을 통하여 무슬림들은 그들 건축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발전시켰었다.

모스크의 구조와 장식 면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슬림 사회가 갖는 높은 사회적 이동성 때문이다. 이슬람 군대가 활발한 정복활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교회나 이교도 사원 또는 집들이 징발되고 개조되어 무슬림을 위한 모스크로 변형되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

---

20) Muhammad Saddique Qureshi, The Role of Mosque in Islam (New Delhi: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ers, 1990), 6.

21) 미야자키 마사카츠, 『하룻밤에 읽는 중동사』 이규원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112.

22) Paul Lunde, Islam (London: A Dorling Kindersley Book, 2003), 82.

23) Muhammad Saddique Qureshi, 8.

평화적으로 점령된 곳에서는 점령군 사령관 혹은 총독 관저에 붙어 있는 광장이 모스크 역할을 했다. 칼리프들이 예루살렘과 시리아에서 이 지역의 장엄한 기독교 교회들보다 훌륭한 모스크를 짓도록 명령한 것은 자신들의 신앙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영토의 중심에 있는 제국 시리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24]

634년 아라비아반도 전 지역을 통일한 후, 636년 비잔틴제국의 시리아 지역의 홈스, 다마스쿠스, 알레포처럼 무력으로 정복된 지역에서 무슬림들은 기존 교회와 회당을 한동안 건물을 공유하거나 압류하여 모스크로 사용했다. 640년 아랍인에 의해 이집트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수도 카이로에는 수많은 모스크가 세워졌다. 642년에는 비잔틴제국의 이집트 지역을, 651년에는 사산 왕조의 페르시아를, 697년에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을, 711년에는 스페인 남부지역을, 827년에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를 각각 정복하는 등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과거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당시 세계최대 제국을 형성하였다.[25]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붉은 흙벽돌로 지은 모스크들, 인도의 대륙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모스크들은 모두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다.

중국에 세워진 최초의 모스크는 8세기경 서안(西安) 시에 세워진 서안대청진사(西安大淸眞寺)이다. 중국의 모스크는 중국식 건축기술을 받아들여 다른 곳의 모스크와 달리 미나렛이 없고 지붕에 녹색 기

24) 전완경, 39.

25) 신안준, "모스크 건축의 평면 유형에 관한 연구", 「충청대학 논문」(제22 집) (충청대학; 2002년), 47.

와를 얹었다. 이는 돔으로 된 전형적인 모스크와는 다르며 불교 탑 모양의 외양을 가졌다. 유명한 모스크들은 스페인 코르도바 내 메스키트 모스크(8~10세기), 이집트 구 카이로 내 아즈하르(Al-Azhar) 대학 모스크(10세기), 이란 테헤란 내 금요 모스크 (9~11세기), 인도의 델리 내 쿠아트(Quwwat) 이슬람 모스크(13세기), 터키 이스탄불 내 술레이마니예(Süleymaniye) 모스크(14세기) 등이 있다. 15세기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와 자바섬에 전파되었다.[26]

이 시기 자바섬의 모스크는 힌두교, 불교, 중국의 건축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인도에서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무굴제국의 모스크가 세워졌으며, 델리의 자마 마스지드자마 마스지드(Jama masjid), 인도네시아의 모스크는 19세기까지도 돔이 없었으며 힌두교 사원과 같은 다층 구조의 지붕으로 설계되었다. 발리섬의 모스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모양을 간직하고 있다.

서울 중앙모스크는 1969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로 부지 1,500평을 확보하고, 1976년 5월 이슬람 각국 정부 및 종교지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소수 무슬림 국가에 있어서의 이슬람 선교”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 개최와 동시에 준공, 개원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 내 모스크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모스크를 중심으로 약 2,000명의 무슬림들이 이 일대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다.[27]

---

26) Malek Chebel, Symbols of Islam(New York: Assouline Publishing, 2000), 70.

27) 최수현, 원세일, 조백건, “서울은 작은 지구촌..” 「조선일보」 2008 년3 월33 일 자 A11.

4. 모스크 건축과 그 종류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모스크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1) 모스크 건립 요건

원칙적으로 이슬람에서는 누구나 모스크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초기에 모스크는 위정자나 지역 공동체의 원로들과 개별 종파에서도 각 자신의 모스크를 건립하여 운영했다. 이 전통은 후대에도 계승되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추앙받던 무슬림은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 안장이 되어 '성묘 모스크'라고 분류될 수 있는 모스크가 건립되었다.

모스크의 건립은 통치자의 사회적 의무였다. 이슬람 지배자들은 그들 각각의 영토들 안에 모스크들을 세웠다. 사회가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서 사재로 모스크를 세우는 무슬림들도 늘어났다. 모스크를 세우거나 후원하는 것은 흔히 구원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식이 되었다. 모스크를 세우는 가문이나 개인은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모스크나 모스크 부속 학교재단에 기증한 재산은 면세의 대상이 되었고, 모스크 운영권은 대부분 설립자와 그 후손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모스크 건립은 해당 가문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와 더불어 경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무함마드는 "알라께서 모스크

하나를 짓는 사람을 위하여 낙원에 집 하나를 지으신다"[28]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메카의 움 엘 쿠라(Umm el Qurra)대학의 아비드 빈 무함마드 수피아니(Abeed bin Muhammad A'Sufiyani)박사는 뛰어난 많은 이슬람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슬람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이슬람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샤리아의 근간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꾸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들은 모스크가 다른 모든 불신자의 건축물보다 더 높고, 넓으며, 웅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29] 이러한 주장들이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크고 웅장하게 짓도록 부추기고 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 열정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스크뿐만이 아니라, 시골 마을에도 조그만 모스크를 많이 건축하였다. 쉬아파와 수피파[30]들은 특별히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성스러운 사람들의 무덤들과 관련하여 활발히 모스크들을 건축해왔다. 모스크의 건립 자가 이슬람의 어느 종파에 속하였든지 상관없이 모스크 용도로 건립되었으면 모든 무슬림에게 개방된 것은 꾸란의 가르침 때문이다; "알라의 사원(모스크)에서 알라를 염원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우매한 자 누구뇨....."(꾸란 2:114).

---

28) 'Uthman said, I heard the Messenger of Allah(Mahammud) say; "Whoever builds a mosque, desiring thereby Allah`s pleasure, Allah builds for him the like of it in paradise."'(al-Bukhari Hadith 8:65).

29) S. Solomon & E. Alamaqdisi, 75.

30) 수피즘(Sufism)은 무슬림의 일부가 신봉하는 일종의 신비주의 신념 또는 사상 수니파는 수피즘을 비아랍적, 비정통적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2) 모스크의 외형적 종류

모스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금요 기도를 위해 사용되는 큰 규모의 국가관리 모스크이며, 둘째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는 사유의 모스크들이다. 대부분 사유 자선단체의 헌금들과 와크프(waqf)[31] 혹은 종교적인 기부금들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된다.

모스크의 외형적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다주식 모스크, 중앙 돔 모스크, 이완 모스크로 분류한다.

첫째, 다주식 모스크는 무함마드의 집을 모스크로 만든 이후 이슬람 초기부터 이용되어 널리 퍼졌다. 이 양식은 좁은 간격으로 배열된 수많은 기둥에 의해 예배 홀이 구성되어 있다. 예배실은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끼블라의 벽면을 정면으로 장방형 평면을 형성하며, 열주와 그 상부를 연결하는 연속적 아치로 구성된 아케이드 구조에 의해 상부의 지붕을 지지하였다. 예배실 중앙부에 미흐랍이 있으며, 그 전면의 상부 지붕에 돔을 설치하였다. 다주식 모스크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 각지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둘째, 중앙 돔 모스크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모스크가 대표적인 건물이다. 오스만 튀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 정복하고 성소피아 성당의 직접적 영향으로 대형 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모스크의 예배 홀 상부에 대형 돔을 가설하고 이를 지지하는 기둥이

31) 모스크와 기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을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증된 토지·가옥 등의 재산.

없는 넓은 예배 공간의 형성, 높은 천장에 수직성을 강조하고 넓고 높은 창문을 통하여 빛의 유입으로 밝고 신비로운 내부공간을 형성한다. 중앙 돔 모스크는 16세기 이후 오스만 튀르크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셋째, 이완[32]모스크는 볼트 또는 반구형 돔 천장을 형성하고 한 쪽 면이 외부로 개방된 홀로 되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궁전, 주택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11세기 이후 모스크와 마드라사 등에 도입되었다. 이완 모스크는 예배실 전면 중정 외곽 사면을 둘러싼 벽면 중앙부에 각각 이완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상부에 대형 돔이 설치된 예배실 전면의 이완은 가장 대규모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예배실의 주요 출입구로 이용되었다. 작은 규모의 이완은 집회, 강연, 휴식의 장소와 출입구 등으로 이용되었다. 이완 모스크는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술탄 하산 모스크, 이란의 옛 수도인 이스파한 이맘 모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맘 호메이니 광장에 세워진 이맘 모스크는 광장 가운데에 넓은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다.

5. 모스크 형태: 외형과 내형

모스크들은 그것들이 발견된 나라들의 전통적인 건축을 반영한다. 그러나 모든 모스크는 공통의 디자인을 특징으로 공유한다. 모든

32) 이완(弛緩): 잘 조성된 분위기 따위가 흐트러져 느슨해짐

모스크는 메카를 향해서 세워졌다.

(1) 외형

모스크의 대표적인 외형 건축양식은 돔, 미나렛과 알렘이다.

1) 돔(dome, quba)

모스크의 둥근 지붕을 영어로는 돔, 아랍어로는 '꿉바'라고 한다. 모스크 외부에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이 되는 곳이 돔이다. 미흐랍이 모스크 내부의 중심이라면 돔은 모스크 외부의 중심이다. 모스크의 돔형 지붕은 미나렛처럼 모스크의 종교적 기능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돔과 미나렛의 건축양식이 이슬람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슬람의 확장 시기에 정복을 통해 각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모스크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돔은 주변의 비잔틴 문화[33]와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슬람 민속학자들은 이미 이슬람 출현 이전에 아랍 유목민들이 낙타의 등 위에 싣고 다니던 조그만 가죽 천막의 둥근 모양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4]

돔과 미나렛의 모양은 모스크가 건립된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양

33) 그리스 고전 문화의 전통 위에 그리스도교적 요소가 더하여진 것이 이 문화의 본질이다. 비잔틴제국(330~1453년)의 성쇠와 함께 전개되었으나, 특히 6 세기 중엽, 9 ~10 세기, 14세기에 융성하였다.

34) 이희수·이원삼 외, 『이슬람』 (파주사: 청아출판사, 2005 개정판), 109.

식이나 당대의 건축기술에 따라 다양하다. 북아프리카와 중근동 지방의 모스크 돔은 주로 반구형(半球形)이다. 이란의 모스크는 길쭉하고 끝이 뾰족한 모양의 돔에 형형색색의 모자이크 채색 타일을 입혀 화려하다. 인도에서는 양파 모양의 돔이며, 터키에서는 천장을 받쳐 주는 기둥이 필요 없도록 예배실 전체를 거대한 돔으로 뒤덮게 되어있다. 브루나이의 주요 모스크 돔들은 황금으로 되어있다. 현 29대 볼키아 왕의 즉위 25주년을 기념으로 만든 자메 아스르 하사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는 29개의 황금 돔으로 이루어진 브루나이 최대 모스크이다.

2) 미나렛(minaret 첨탑)

모스크 양쪽에 있는 뾰족하게 솟은 곳을 '미나렛'이라고 부르며 아랍어로 '등대'라는 의미이다. 이슬람 초창기에는 모스크에 미나렛이 없었으며, 무에진은 흔히 평평한 옥상에 올라가 예배시간(아잔)이 되었음을 알렸다.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과 더불어 모스크가 차츰 일정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서 미나렛도 건물 일부로 추가되었다. 미나렛의 기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이방인들에게 그 지방의 모스크 위치를 알려주며, 여행자를 위한 등대 역할, 망루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나렛은 이슬람의 점령지에서 군사적·정치적 의미가 컸다. 미나렛은 무슬림 위정자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위상을 과시하며, 비상시엔 망루의 역할도 하였다. 세월이 지날수록 미나렛은 모스크와 필수 불가분한 관계가 되어 이슬람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나렛은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나렛은 기능면에서 녹음기를 활용하므로 무에진의 역할은 무의미해졌다.

미나렛의 모양은 고딕식 사각형 망루나, 등대 모양, 나선형, 뾰족한 촛대 모양 등 다양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시리아, 북아프리카, 안달루시아(스페인·포르투갈 지방) 지방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각형이며, 이라크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건축양식을 모방해 나선형, 이란·터키 지방은 가는 원통형이다. 미나렛이 모스크에 붙어 있거나 모스크 근처에 세워졌다.

모스크에 따라 미나렛의 개수도 다양하지만, 일정한 규정도 없다. 미나렛은 이슬람 초기에는 1개가 보통이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왕족이 세운 미나렛은 보통 2개 이상이 만들어졌다.[35] 1~2개의 미나렛을 가진 이슬람 모스크는 개인이 건축한 것이었고, 3개는 관공서, 4개는 정부가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오스만제국(1299~1922)의 술탄은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메카의 하람 모스크와 같은 6개의 미나렛을 건축하였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하람 모스크는 6개의 미나렛을 7개로 증설하였다.

3) 알렘(Alem)

모스크의 돔이나 미나렛 꼭대기에 있는 장식으로, 알렘에는 초승달 모형이 달려있다.

35) 데이비드 맥컬레이, 『이슬람사원』, 김영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5), 7.

(2) 내형

모스크 내부 장식은 인물이나 동물을 묘사한 모자이크나 프레스코 벽화[36]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꾸란 59:24에서 알라만이 진정한 '창조주'로서 인간이나 동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모스크의 벽, 바닥, 돔 등의 표면과 내부를 치장하기 위해서 꾸란의 글귀를 아름다운 서체형식으로 표현하거나 꽃과 식물들의 형상을 추상적인 무늬를 이용하여 아라베스크 문양[37]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1) 미흐랍(mihrab, 벽감)

모스크에서 메카 방향(키블라)을 보여주는 미흐랍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모스크 내부에서 중앙에 벽면의 오목한 곳으로 미흐랍 벽을 마주하면 메카 방향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된다. 미흐랍은 로마의 후기 궁전에서 유래한 것이다.[38] 이맘은 미흐랍 바로 앞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미흐랍은 보통 돌, 상아나 자개, 대리석과 여러 종류

36) 석화를 벽에 칠하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채색하는 방법이다. 르네상스 때 많은 작품이 이런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37) 아라베스크 문양은 이슬람 건축부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문양은 아랍어 문자 또는 식물의 줄기나 덩굴 등에서 기원 된 곡선적, 유동적 형태 요소에 의해 복잡하게 구성된 추상적인 문양을 지칭한다. 모자이크 기법은 비잔틴 건축으로부터 도입된 기법으로 대리석과 석회석을 비롯한 석재, 색채 타일, 색유리, 조개껍데기, 금박가루의 화려한 색상과 광택을 지닌 재료를 실내 벽, 천장, 바닥 등의 표면에 부착하여 전체적으로 성화, 인물화, 문양 등을 구성함으로써 표면의 작은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여 매우 화려하고 강렬한 효과를 창출한다.

38) 로버트 어윈, 24.

의 나무로 무늬가 만들어졌으며 모스크 내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지는 장소이다.

2) 민바르(minbar)

금요예배에서 모스크 내부의 설교단을 민바르라고 하며, 미흐랍의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 민바르는 비잔틴제국에서 설교할 때와 성경 낭송이 이루어진 설교단의 형식에서 유래됐으며, 모스크 금요예배 시간에 이맘의 설교와 칼리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중세 이슬람 시대에 민바르는 설교자를 위한 단순한 연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왕관처럼 민바르는 정치적인 권위로 지배자가 자신의 명령을 하달하는 곳이었다. 민바르는 원래 금요 모스크에만 설치가 되었으나 점차 일반 모스크에서도 설치했다. 이는 금요 모스크와 일반 모스크 사이의 구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흐려졌기 때문이다.

3) 끼블라(qiblah)

모스크 건축과 관련 이슬람 율법이 요구하는 구조적 조건은 단 한 가지이다. 모스크의 한쪽 벽면은 메카의 카바를 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 벽을 '끼블라 벽'이라고 한다. 이는 꾸란에 근거한 것이다;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 사원(카바)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지니..."(2:150).

4) 하람(haram)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넓은 홀을 '성역'이라는 의미에서 '하람'이라고 불린다. 이슬람 초창기 마당 모스크의 바닥은 흙이나 조약돌이 깔린 맨땅이었다. 그러나 모스크가 건물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하람 바닥도 일반 석재나 대리석 등으로 단장이 되었으며, 모스크 규모와 함께 하람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오늘날 모스크 대부분의 하람 바닥은 대부분 양탄자로 덮여 있다. 예배 시 이마를 대고 엎드려 절하는 곳이기에 종교적 배려가 관련되어 있다.

5) 리와끄(riwaq, 주랑 현관)

여러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현관이다. 고전적 형태의 모스크 경우에는 끼블라 벽 양 날개에 해당하는 측면 벽은 벽면을 따라 여러 개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현관으로 주로 통로나 휴식처로 이용되며 리와끄라 불린다.

6) 무슬리마(Muslima, 여성 전용 공간)

모스크에는 별도의 격리된 공간, 즉 여성 무슬림들을 위하여 마련된 예도 있다. 여성에게는 금요 정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여성 전용 공간도 모스크에 필수적인 시설물은 아니다. 모스크의 여성 전용 공간은 모스크의 공간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하람 입구에 약간의 공간을 확보하여 난간이나 칸막이로 막는 방법과 남성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2층에 공간을 설치하기도 한다. 서울 중앙모스크에는 3층에 여성 전용 공간이 따로 있다.

(3) 모스크의 부속시설

1) 사흔(sahn)

하람과 모스크 외곽 담벼락 사이에는 흔히 주랑을 좌우에 둔 사각형의 넓은 마당이 있다. 이 마당은 노천에 있으며 '빛의 뜰(사흔)'이라고 불린다. 미다아(mida'a 세정장)가 주로 이곳에 설치되어 있다.

2) 미다아(mida'a)

이슬람에서는 몸을 깨끗이 닦고 예배를 드리는 관례가 있어서 그에 필요한 미다아(세정장)이 필수적으로 설비되어 있다.

3) 라흘레(rahle)

모스크에서 사용되는 소품 중 꾸란을 받쳐 주는 것으로 일종의 독서대와 향을 피우는 도구를 의미한다. 라흘레는 주로 나무에 상아나 진주 등의 보석을 박아 만든 고급스런 제품도 있다.

4) 마끄수라(maqsurah)

금요 모스크에 설치된 시설물로 종교적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다. 미흐랍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의치한 '마끄수라'라는 별도의 격리된 공간이 그것이다. 카블라 벽에 접해 설치되는 이 공간은 칼리프나 총독 등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을 위한 별실이다. 이는 그들을 다른 무슬림과 신분적으로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와 그 측근을

위한 곳으로 암살의 위협을 차단하고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이마렛트(imaret)

모스크에 딸린 빈민을 위한 무료급식소이다.

6) 모스크의 조명과 비품

이슬람은 모스크에서 조명의 형태와 효과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모스크 조명은 오늘날 전등, 특히 휘황찬란한 샹들리에로 대체되었으나 과거에는 주로 기름 램프를 사용했다. 꾸란 24장(알-누르장, 즉 빛의 장) 35절에 “알라는 하늘과 땅의 빛이라. 그 빛을 비유하사 벽 위의 등잔과 같은 것으로 그 안에 등불이 있으며 그 등불은 유리 안에 있더라. 그 유리는 축복받은 올리브 기름으로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신은 하늘과 땅의 빛이다. 그의 빛의 의미는 유리, 램프, 올리브, 나무 등으로 비유된다.” 꾸란의 모든 장과 절들은 빛을 찬양한다. 무슬림 철학자 중에서도 이븐 시나(Ibn Sina, 1037년 사망)가 발전시킨 조명이론은 괄목할 만하다. 무슬림 철학자들은 빛은 신으로부터 발산되는 신의 상징뿐만 아니라, 사물의 기본적 실체를 만드는 형이상학적 것으로 이해하며[39] 종교적 상징인 빛에 관해 설명했다. 마치 천국의 은총이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내려와 앉는 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모스크 천장의 돔 주위에 트여있는 구멍으로 태양광선이 간접적으로 들어온다.[40] 오늘날 밤에 찬란한 조명이 많은 모스크를 향

39) 손주영, 『이슬람』(서울: 일조각, 2005), 388.

하여 비추고 있다.

(4) 모스크의 주요 임원

일반적으로 모스크의 임원은 무타왈리, 이맘, 카팁과 무에진을 포함한 비교적 간단하다.

1) 무타왈리(mutawallī, 수호자)

모든 모스크에는 모스크의 운영을 맡은 무타왈리가 있다. 무타왈리는 모스크에서 예배를 인도할 이맘을 임명한다.

2) 이맘(imam, 지도자)

이맘은 모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무함마드 생전 모스크에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함마드 자신이었다. 무함마드 사후에는 그의 후계자들(칼리프)이 예배를 인도했다. 원래 이맘은 모스크 공동체를 위한 직책의 하나이기는 하나 무슬림의 직업은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 법률가, 교육자, 사업가나 상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따로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예배 인도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하는 유급 이맘 제制가 거의 관행처럼 되어있다.

---

40) 김정위 편, 『이슬람 사전』 (서울:학문사, 2002), 538.

3) 카팁(khatib)

모스크에서 금요 기도회[41] 또는 이드 기도회 때 설교하는 사람을 카팁이라고 부른다. 카팁은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며, 대부분의 카팁은 보통 이맘들이다. 카팁은 많은 무슬림을 감독하고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가 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모스크에서는 이맘이 카팁의 역할을 겸임하기도 한다. 반면 규모가 큰 모스크에는 여러 명의 카팁이 임용되어 교대로 그 직책을 수행하며, 대개 이슬람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재판관(Qadi, 까디)에게 이 직책이 위촉된다.

4) 무에진(muezzin)

무에진은 정해진 시각에 미나렛에 올라가 예배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사람으로, 시계나 확성기가 없던 이슬람 전성기에 이 중책을 중시했다. 그의 역할은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녹음기를 사용하므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6.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

모스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의 역할은 다양하다. 모스크의 상징성과 역할은 이슬람 국가에 있는지

41) 이슬람 국가에서 금요일이 휴일이며, 금요 기도회가 가장 큰 모임

아니면 비이슬람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모스크의 상징성

모스크는 무슬림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영적인 센터이다. 군대 캠프들 내 기도공간으로, 공항이나 대학교 등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나 작은 모스크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기관에 모스크를 건축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무슬림은 모스크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소로 간주한다. 모스크 내에서 무슬림의 복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세속적인 행동들도 진행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모스크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움마(Ummah, 무슬림 공동체)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스크는 공동체를 위한 회중의 장소이다. 모스크는 항상 무슬림 공동체의 교육적, 문화적인 활동 내에서 독특한 장소로 사용되었다.[42] 모스크는 단지 종교센터로서만이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의 권위의 센터로서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무슬림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이다. 모스크는 교육과 경건의 장소이며, 잘 계획된 예술, 문학,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과정을 제공했다. 모스크는 꾸란, 하디스와 법들이 가르쳐지는 이슬람의 대학이었다. 배움의 전통적인 센터로서 이외에도 모스크는 무슬림들 사이에 믿음과 확신을 부여한다.

---

42) Muhammad Saddique Qureshi, 21.

어떤 모스크들은 무슬림들의 부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모스크들은 이슬람의 웅대함과 힘을 묘사한다.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이슬람국가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국가에서는 모스크의 활동이 축소되었다. 도시의 모스크와 시골의 모스크 사이에는 하나의 큰 다른 점이 있다. 전자는 세속적으로 명성과 웅대함의 중산계급을 표현한다면, 시골의 모스크는 종교성과 사랑방 역할을 한다.

이슬람에서는 지구의 어느 곳에서든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효용 가치는 같다고 한다. 그러나 모스크의 지위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같은 종파(예: 쉬아, 순니, 수피와 살라피) 안에서도 모스크마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다양성이 신학적, 교리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구분은 무함마드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상징성을 가지는 이슬람의 3대 성지인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의 모스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림 1 43)

메카의 카아바(ka'aba)에 있는 하람 마스지드(Masjid al Haram)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스크로, 모든 무슬림의 예배 방향을 알리는 끼블라는 바로 이 카바를 향하고 있다. 이곳은 무슬림들의 하지 의식의 중심이며 기도하는 동안 머리 정면을 향하는 방향이다. 또한, 성지순례의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로 무슬림이면 평생 꼭 한 번 이상은 방문해야 하는 곳이다(그림1). 이 모스크의 이름이 바로, '알 마스지드 알 하람'이다. 여기서 '하람'은 성스러운 곳, 금지된 곳이란 뜻이다. 또, 메디나에 있는 모스크(Masjid al Nabawi)에 무함마드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그림 2 [44]

43) https://hu.wikipedia.org/wiki/Mekkai_zar%C3%A1ndoklat (검색일 2018.4.29.).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하람 모스크 한가운데 검은색의 카바가 보인다.

44) 그림에서 원 안에 있는 건축물이 황금 돔(알사크라)이며, 그 바로 앞에 있는 직사각형의 긴 건축물이 알아크사 모스크이다.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마스지드'는 이슬람의 3대 성지중 하나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있다. 원래, 이 자리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에 이르러 완성된 유대 성전이 있는 터였으나 후에 이슬람의 승리를 강조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리스도교 성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건설되었다.[45] 그리고 황금 돔 모스크(The Dome of the Rock)으로 잘 알려진 예루살렘의 알사크라(Qubbat al-Sakhra)는 압둘 말리크(Abd al-Malik; 685~705)가 685~691년 사이에 완성했는데 초기 이슬람 건축의 표준 양식으로 손꼽힌다. 즉, 작은 황금 돔(알사크라)은 '알아크사' 모스크(마스지드) 바로 옆에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 둘을 자연스럽게 그냥 '알사크라' 혹은 '알아크사' 마스지드로 섞어서 부르기도 한다(그림2).

이 모스크는 원래 2대 정통 칼리프인 우마르가 목조로 건립한 것을 압둘 말리크가 유리 모자이크가 있는 팔각형 석조물로 개축한 것이다. 이 모스크의 아랍어 비문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기념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이슬람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이 건축물을 세운 것을 암시한다.[46] 이슬람에서는 메카, 메디나와 예루살렘의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효용 가치가 다른 곳보다 더 크다고 여긴다. 첫 번째 모스크에서는 100,000배, 두 번째 모스크에서는 1,000배, 세 번째 모스크에서는 500배에 달하는 예배의 효용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7&nNewsNumb=20170926155&nidx=26156 (검색일:2018.4.29).

45) 프랜시스 로빈슨 외,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손주영 외 옮김(서울: 시공사, 2002), 323.

46) 전완경, 『이슬람 예술』(경기도: (주)살림출판사, 2010), 39-40.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47] 무슬림들은 이곳들을 방문하는 것을 열망한다.

무슬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이나 특별한 사건의 발생 등을 근거로 모스크의 서열을 세웠다. 예를 들어, 카이로에 있는 어떤 두 개의 모스크는 불과 서로 몇 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그 중요성이 다르다. 미세르 알 가디다(Miser al Gadida)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이븐 알라스(Amer ibn Al'ass) 모스크에서의 기도보다 가치가 훨씬 덜하다. 사이다 제이납(Sayida Zeineb) 모스크는 두 블록 떨어져 위치한 다른 모스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48] 쉬아파 무슬림들은 이란의 쿰(Qum), 이스파한(Isfahan), 마샤드(Mashad), 이라크의 나자프(Najaf)와 카르발라(Karbala)[49]의 모스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중 카르발라의 모스크가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진다.[50] 오래된 모스크라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중요성이 결정된다. 종교적, 정치적, 설교 내용, 모스크와 누가 그곳에 있는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파키스탄에 있는 타블리기 자맛(Tablighi Jam'aat)[51]이 런던이나 파리 또는 미국과 다른 어떤 지역으

47) 최영길, 『이슬람 문화』 (도서출판 알림, 2000 개정증보판), 154.

48) S. Solomon & E. Alamaqdisi,, 26.

49) 쉬아파 최대의 성일인 아슈라는 무함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이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칼리프 야지드의 군대에게 참혹하게 살해된 날로 쉬아파와 수니파가 갈라지는 결정적 사건이다. 쉬아파 신자들은 해마다 아슈라에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내며 거리를 행진한다.

50) S. Solomon & E. Alamaqdisi, 27.

51) 타블리기 자맛은 1920년대 창설되었고 현재 80여 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이며, 현재 런던 동부 뉴햄 모스크(Newham)에 메가(Mega Mosque)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로 그 본부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 모스크는 전 이슬람 세계 가운데 정치적, 종교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모스크를 설립한 사람들과 구성원들의 신앙적인 명성 때문이다.

(2) 역할

모스크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종교적

모스크는 예배의 기능을 가진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며, 가정이나 자신이 마련한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매주 한 번 금요일 정오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든 성인 남자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모스크에 모여야 한다. 모스크는 이슬람의 전파를 위한 중심이다. 무함마드는 모스크에서 이슬람 전파자들을 훈련했고, 이슬람을 설교하기 위해 각 통치자와 부족에게 보냈다.

이슬람 교리의 진행 과정은 첫째 무함마드, 둘째 꾸란과 순나, 셋째 샤리아(이슬람 율법), 넷째 법학자들(울라마), 다섯째 세계 각 지역의 모스크에 전달된다. 모스크는 샤리아가 전개되는 곳이며, 이를 묶고, 풀고, 허락하고, 금지하는 등의 공표되었다. 모스크까지 하달된 울라마들(Ulama)[52]의 칙령은 모스크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획하고, 가르침으로써 실제로 시작이 된다. 무슬림들은 종종 하지 때

에 메카와 그 밖의 성지순례를 가기 전과 다녀온 후에 그들의 지역 모스크들을 방문한다.

1976년 서울 중앙모스크의 건립은 당시 중동 붐에 힘입어 한국인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였고, 중동에 진출하는 기업들과 일반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무슬림 수는 급증하였다. 모스크 개원 전 3천 명 정도에 불과하던 무슬림이 개원 후 3년 이내에 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53]

오스트리아의 경우 이슬람은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부터 100년 이상 존속했지만, 무슬림 인구가 많지는 않아서 1979년 수도 빈에 모스크가 처음 건설됐다. 이후 무슬림 인구가 급증해 2009년 현재는 40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54] 국내에서도 모스크는 그것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다.[55] 2011년 4월 30일부터 서울 중앙모스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슬람 교육 강좌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무슬림 유학생, 무슬림 한국인 대학생과 비무슬림 한국인 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이슬람 중앙회는 앞으로 월 1회씩 이슬람을 소개하는 강좌를 열 계획이다.[56]

---

52) 울라마(Ulama); 샤리아법을 해석하여 연대의 구체적인 사건과 문제들에 적용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53) 이희수, "한국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이스마엘」 제67호. 한국이슬람 연구소(2004), 7.

54) 이장훈, "유럽은 무슬림 전쟁 중", 「주간조선」 2079호(2009년 11월 9일), 91.

55) 강주안. '이슬람 개종한 새 신자 김덕수 씨 삶이 곡 교리 - 경건한 고행의 길 선택 사람', 「중앙일보」 1997년 2월 1일 자, 33면: 사진사 김덕수 씨는 이슬람을 처음 접한 것도 지난해 라마다 단식기간 때였다. 아랍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태원의 중앙성원을 찾은 김 씨는... 몇 권의 안내 서적을 얻어 온 뒤 틈틈이 이를 읽으며 '이슬람= 테러 마술·아라비안나이트'로만 알았던 선입관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슬람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중심으로 이슬람 전파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서울 중앙모스크에서 외국인 선교사로 활동 중인 랑시트 왜소호(56)와 파룩 준불(42)이 있었다. 왜소호는 태국 출신의 리비아 선교사로 1982년 2월 한국에 왔고, 터키 선교사인 준불은 1997년 11월 방한했다. 이슬람 신자가 많은 태국 남부 질라 출신인 왜소호씨는 리비아 트리폴리의 이슬람 신학대에 유학한 후 리비아 종교성에 의해 한국에 파견됐다.[57]

2) 정치·외교적

모스크는 처음부터 중요한 정치적 센터가 되어, 무슬림들을 위한 외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모스크의 기능은 종교적인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 지배하에 두는 것에까지 확장된다. 무함마드는 모스크에서 외교 사절들을 맞이하였다.[58] 무슬림들이 비이슬람과의 전투로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모스크를 피난처 삼았다. 꾸란 9:7 “알라와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불신자들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뇨. 그러나 하람 모스크에서 체결한 조약은 제외로 그들이 너희에게 진실할 때 너희도 그들에게 진실해야 되나니...” 초기 이슬람 시대의 모스크는 집회소, 회의실,

---

56) 송경화·안수찬, “한국의 무슬림-마스지드의 청춘”, 「한겨레일보」2011 년5 월19 일 자 4면.

57) 이선민. “한국인들 이슬람세계 너무 몰라”, 「조선일보 」2001 년9 월22 일 자 23 면

58) Muhammad Saddique Qureshi, 130.

법정, 금고, 군사, 작전의 중심지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모스크에서 행정적인 공고를 했고,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했다.[59] 모스크들은 위기상황일 때 정부 여당을 위한 주요 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실례들로는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모스크 학자들인 압둘라 알 샤르카위(Abdallah al Sharqawi)와 아흐마드 알다르다르(Ahmed Aldardair)는 프랑스의 점령에 이집트인들이 대항하도록 이끌었다. 알 아즈하르 모스크는 영국에 대항하여 1919년 혁명에서 학자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더 벌이지 않도록 영국군이 알 아즈하르 모스크 밖에 배치되기도 했었다. 그 후에 하산 알 반나(Hassan Al Banna)[60]와 그의 동료들이 지하드에 동참하고 감마 이슬람미야(Gamma Islamiya) 같은 극단주의 활동에 참여함으로 이집트 정부는 결국 관련된 많은 모스크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61] 웨스트 뱅크와 가자(West Bank and Gaza) 모스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티파다(Intifada)[62]를 일으키는 주된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 알아크사 모스크의 설교자들인 카팁들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지하드를 수행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서양의 언론들은 모스크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염려를 표명해왔다.

---

59) 로버트 어윈, 66.

60) 하신은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1919년 13살의 나이에 영국 통치를 반대하는 혁명에 참여한다. 그리고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the Muslim Brotherhood)을 1928년 창설하였다.

61) S. Solomon & E. Alamaqdisi, 35.

62) 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저항운동.

예를 들어, 1999년 1월 12일 자 '런던 타임즈'(The Times)와 1월 16일 자의 '가디언'(Guardian)은 핀즈버리 공원 모스크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 바로 그 모스크에 속해있는 무슬림들의 정치·군사적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예멘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 캠페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9·11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와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 기차 테러와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는 일이다. 2003년 11월 30일 한 신문에 의하면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역에 있는 모스크 대부분은 금요일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폭력을 선동하고, 하마스(Hamas)[63]나 다른 지하드 단체들이 발행한 증오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뿌리는 등 반이스라엘 투쟁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 기사는 특히 자살 폭탄 테러 요원들을 모집하고 조직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라말라(Ramallah)의 알 에인(Al E'in) 모스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모스크는 인티파다[64]에서 지금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5]

모스크와 그것의 정치적인 기능에 관하여 쉐이크 유수프 알 카라다위(Sheikh Yousif Al Qardawi)는 2001년 10월 29일 발행한 파트와(Fatwa)[66]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 선지자(무함마드)의 삶은

63)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투쟁을 전개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64) 인티파다(영어: Intifada, 아랍어: انتفاضة)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팔레스타인 민족의 민중봉기.

65) S. Solomon & E. Alamaqdisi, 36.

66) 파트와는 무슬림들이 어떤 사인이 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 혼자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한 법합자들의 법률적 견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또는 정치와 종교 사이에 구분이 없었고, 정치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소로 모스크 외에는 없었다.... 선지자의 시대에 모스크는 포교 활동의 중심지이자 국가의 본부였으며, 그의 후계자들인 칼리프들에게도 동일하게 모스크는 비정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고대로부터 모스크는 이슬람의 적들의 침략에 대항하며 알라를 위해 지하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왔다."[67]

한국에서도 서울 중앙모스크를 중심으로 정치·외교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권 외교관 자문위원 연례회동'으로 서울 중앙모스크에서는 2010년 2월 18일(목) 이슬람권 외교관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이슬람 중앙회의 주요 활동 사항과 2010년도 업무 내용 및 중장기 선교 방안에 관해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은 7개국 대사와 외교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앙회 측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원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하였다. 한국 내 이슬람의 발전을 위해 서로 대화를 가지는 정기적인 모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68]

3) 군사적

모스크에서 무함마드와 그의 후계자들[69]이 각 지방의 재판관들과

67) S. Solomon & E. Alamaqdisi, 38.

68) 「주간 무슬림」 958호. 2010년 2월 19일. 14쪽: '이슬람권 외교관 자문위원 연례회동, 951호. 2010년 1월 1일. 17쪽: '파주 성원 개원식 2009년 12월 27일(일) 12시에 파주 이슬람 성원 개원식에는 서울 중앙성원 임직원과 수단, 방글라데시, 오만 대사들과, 파키스탄, 오만 참사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파주 지역에서 온 무슬림 형제들 약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군대의 사령관들을 임명하고 지하드 수행을 논의하고 지시하며 요원들을 파견하며 고위관료들과 세금 징수원을 보내는 곳이었다. 이슬람이 정령하여 군사도시가 만들어지면 예배를 지휘하는 장관의 관사와 함께 모스크가 제일 먼저 도시 중심부에 지어졌다. 모스크에 의해 신흥 아랍인의 도시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이다.[70] 만약 탄약들이 모여지면 무엇보다도, 전쟁의 전리품들은 또한 모스크에 분배되었고, 모스크들은 신께 예배하는 목적에 추가적으로 세상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용됐다.[71] 모스크의 이맘이 영적 리더로써 뿐만 아니라 움마의 정치적 그리고 군대적 리더가 되었다.

4) 사회적

모스크는 무슬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 교제의 장이 마련되어 형제애, 평등, 규율 그리고 사회적 정의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루 5번 예배를 통하여 종교적·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슬림들은 모여 예배 외의 제반 문제에 대한 토의도 모스크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모스크에는 예배실과 정원이 있다. 정원은 분수대나 수도시설이 놓여 있으며, 아름다운 넓은 공간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 무슬림끼리 잡담을 나누는 등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다. 모스크

69) 무함마드 사후의 후계자들; 제1대 아부바크르(Abu Bakr), 제2대 오마르(Omar), 제3대 우스만(Uthman)과 제4대 알리(Ali)

70) 미야자키 마사카츠, 113.

71) Muhammad Saddique Qureshi, 2.

는 이슬람의 계시가 된 법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주변 사회와의 관계를 지시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5) 문화적

모스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모양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 세계 전부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 중 하나다.[72] 모스크가 병원이나 무덤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각 지역의 중심부에 대규모로 건설되기도 하였다. 모스크는 결혼식과 결혼식 파티,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모스크들은 특별히 라마단 동안에 파티와 자발적인 농성들을 위해 추천되는 장소이다. 그것들은 자선 구호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것을 위한 센터로써 섬기며 가난한 자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와 보호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 중앙모스크에서는 방문객들에 이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물을 모스크 마당과 사무실 근처에 마련하고 있다. 한국이슬람 측에서는 전시물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이 이슬람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73] 한국 군인들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파병을 앞두고 서울 중앙모스크에서 열린 종교의식에 참석하며 현지 문화를 경배 체험을 했다.[74] 모스크를 방문하는 학생

72) 정수일, 『이슬람 문명』 (서울: (주)창비, 2002), 263.

73) 「주간 무슬림」 968호, 2010년 4월 30일, 19쪽. 주간 소식 "이슬람 소개 전시물".

74) 「동아일보 」 2004년 5월 25일 자, 1면, "자이툰부대원 이슬람 경배 체험', 자이툰 부대원 30여 명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2동 이슬람사원에서 열린 종교의식에 참석했다

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문화[75]체험이라는 명목하에 이슬람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또한,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2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합동 기도회 전 모스크 대회의실에서 12시부터 '이슬람 소개 영상물'을 방영하였다.

6) 교육적

메디나에서 무함마드의 모스크가 지녔던 교육적 기능은 후에 본격적인 교육시설, 막탑(maktab)이나 마드라사(madrasa)로 이어졌다. 근대적인 교육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든 무슬림 교육은 모스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스크는 교육과 경건의 장소이며, 잘 계획된 예술, 문학,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과정을 제공했다. 모스크는 꾸란, 하디스와 법들이 가르쳐지는 이슬람의 대학이었다.

이라크 바그다드, 이란 이스파한과 콤,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집트 카이로 등은 그곳의 모스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학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학문의 중심지로 유명하였다. 1,0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al-Azhar) 대학, 튀니스의 차이투나 대학도 모스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은 모두 근대적인 형태의 학교에서 담당하고, 무슬림 자녀에 대한 '종교' 교육만 모스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꾸란, 하디

이들은 파병을 앞두고 현지 문화를 경배 체험을 했다.

75) 「주간 무슬림」 962호. 2010년 3월 19일. 16쪽. '아랍어과 신입생 본회 방문,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아랍어과 학생들 100여 명이 지난 3월 13일 토요일 본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이슬람학생회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학생들 간에 교류와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와 도덕적 인격형성등을 법학자들 혹은 울라마들이 가르쳤다. 더 높은 수준의 종교적인 교육은 현대 이슬람 대학들이나 이슬람 종교 연구기관 등으로 이동되었다.[76] 또한, 시골이나 도시의 낮은 계급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종종 명성 높은 학자들과 공부하는 모스크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상승으로 가는 길로 여긴다.

한국의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가 인기가 올라가므로 서울 중앙모스크에서도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랍어의 표준점수가 다른 언어에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오면서 모스크의 강좌를 찾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사무총장은 "매주 화·목요일 진행되는 초급·중급 아랍어 강좌에 30여 명이 참석한다. 아랍어 전공자와 취업 준비생, 중동 파견을 앞둔 직장인이 대부분이지만 대입 수험생도 몇 명 있다"라고 말했다.[77]

7) 기타

모스크 복합 건축물로는 소년학교, 꾸란 낭송자를 위한 숙소도 만들었다. 모스크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기도 한다. 집 없는 사람들은 건물 경내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었다. 이드('Id al-Fitr)[78] 축제로 파

76) John L. Esposito, ed., 207.

77) 채성진. “응시자는 가장 많은데… 가르치는 고교 한 곳도 없어”, 「조선일보」2009년 4월 18~19일 자, B7면: 수능 아랍어, 제대로 풀려면 간단치 않은 문제들" 아랍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지만 올해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없었다..... 2009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응시자 9만9693명 가운데 2만9278명(29.4%)이 아랍어에 응시했다.

78) 이드 알 피트르('Id al-Fitr):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상을 덮고

티 등 모스크에서 만찬회까지 개최할 수 있다. 국내 모스크에서도 이드 축제로 파티를 열고 있다.

전 세계 이슬람 사회에서 모든 무슬림 여성들이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는 모스크들의 현상은 중국 후이족 이슬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후이족 여성모스크는 무슬림 여성을 위해 세워진 예배와 신앙 활동 장소로서 여성들의 기도처, 꾸란 교육, 사회복지 등 여성들의 다목적 공간이다. 모스크는 무슬림 여성들의 기타 신앙 활동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79]

7. 나가는 말

이슬람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자연적으로 정복지의 건축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채택하여 모스크의 다양한 양식과 기법이 혼합된 절충적 건축양식을 형성하였다. 모스크가 단순한 종교 건축물 그 이상이며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슬람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군사적으로 총체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모스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두 배로 받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력 9월 라마단이 끝난 후, 축하하기 위하여 10월1일에 시작하여3일간의‘ 이드 피트르’ 축제. 한 달간 절약된 양식과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기간에 친척과 친지들을 방문 및 선물을 교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79) 이정순, “중국 후이(Hui)족 여성모스크와 여성 아홍의 역할”, 『복음과 선교』13 편, Vol. VIII/2010, No. 2. (경기도: 올리브 나무, 2010), 272.

양한 목적들의 복합성을 띠고 사용되었다. 모스크는 이슬람 초기에는 종교, 군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로써 종교적 기능 외에 학교, 병원, 결혼식장, 교제의 사교장, 묘지 등 복합단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초기 모스크의 복합적 기능이 세분되어 대부분 모스크는 예배를 수행하는 종교적 역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서울 중앙모스크는 종교적 기능 외에 무슬림 어린아이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슬람 문화체험, 아랍어 강의, 이슬람 소개 영상 방영과 이슬람 교리 등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며 주변에 복합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주변에는 무슬림 레스토랑, 무슬림 문화원, 무슬림 서점, 무슬림 슈퍼마켓, 무슬림 전자상점, 무슬림 식품점과 옷가게 등이 있다. 국내 모스크들은 아랍어 교육, 이슬람 문화 체험 장소, 정치·외교적 교류 장소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전파의 강력한 도구로 한국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슬람은 은밀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모스크 건축의 증가가 그 증거이다. 모스크 설립은 한국이슬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국내 모스크의 확산을 주목하며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모스크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종교적인 것 이상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정위 편.『이슬람 사전』서울: 학문사, 2002.

손주영.『이슬람 』서울: 일조각, 2005.

이희수, 이원삼 외.『이슬람』파주시: 청아출판사, 2005 개정판.

전완경.『이슬람 예술』경기도: (주)살림출판사, 2010.

정수일.『이슬람 문명』서울: (주) 창비, 2002.

최영길.『이슬람 문화』 도서출판 알림, 2000 개정증보판.

데이비드 맥컬레이.『이슬람사원』김영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5.

미야자키 마사카츠.『하룻밤에 읽는 중동사』이규원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로버트 어윈.『이슬람 미술』 황의갑 옮김.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5.

프랜시스 로빈슨 외.『케임브리지 이슬람사』손주영 외 옮김. 서울: 시공사, 2002.

Maulana Muhammad Ali. 'The Mosque,' *A Munual of Hadith.* Columbus, Ohio; The Ahmadiyya Anjuman Ishaat Islam Lahore Inc, 2001.

Lunde, Paul. *Islam.* London: A Dorling Kindersley Book, 2003.

Chebel, Malek. *Symbols of Islam.* New York: Assouline Publishing, 2000.

S. Solomon & E. Alamaqdisi. *The Mosque Exposed.* Charlottesville, VA: ANM Press, 2007.

Esposito, John L., ed. *The Oxford Dictionary of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Qureshi, Muhammad Saddique. *The Role of Mosque in Islam.* New Dwlhi: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ers, 1990.

「주간 무슬림 」951호. 2010년 1월 1일. 17쪽 '파주 성원 개원식'.

_____ 958호. 2010년 2월 19일. 14쪽 '이슬람권 외교관 자문위원 연례회동'.

_____ 962호. 2010년 3월 19일. 16쪽 '아랍어과 신입생 본회 방문'.

_____ 968호. 2010년 4월 30일. 19쪽. '이슬람 소개 전시물'.

강주안. '이슬람 개종한 새 신자 김덕수 씨-삶이 곡 교리 -경건한 고행의 길 선택 사람'.「중앙일보」1997년 2월 1일 자, 33면.

송경화, 안수찬. "한국의 무슬림-마스지드의 청춘".「한겨레일보」2011년 5월 19일 자, 4면.

이장훈. "유럽은 무슬림 전쟁 중".「주간조선 」2079호, 2009년 11월 9일.

연합뉴스. "자이툰부대원 이슬람 경배 체험".「동아일보 」2004년 5월 25일 자, 1면.

정지섭. " 무슬림들의 작은 안식처 '기도방(무살라)".「조선일보 」2006년 9월 21일 자, A14 면.

채성진. "응시자는 가장 많은데… 가르치는 고교 한 곳도 없어".「조선일보 」2009년 4월 18~19일 자, B7면.

최수현, 원세일, 조백건. "서울은 작은 지구촌...". 「조선일보 」2008년 3월 33일 자, A11.

신안준. "모스크 건축의 평면 유형에 관한 연구". 「충청대학 논문 」제22집. 충청대학; 2002년.

이정순. “중국 후이(Hui)족 여성모스크와 여성 아홍의 역할”.『복음과 선교』13편. Vol. VIII. 2010. No.2. 경기도: 올리브 나무, 2010.

이희수. “한국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제67호. 한국이슬람 연구소, 2004.

황의갑. “이슬람 세계의 마스지드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8권 2호. 중동문제연구소, 2009.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9.

www.koreaislam.org/mosque/intro2.jsp (2011.1.8. 접속).

https://hu.wikipedia.org/wiki/Mekkai_zar%C3%A1ndoklat (2018.4.29. 접속).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7&nNewsNumb=20170926155&nidx=26156 (2018.4.29. 접속).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변모 양상 요인 분석 연구

An Analytic Study of the Factors changing the Status of Modern Saudi Arabian Women

이 정 순[1)]

Lee, ChungSoon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초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사회 지위
3.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4.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변모 양상 분석
5. 나가는 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미래 전망 및 제언

[주제어: 변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여성, 지위]

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연구원 수석연구원.

Abstract

An Analytic Study of the Factors changing the Status of Modern Saudi Arabian Women

Lee, ChungSoon[2)]

Today, the lives of Saudi Arabia's women are gradually changing. Since Saudi Arabia is at the heart and soul of Islam,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Saudi women will have an impact on the rest of the Islamic world.

The paper describes the social status of early Saudi Arabian women in the pre-Islamic period (Jahiliya), the differences after the birth of Islam and especially the impact of Wahhabism on Saudi Arabian women's status. The Saudi royal family has maintained the country for 300 years, relying on the ideology of Wahhabism. Today, in Saudi Arabia, Wahhabism strictly regulates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attire.

The status of modern Saudi Arabia has been largely studied in the following areas: politics and economics, religion and culture and society, education and other fields.

The factors of the status change of modern Saudi Arabian women can be analyzed in nine ways: kings and princes with reformative tendencies; the rapid urbanization in Saudi Arabia; the surfacing courage of Saudi women; education and overseas students;

2) Ashin University

international criticism; decrease in oil reserves; the necessity of the labor force of women; economic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vis-à-vis travel, media, the internet, mobile phones, and Social Networking Systems. In addition, the paper examines the challenges of reform.

If the social reform movement for Saudi women is to succeed, it will be necessary to change the overall perception of women in society. The structural problems of women's male-dependent system must be changed. The most important obstacle is the male guardian (patriarchal) system.

Saudi women will be more easily exposed to the Gospel if the Saudi royal family's reform polici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s social activities continue. Consequently, the changes in the status of Saudi women will impact the rest of the Islamic countries.

[Key words: Changing, Saudi Arabian, Islam, Women, Status]

1. 들어가는 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이슬람의 심장이며 발생지이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세 곳 성지[3]중 두 곳(메카, 메디나)이 있는 지구상에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 중 하나이다. 사우디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의 여성은 이슬람 이념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인구의 약 50%가 여성이듯이 현재 사우디 인구의 약 50%도 여성이다. 오늘날 사우디의 지형은 변한 것이 거의 없지만, 지금 그 땅에 사는 사우디 여성들의 삶은 느리더라도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로 지금 사우디 사회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사우디는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사회이기에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전통문화와 이슬람을 연관시키어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종교와 문화적으로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종교, 정치, 문화 등을 포함하는 문화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제화 시대에 사우디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편견과 오해의 시각을 가진 사우디의 일반화된 모습이 아니라, 사우디 내 여성의 실제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각도와 안목을 갖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이슬람의 세 곳 성지;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2. 초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사회 지위

사우디 여성의 생활은 사우디에서 태동 된 이슬람 발생 이전과 발생 초기와 그 이후가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거의 모든 생활에서 꾸란의 가르침과 샤리아(Sharia)[4] 규칙을 적용하여 취급한다.

2.1. 이슬람 이전(자힐리야 Jahiliya)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이전 시대를 자힐리야 시대라고 부른다. 그 당시 아라비아반도의 사회는 다양한 부족이 많은 관습과 종교를 가졌으며 여성의 지위는 다양했다. 당시 여성들은 노예와 살림 도구가 아닌 대등한 관계의 반려자로 인정되었다. 이슬람 이전에 여성은 여성 성직자, 전사, 지도자, 전쟁터에서 간호사를 포함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었다.[5] 또 여성의 지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슬람 하에서 여성의 지위보다 높았고 영향력이 매우 컸다.

---

4) 샤리아는 꾸란(Quran)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이며 신적인 뜻을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

5) Nikki R. Keddie & Beth Baron, ed., Women in Middle Eastern Hist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1), 46.

또한, 당시 유행했던 여아 매장하는 풍습은 꾸란(17:31)[6]에서도 지적하듯이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해 여아는 식량만 먹어 없애는 것으로 여기어 생매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며, 이슬람 이후는 금지되었다.[7]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이전에 여성의 지위가 이슬람 이후보다 낮았다고 한다. 이것은 이슬람 측의 과장된 표현이다.

2.2. 와하비즘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지위에 끼친 영향

(1) 초기 이슬람 여성

사우디는 이슬람의 역사적 발생지이다. 610년 무함마드가 최초의 계시를 받은 이후 창설된 이슬람은 이슬람의 깃발 아래 630년 아라비아반도 대부분을 통일한다. 이슬람 초기에는 이슬람 이전의 전통과 관행이 얼마간 계속 영향을 주었다. 초기 이슬람의 결혼을 연구하는 게르트루드 스턴(Gertrude Sterm)은 메카나 메디나 어느 쪽도 이슬람 이전 시대에 일부다처를 실행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8] 이븐 사아드(Ibn Saad)의 전기 자료에 따르면, 일부다처제는 메카나 무함마드가 이주한 농업공동체인 메디나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9] 오히려 이슬

6) 최영길, 『성 꾸란 의미와 한국어 번역』 제17장 31절 31-1) 각주 내용: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자-힐리야)에서는 사내아이는 힘의 상징으로써 보호를 받았으나 궁핍과 가난의 두려움으로 여자아이가 생매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7) 이정순, 『이슬람 문화와 여성』, (서울: CLC, 2009년 2쇄), 17.

8) Mai Yamani, ed., Feminism and Islam. (London: Ithaca Press, reprinted 1997), 78.

람 이전의 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직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일처다부제의 형태가 있었다. 그러다가 일처다부제가 이슬람의 영향으로 폐지되고, 그 뒤 여성들은 한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10] 단지 소수의 부자만이 일부다처를 유지했는데, 이는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인 힘의 표시이며,[11] 부와 권력을 가진 특정 계층자 이외에는 거의 드문 일이었다.[12]

이슬람 초기 대표적인 여성의 모습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부인들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메카는 상업 도시였으며, 무함마드의 첫째 부인, 카디자는 과부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무함마드는 카디자의 재정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었다. 그녀가 죽자, 무함마드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으며 대부분 젊고 아름다웠다. 특히, 무함마드가 가장 총애한 셋째 부인 아이샤는 낙타를 타고 그와 함께 수많은 전투에 동행했다. 무함마드의 부인들에 대한 숫자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2명 이상부터 22명까지의 부인들과 결혼하였다고 전한다.[13] 이처럼 무함마드의 많은 여성과 결혼은 무슬림 남성들에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부사처제와 어린 소녀와의 결혼할 수 있

9) Fatima Mernissi, Beyond The Veil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68.

10) 하르트무트보브친, 『이슬람교의 역사와 신화』, 염정용 옮김(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5), 117.

11) Andre Chourqui, Les hommes de la Bible, 박종구 옮김 『성서 시대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부키, 1999), 159.

12) Bernard Lewis, The Middle East, 이희수 옮김 『중동의 역사』, (서울 까치글방 2000), 223.

13) 이정순, 『이슬람 문화와 여성』, 21.

다는 세계관을 갖게 하였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과 와하비즘이 여성에게 끼친 영향

사우디는 이슬람 발상지이며, 와하비즘(Wahhabism)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18세기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Muhammad ibn Abdul Wahab 이하 와하브, 1703~1792)는 이슬람 사회가 타락하고 있으니 무함마드 시대로 되돌아가자며, 1745년 이슬람 근본주의 사회·정치 운동을 창설하고 정교일치를 주장하였다. 무함마드 빈 알 사우드(1726~1765, 이하 알 사우드)는 부족장 중 하나였지만, 와하브와 제휴함으로써 1745년 제1 사우디왕국을 선언하였다. 그 후 사우디 왕가는 와하비즘의 이념에 의지하여 국가를 300년간 유지했다.[14] 와하비즘은 석유로 인한 부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때까지 아랍 반도에서 확장되지 않았다.[15]

오늘날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의 약 80%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1901년 2월, 압둘 아지즈 빈 알 사우드(1875~1953 이하, 압둘 아지즈, 서양에서 이븐사우드)는 그의 나이 25세에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건국 초기 국정 안정을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 아라비아반도 부족장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왕권을 확보하였는데, 52세까지 총 199번 결혼했다.[16] 그는 정치적 목적의 짧은 결혼까지 추산하면 300명 이상

14) Sami Zubaida, Beyond Islam, (London & New York: I.B.Tauris, 2011), 65.

15) Anne Sofie Roald, Women in Islam the Western experi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151.

16) Saïd k. Aburish, The House of Saud,(London; Bloombuty, 2005), 40.

여성들과 결혼하였다.[17] 사우디 건국 이전에는 부족 국가들이 난립하였는데 당시 이 지역은 오토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다. 압둘 아지즈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연합하여 오토만 터키군을 쫓아냈고, 1927년 5월 20일 영국과 제다조약을 맺어 독립을 인정받으면서, 1932년 9월 23일 사우디왕국을 창립하였다. 사우디는 근대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꾸란을 기본법으로 해서,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행동을 관장하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가부장 제적 해석을 제도화했다.[18]

3.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사우디에서 여성에게 금지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고, 비 무슬림과 결혼은 불가능하다. 둘째, 여성은 가게 점원으로 일하거나, 여권과 신분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할 때도 남성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장소에서 여성은 검정 베일(아바야 abayas)을 착용해야 한다. 넷째, 가족이 아닌 남성과의 대화는 금지된다. 식당, 대학 등 공공장소는 가족과 남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되어있다. 다섯째, 응급 치료와 수술을 받기 전 남성 가족이나 친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여성의 법정 증언은 남성의 증언보다 약하게 취급된다. 부모의 재

17) 노석조, “사우디는 죽은 8번째 왕비의 나라”, 「조선일보」 2015년 5월 1일 자 A20.

18)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Family, Law and Polities. Volume 2. 2005ed., s.v. “Honor: Crimes of”.

산 상속은 남성 형제의 절반이다. 이러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정치. 경제 분야

1923년 사우디 왕국을 건립한 압둘 아지즈는 1953년 사망까지 17명 여인과 결혼하여 왕자 50~60명을 낳았다. 초대 국왕의 아들, 손자는 공식 왕자 칭호를 가진 사람만 7,000명 이상이며, 인구 1700만 명에 왕족만 3만 명에 이른[19] 왕족 천국이다.

무함마드 사망 이후, 아이샤는 656년 벌어진 '낙타 전투'[20]에 직접 참여하여 이슬람 최초의 정치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아이샤가 낙타를 타고 지휘한 부대가 전투에서 패한 후, 무슬림 여성의 정치, 사회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기 시작한 뒤, 21세기 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어떤 서구 세력도 사우디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거나 식민지화된 적이 없었지만,[21] 사우디는 석유 덕분에 경제적으로 근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가 가져다준 부는 베두인족과 시골 부락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우디 여성들을 일에서 해방시켰다. 그

---

19) 이기환, "사우디 왕자", 「경향신문」 2017년 6월 23일 자, 30면

20) 이슬람 4대 정통 칼리프인 알리와 그 반대 세력인 아이샤 간 전쟁

21) Nikki R. Keddie, Women in the Middle East: past & present, (Princeton & Oxford, Princetion University Press, 2007), 167.

러나 사우디는 현재 빈부의 차이가 매우 심한 편인데, 여성이 빈곤층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과부들이다.

제다에 남성으로만 구성된 상공회의소 산하에는,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으로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카디자의 이름을 딴 '카디자 빈트 쿠와일리드 여성 사업가 센터'가 있다. 루브나 올라얀은 사우디 3대 재벌 중 한 명이다. 그는 올라얀 그룹 창업자인 술라이만 올리야의 막내딸로 '올리안 파이낸싱' 여성 CEO이다. 그는 영국 부동산 개발회사 '필 홀딩스'지분 70% 소유자로 사우디에서 중동 최고의 여성 CEO이자 가장 돈 많은 여성이며 사우디에서 최초 기업의 이사가 되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4년 제다 경제회의 국제회의에서 연설한 첫 번째 사우디 여성이며, 2005년 바도스 세계경제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았었다.[22] 또 나빌라 알 투니시(49)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사우디의 세계 최고 석유회사인 국영기업 아람코(Aramco)의 중역이다. 알 투니시는 다우 케미컬 부팀장과 함께 300여 명의 엔지니어를 지휘하고 있다. 사우디 장군의 딸인 알 투니시는 17세 때 사우디 리야드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 왔다.[23] 아람코 구내에서는 여성의 운전과 극장 출입이 허용된다.

1990년대에 이슬람 페미니즘의 용어 자체가 중동지역에서 부상해 왔다.[24] 사우디는 1979년 2월 이란 혁명 이후 여성에 관해 매우 제한

22) 서정민, '떠오르는 중동의 민간 부호',「이코노미스트」, 2008년 2월 2일과 19일 924호 합본호. 39.

23) 김민경, "여성은 운전, 투표도 못 하는 사우디 그러나 49세 철녀는 거칠 것 없다", 「중앙일보」 2008년 8월 16일 자. 16면.

24) Margot Badran, Feminism in Islam (oxford: Oneworld, 2009), 221.

적이다. 그러나 2003년 5월 사우디 왕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고, 6월에 공식회의는 이를 승인하고 관례적인 제한을 재검토했다. 이 회의에 12명의 여성이 처음 참여했다.[25]

3.2. 종교, 문화, 사회 분야

사우디는 전통주의의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26]) 사우디 여성의 정치·사회 진출을 제한하려는 성차별적 이슬람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슬림 여성들의 세계관은 종교와 문화가 구별되지 않고 현세 중심적이고 세속화된 세계관이다. 사우디는 철두철미한 부족사회이며, 남성 중심 사회이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신앙 공동체 곧, "움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사우디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와 유목 베두인 부족이 거주하며 이동하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 여성과 어린아이는 집안 혹은 부족의 한 재산으로 이해를 하는 곳이 사우디인들의 대다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27]

사우디에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은 결혼 지참금(마흐르) 제도이다. 결혼할 남성이 여성에게 지참금을 주는 이슬람법은 남성이

---

25) Nikki R. Keddie, Women in the Middle East. 151.

26) Suha Taki-Farouki and Basheer M. Nafi, Islamic Though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I. B. Tauris 7 Co Ltd, 2004), 82.

27)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는 기드온과의 전자메일(e-mail)로 2018년 1월 23일 인터뷰 내용.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여성에게 보증하는 의미이다, 지참금은 평생 신부의 소유 및 재산이 된다. 이외의 대부분 관습은 여성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전통적으로 아랍 사회는 사촌 간의 결혼을 권장하여 결혼하는 것이 관례이다. 일부 특권층에서 친인척과 결혼을 했던 이유는 재산권 보호, 통치 권력, 순수혈통 보존, 친족 간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전통이 7세기 이슬람의 출현과 함께 평민계층 사이에도 답습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28)]

사우디 여성들은 엄격한 가부장제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사우디 여성의 역할은 상류층이든 중산층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가부장적 단체와 국가 목표의 맥락에서만 볼 수 있으며,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갈등의 한 단면으로만 볼 수 없다.[29)] 이슬람 사회에 성차별적 관습이 뿌리내리게 된 배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부장적 문화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에서 여성과 남성의 장소가 뚜렷하게 구별돼 있다. 여자아이가 12살이 넘으면 남성이 모인 곳은 출입금지다. 공공장소는 가족 공간과 남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나뉜다.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나란히 있지만, 부부가 아닌 것 같으면 종교경찰(Mytawa 무타와)이 나타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모스크에서도 남녀가 들어가는 출입구와 기도처가 다르다. 메카 순례 중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구별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 남녀가 함께 어울려 카바 순례에 참여한다.

---

28) 이정순, 『이슬람 문화와 여성』, 202

29) Mai Yamani, ed., Feminism and Islam. 265.

식당에서도 남녀의 출입구가 다르며, 공간도 분리돼 있다. 모르는 남녀 간의 접촉은 불법이며 이 규칙을 위반하면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화 섹스가 만연하다.[30]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은 '여성 전용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여성 간호사가 남성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비 무슬림 외국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1980년대에 대학교들의 여성 구역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현상이며, 가장 최근의 걸프(Gulf War) 사건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31] 2018년 1월 12일 처음으로 약 300여 명의 사우디 여성들이 사우디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제다의 펄 경기장에서 군중들과 합류했다. 여성은 혼자 왔거나 남성 친척이었던 여성을 위해 마련된 "가족"구역에 앉아있었다.

청혼 문화는 기혼남성이 아직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여성에게 청혼할 수 있다. 사우디 일간지 <알-와탄>이 2005년 6월 설문조사 결과, 18~24세 미혼 여성 100명 중 70%가 나이가 많아도 돈 많은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50%는 아버지 정도 나이라 할지라도 재력 있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32]

여성의 지위가 매우 제약당하는 사우디에서 첫 여성 록그룹 '애컬레이드'(Accola de)는 4명의 여대생으로 구성되어 탄생해 젊은 층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33] 첫 싱글 곡 '피노키오'는 사우디의 젊은이

30) Saïd k. Aburish, The House of Saud, 101.

31) Mai Yamani, ed., Feminism and Islam, 279.

32) 서정민, 『인간의 땅, 중동』 (서울: 중앙books㈜, 2009), 302.

들과 언더그라운드에서 히트곡이 됐다. 이들은 아직도 대중 공연을 하거나 앨범 사진도 찍을 수 없는 것은 사우디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여성 록그룹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2008년 3월 19일 리야드에 중동에서는 최초로 여성 전용 호텔인 '루탄 호텔 앤드 스파(Luthan Hotel & Spa)'가 개장되어 사우디 비즈니스 여성의 업무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손님은 모두 여성이다. 최근 여성의 물담배 피우는 것이 유행으로 중동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우디 홍해의 도시 지다에서는 여성의 흡연 행태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사우디에서 여성의 거리 흡연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정부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킹 압둘 아지즈' 왕립기술원(KACST)의 건의로 당국은 '사우디 이브'라는 블로그를 2006년 6월 폐쇄했다. 그러나 오늘날 블로그 인기는 대단하다. 사우디는 중동지역 페이스북 사용자 수에서 이집트(1천만)에 이어 2위이다.

사우디의 여성들은 거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만약 여성이 소송을 선택하면 남자 친척, 아버지, 삼촌 또는 형제 중 한 사람이 대표가 된다. 부인이 법정의 동의를 얻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정 출두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이혼을 제기한 여성은 남성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여기어 공동체에서 사실상 축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에서 태어난 일부 여성들 외에는 공식적 출생기록이나 사망기

33) 연합뉴스, "히잡 벗어 던진 사우디 여성 록그룹", 「조선일보」 2008년 11월 26일 자 A2면.

록이 없다. 남자아이 출생은 가문에 오르며 서류화된다. 여성의 구두 발걸음 소리도 듣기가 쉽지 않다. 여성이 유혹하는 발걸음 소리도 내지 말라는 꾸란(24장 31절)의 가르침 때문이다.[34]

한때, 사우디에서 여성 속옷가게 판매원은 거의 남성이었다. 2009년 여성들이 속옷가게들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할 때까지 '속옷 불매운동'을 하였고, 법 개정을 투쟁 온라인 서명에는 약 1700여 명이 참여했다.[35] 압둘라 국왕이 2011년 6월 7일 여성 속옷가게에서 남성 점원을 퇴출시키고 여성들만 일하도록 법안에 서명하였다.[36] 2012년 1월 이후 속옷가게의 남성 직원 근무를 금지하였다. 게다가, 지금 대형 슈퍼의 계산대 직원도 여성으로 늘어간다.

이제는,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인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시와 나라 밖의 소식을 손안에서 접하는 시대이다. 비록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와 시골 여성들의 변화는 거의 비슷하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국왕이 다시 한번 여성 뉴스 진행자에게 TV 방송에서 베일 없이 스카프만 머리에 두를 수 있도록 허용

34) 최영길, 『나의 이슬람 문화 체험기』(파주: 한길사, 2012), 63.; 꾸란 24장 31절 믿은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릿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의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35) 김시현, "사우디 여성들 여성속옥 왜 남자가 파나 불매운동", 「조선일보」 2009년 3월 27일 자, A16.

36) 정시행, "사우디 국왕 여성 속옷가게, 남성 점원 퇴출", 「조선일보」 2011년 6월 10일 자. A 18면.

했다. 또, 인터넷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선 먼저 사우디 정부의 정보통신부 격인 왕립기술원(KACST)을 거쳐야 하는 등 '장애물'이 많았지만,[37] 현재 사우디에서 인터넷이 해금됐다. 사우디에서 2013년 4월, 사우디 여성 2명이 수습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 최초 여성 변호사가 탄생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 사우디에서의 여성들의 변화는 끝없이 진행되어 나간다. 2012년 사우디 왕가는 동부 후푸프(Hofuf)지역에 여성 5000명을 고용할 여성 전용 직물, 제약, 음식, 가공 산업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동력의 자 국민화 정책의 하나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사우디에서 레바논 출신 소프라노 히바 타와지가 첫 번째 여성 전용 콘서트를 열었다. 2018년 1월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을 허용했고, 6월엔 여성에게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25일 사우디가 역사상 처음 여성이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여군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금녀의 영역'이었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자리에 여성을 임명하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광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이다. 사우디는 2017년 12월 19일 외국인에게 관광 비자를 2018년 6월 안에 발급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홍해 연안에 관광특구를 설치해 해변에 여성의 비키니 복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

37) 김현지, "사우디도 인터넷 해금", 「중앙일보」, 1999년 2월 22일 자, 10면

2018년 1월부터 여성 전용 자동차 딜러가 생기었다. 사우디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시기는 6월부터이지만 먼저 여성 전용 자동차 딜러가 생기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 운전은 남녀가 섞이는 상황을 조장하여 사회 부패를 발생케 하며, 간통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여겨왔다. 1990년 여성 47명이 운전을 허용해달라며 항의하였다. 2013년 10월 여성 시민 운동가 60여 명이 운전했고, 이 중 20여 명이 구속됐다. 2014년 3월 리야드의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여성 운전금지에 반발 캠페인 운전을 하였다. 2017년 9월 26일 살만 국왕은 여성의 운전 허용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혁신적이라고 여긴 미디어가 이제 당연시되고 있다. 오늘날 사우디에는 수백 가지 위성 TV 채널과 인터넷, 현대식 쇼핑몰을 접하며, 휴대전화를 가지지 않은 여성을 찾기 어렵고, 심지어 불법 약물이나 술 매매도 가능하다. 사우디의 엄격한 이슬람 사회에서 인터넷은 여성들에게 바깥세상으로 통하는 창문 역할을 한다.

사우디는 조혼을 금지한 1988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다. 사우디에서 아버지와 같은 남자들은 딸의 결혼을 사적 친분 관계나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킨다.[38] 일부사처제가 허용되므로 늙은 남성이 가난한 집 소녀를 3, 4번째 신부로 맞기도 한다. 사우디에서 8세 소녀가 2008년 친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아버지의 친구인 47세 남성과 억지로 결혼했다. 소녀의 아버지와 별거 중인 소녀의 어머니가 늦게 딸의 강제 결혼을 알고 2008년 12월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39] 사우디 국왕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는 2017년 7월 24일 15

38) Jean P. Sasson, Princess (West Yorkshire: Bantan Books edition published, 1993), 67.

세 미만 여성의 조혼을 금지 규정을 만들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우디 여성은 일반 매장에 여성 탈의실이 없어 옷을 사서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나 교환하러 다시 와야 한다. 사우디의 리야드에 여성들이 온몸을 가리는 베일을 벗어 던지고 활개 칠 수 있는 「여성 해방구」로 1998년 7월 리야드에 문을 연 '알 물타카' 백화점이 있으며,[40] 2002년 완공된 리야드의 랜드마크인 99층의 킹덤타워에는 여성 전용 고급 쇼핑몰이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 전용 쇼핑몰이 사우디 전역에 없다.

2018년 1월 14일 사우디 제다에서 35년 만에 영화 첫 작품으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두 편을 상영하므로 '상업영화 상영금지' 정책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18년 4월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AMC 체인 영화관에서 사우디에서 35년 만에 첫 상업영화 '블랙팬서'가 상영됐다. 이날 역사적인 첫 상영 행사에는 리마 빈트반다르 공주, 아와드 알아와드 사우디 문화공보부 장관, 외교단 등 사우디의 각계 유력인사가 초대됐다. 이 영화 상영을 계기로 최근 사우디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전국에 영화관 350곳(스크린 기준 2500개)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41]

---

39) 황수정, "47살 남자-8살 소녀 결혼 사우디 혼인 무효 소송기각 논란", 「서울신문」 2009년 4월 14일 자. 18면.

40) 김수혜, "사우디에 '여성 해방구' 차도르 벗는 백화점 열어", 「조선일보」 1998 년7 월 14일 자. 9면.

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 201804190512 51009.HTML <연합뉴스> (2018년 4 월 19 일 접속), 강훈상

남성보호자 제도(마흐람)는 사우디의 대표적인 종교·사회적 관습이다. 여성이 창업할 때, 결혼, 이혼, 여행, 교육, 취업, 신분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수술, 사회활동, 가게 점원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남성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압둘라 국왕은 2005년 즉위 이래, 여성은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여성 신분증은 여성 개인의 신분증이라기보다는 '비타까트 알－우스라(bitaqat al-usra)'라는 가족 카드로 여성이 속해있는 가족 증명서이다. 이 신분증을 소유한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도 사업체 운영이나 국가장학금으로 유학을 갈 수 있으며, 집을 빌릴 수도 있다. 사우디 상무·투자부는 2018년 2월 18일 여성이 창업 때에는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우디 여성들은 연애하거나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슬림 남자는 다른 종교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주말에 사우디 남성들은 수백만이 자동차로 사우디와 바레인을 잇는 킹 파흐드 코즈웨이(King Fahd Cause way)를 건넌다. 그들은 주변국 도시에서 극장과 술, 매춘과 유흥등을 즐긴다. 바레인은 이슬람국가이면서도 서구문화에 관대하여 술과 섹스가 개방되어 사우디 남성들에게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출 시에 엄격히 베일(아바야)을 착용해야 한다. 베일을 착용하는 것은 이슬람이 발흥하기 전부터 중동 지역의 가부장적 전통, 강렬한 태양과 모래 먼지 등의 기후의 영향이 크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베일 착용은 정복으로 접촉하

"사우디 35년 만에 영화관 재개관‥"활기찬 경제 사회로 전환.

게 된 비잔틴(동로마제국)과 페르시아 관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의 부인들에게 베일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무슬림 여성들에게 베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베일은 이슬람의 상징이 되었다.[42]

2002년 3월 메카의 여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로 인해 15명의 소녀가 사망하였다. 소방관과 종교경찰들이 그들을 구해 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소녀들이 베일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였고, 이슬람 광신도들도 학교의 비상 요원들이 소녀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43] 그러나 사우디 젊은 여성들은 해외여행 시에 비행기 안에서 스키니 청바지와 풀오버(Pullover)로 입기 위해 전통 의상을 갈아입을 것이다.[44] 2017년 7월 19일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사우디의 유명한 유적지 나즈드주의 마을을 걸어 다니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특별히, 사우디 사회의 어두운 면 중 하나가 집안에서 발생하는 명예 살인이다. 현대 사우디는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이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례에 따라 가족을 수치스럽게 하는 여성의 살인, 즉 명예 살인을 허용한다. 이는 우르프('Urf 관습법)를 샤리아(Sharia)의 법에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5] 사우디는 종교적인 이유로 여아

---

42) 이정순, 『무슬림 여성과 베일』, (서울: CLC, 2004년 2쇄), 48.

43) David Commins, The Wahhabi Mission and Saudi Arabia, (London. NewYork; I.B.Tauris & Co. Ltd, 2009), 104.

44) Wiebke Walter, Women in Islam,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Third Printing, 1999), 208.

45)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Family, Law and Polities. Volume 2. 2005

살해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 살인이 합법화된 나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족의 명예와 또 다른 차원에서 사우디 국가의 명예가 여성의 어깨에 달려있다고[46] 여긴다.

여성 할례는 원래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의 전통이었으며, 이슬람이 발흥하기 오래전에 시작된 종교적 관습이 아닌 가부장적 부족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디 왕족 술타나는 친언니가 12살 때 할례를 받았으며, 그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여성이 할례의식을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47] 특히, 이러한 여성 할례 의식은 사우디 대도시보다는 아직 전통이 강한 시골 지역에서 은밀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12일, 사우디 문화정보부가 이혼 여성과 관련해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도 사우디 내 커다란 여성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이혼한 여성이 별다른 소송 없이 남편과의 합의만으로도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은 남편과 양육권 때문에 별도의 분쟁이 없다는 전제하에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로 사우디라는 나라를 보아왔던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스포츠 분야에서는 그 변화가 매우 느리다. 제15회 아시안 게임(2006년 12월 1~15일)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는데, 45개국에서 총 12000여 명의 참가 선수 중 여성 선수가 쿠웨이트가

---

ed., s.v. “Honor: Crimes of”.

46) Mai Yamani, ed., Feminism and Islam. 14.

47) Jean P. Sasson. Princess, 159~160.

238명 중 49명, 레바논이 143명 중 37명인데 반해, 사우디는 154명의 선수단 중에 여성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48]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 사우디 여성 선수로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여성 유도의 워잔 사흐르카니(16)가 고국에서 냉대를 받았다. 그는 수영모처럼 머리에 딱 달라붙는 '변형 베일'을 쓰고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나 사우디의 강경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변형 베일 착용을 비난하였다. 그의 경기는 사우디 국영 TV에서 생중계되지도 않았다.[49]

3.3. 교육 및 기타 분야

사우디에서 남자들을 위한 교육은 전통적으로 '울라마(Ulama 이슬람 법학자)'들이 메카의 대형 모스크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03년에 제다(Jiddah)에 세속적 성격의 첫 번째 학교, '팔라(Falah, 성공이라는 뜻)'가 세워졌으며, 2년 후에는 메카에 같은 이름으로 두 번째 학교가 세워졌다.[50] 여성들은 꾸란을 암송하기 위해 집이나 쿠탑 학교(Kuttab school 종교학교)에서 다른 여성들이 가르쳤다. 여성을 위한 세속적 성격을 가진 첫 학교는 1960년대 초 제다에서 개교했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부유한 가정들의 추세는 아들과 딸들을 학업을 위하여 주로 다른 아랍국가들과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

48) 장민석, "사우디 154명 선수 중 여성은 0", 「조선일보」 2006년 11월 27일 자, E6면.

49) 유지혜, "히잡 쓰고 올림픽 출전 사우디 첫 여성 선수 고국서 여론 몰매, 왜", 「조선일보」 2012년 8월 8일 자, 12면.

50) Mai Yamani, ed., Feminism and Islam. 269.

보냈다.[51]

제3대 파이살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Faisal bin Abdulaziz Al Saud, 재위: 1964~1975, 이하 파이살)국왕은 1960년대에 여성 교육을 도입하여 국가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2009년 9월 압둘라 국왕은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KAUST)을 개교한 뒤로, 이 학교는 사우디 개혁의 상징이며, 사우디 최초의 남녀공학 대학이 되었다.

여성 교육은 1960년에 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이래, 급속히 증가했다. 1970년대 사우디에서 눈에 띄는 여성은 극소수였지만 현재 사우디 내 여학생의 수는 전체 대학생의 58%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공학, 저널리즘 및 건축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여학생을 제외했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전체 졸업생 중 여학생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졸업하는 여학생 중 단지 13% 정도만 직업을 가지고 있다. 1999년 사우디 여성의 취업 비율은 5.5%이었으며, 취업 여성의 82% 이상이 교사, 간호사 등 의료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대학에서 공학, 저널리즘, 법학 등의 전공이 허락되지 않았지만,[52] 최근 사우디 여성들이 해외로 기술 유학을 떠나 학위를 취득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화 제작자, 예술가. 사우디 아람코 엔지니어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53] 또한, 축구, 농구, 배구, 크리켓팀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51) Ibid.

52) 윤재석, "사우디 왕세자 여권신장 발언 화제", 「국민일보」 1999년 5월19일 자 34면

53) Karen Elliott House, On Saudi Arabia. 방진영 옮김, 『사우디아라비아』(서울 ㈜메디치미디어, 2016), 158.

보인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국립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여자 대학은 절대 남성 출입금지이다. 사우디에서는 집안과 대학에서 남녀 학생이 분리되어 교육을 받는다. 교사가 남성이면 교내 TV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받고, 질문은 전화로 한다. 이제는 종교경찰들의 비난 없이 여학교가 세워 지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여성들은 아직 남녀 공영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여성 전용의 수영장이나 전용 체육관 및 전용 스파에서만 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우디는 이미 변화의 발걸음을 옮겼다. 2016년 4월 25일, 사우디 왕가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 의료, 주택, 금융 신재생에너지 등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를 육성하는 '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새로운 국가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이것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2018년 3월 3일에는, 사우디에서 첫 여성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사우디 동부 알 아사 지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는 이슬람전통 복장을 한 참가자 등 사우디 여성 수백 명이 달렸다.[54] 이 외에도, 사우디 체육 당국은 4월 6일 메카에서도 다시 여성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다.

54) SBS 뉴스, '[오! 클릭] 온건화 바람 부는 사우디, '첫 여성 마라톤 개최', 2018년3 월 5일 방송.

4.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지위 변모 양상 분석

사우디는 그동안 여성 인권 분야에서 최악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성차별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국가별 순위에서 일본은 114위, 한국은 118위, 사우디는 138위를 차지하였는데, 사우디의 이 순위는 2106년의 141위보다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 사우디 여성의 변모 양상은,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간접적인 면으로부터 여성 자신의 힘으로 변화를 이룬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면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4.1. 변모 양상과 그 요인 분석

현재 사우디의 개혁에 따른 변모 양상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몇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왕과 왕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1999년 4월, 압델 아지즈 왕세자는 “여성을 멸시하거나 종교 및 국가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효율적 역할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55] 제6대 압둘라 국왕(1924~ 2015)은 2009년 2월, 누리 알 파예즈(Fayez)라는 여성을 사상 첫 여성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으며, 2010년에는, 킹 압둘 아지즈 메달의 첫 번째 수상 여성으

55) 윤재석, “사우디 왕세자 여권신장 발언 화제”, 「국민일보」 1999년 5월 19일 자, 34면

로 사우디 여성 과학자이자 킹 파드 국립 소아암센터 연구소장인 '하왈라 알 쿠라야' 박사를 지명했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국가 최고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의 위원 150명 중 30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또한, 2015년 12월 12일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락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무역, 산업부장관, 엔지니어, 교육부 차관, 사우디 여성대학의 이사 및 국가의 중요 요직에 여성들을 임명했으며, 사우디 건국 83년 만의 첫 선거를 통해 국가 공직에 여성 20명을 진출시켰다. 알-왈리드 빈탈라(이하 알-왈리드)왕자는 사우디 현 국왕의 사촌으로 187억 달러(약 30조)의 중동 최대 부자이며 매우 개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성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사우디에서 2007년 여성 항공기 조종사가 탄생했는데, 알-알리드는 그 여성 조종사의 요르단 유학을 지원했으며, 조종사 면허를 따자 신문에 축하 광고를 내고 자신의 항공사에 채용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 인권 등의 개혁 필요를 주장한다. 2017년 6월 21일, 사우디 살만 국왕(81)은 친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32)을 차기 왕세자로 임명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반부패척결, 이슬람의 온건화 작업과 현대화, 사우디 여성의 운전 허가 등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둘째, 사우디 내의 급격한 도시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사우디의 급격한 도시화는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사우디의 도시화는 거대한 인구 이동을 유발하고 대도시에 새로운 유형의 핵가족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가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1992년경만 해도 약 2백만 명이던 수도 리야드의 인구가 2018년도에

는, 약 6~7백만 명의 대도시로 변하였다. 또한, 지난 40년간 사우디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국민의 80%가 사우디 내 3대 도시인 리야드, 제다, 담만으로 이주해갔다.[56],

셋째, 사우디 여성 자신들의 용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수년간 로비 활동, 여성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외의 여성 인권운동자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다. 루브나 올라얀, 나빌라 알 투니시와 같이 사우디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의 남성 보호자제도 폐지 활동가인 마리암 오타이비는 구금 104일 만에 2017년 7월 30일 석방됐다. 오타이비는 소셜미디어에 남성 보호자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해시태그를 다는 '#내가 나의 보호자이다'(#IAmMyOwn Guardian)캠페인에 깊숙이 관여해왔다.[57] 세계최대의 인권운동 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00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이에 동조하여 2000년 10월 1일 서울, 대구, 수원에서 동시에 거리 캠페인을 가졌었다.

넷째, 교육과 해외유학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사우디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마친 여성들이 귀국하고 있는 것도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사우디 통치자들은 국내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의 혜택과 해외에서의 취업 기회 확대,

---

56) Karen Elliott House, On Saudi Arabia. 방진영 옮김, 『사우디아라비아』 124.

57) 전정윤, "사우디선 큰 일... 여 운동가 '남성 후견인 없이' 출소", 「한겨레신문」 2017 년 8월 1일 자, 14면.

이전보다 많은 구직을 포함하였고, 수많은 제약의 완화 등을 시도했다.[58] 사우디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이 딸들을 대학이나 해외에 보내려는 이유는 교육을 더 받게 하여 자기 직업을 갖고 당당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9] 텔레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사우디 정부는 75만 명을 해외로 유학 보냈고 이중 다수는 여성”이라고 지적했다.[60] 현재 사우디는 많은 왕족이 자신들의 딸들을 국외에서 교육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비판이다. 사우디에서 정당방위위원회(CDLD)는 1990년대 정권의 권위에 도전했다.[61] 1966년 런던에 설립된 아라비아의 ‘이슬람 개혁 운동’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우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비판 및 데이터에 대한 링크 등이 포함하였고, 아랍어와 영어로 되어있다.[62]

여섯째, 석유매장량의 감소이다. 석유 수입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상승은 해외 유학에 대한 추세와 전체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만들어냈다.[63] 그러나 사우디 왕실은 석유매장량도

58) Nikki R. Keddie, Women in the Middle East, 150.

59)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Family, Law and Polities. Volume 2. 2005 ed., s.v. “Political Parties and Participation.”.

6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108297.(2018 년 1 월 10 일 접속). 정원엽, “투표 따로, 연설 안 돼.. 사우디 여성 얼굴 없는 함정’, 「중앙일보」 인터넷판.

61) Dale F. Elckeman and Joh W, Anderson, ed., New Media in the Muslim (Bloom 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21.

62) Dale F. Elckeman and Joh W, Anderson, ed., New Media in the Muslim, 51.

63) Mai Yamani.ed., Feminism and Islam. 268.

점점 줄어가고 더는 와하비즘에 기대어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 여성의 노동력 필요이다. 사우디 여성 중에 높은 교육을 받은 다재다능한 여성들이 그들의 재능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 왕가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여덟 번째, 경제위기이다. 사우디의 경제는 전적으로 전체 국가 수입의 90%를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에서 사우디는 석유 경제 국가로서 더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1982년의 일자리가 14,6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은 2002년에 6,000달러로 급감했다. 젊은이들 간에 마약 문제의 발생은 정부의 담당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대학 졸업생 중 실업률이 30%를 넘으면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 증가는 인구 증가의 3배가 된다.[64] 사우디인들은 공무원이 되어 짧은 노동시간과 고용 보장을 원하므로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여행, 미디어, 인터넷, 휴대폰, SNS 등의 통신 발달을 꼽을 수 있다.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을 통한 외부적 영향이 불러온 결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의 지위 변화는 국내외 여행으로 인한 대단위 인구 이동과 인터넷으로 인한 세계 정보 통신의

64) Saïd K. Aburish, The House of Saud, 101.

발전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 여성의 해외여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폐쇄된 국가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서방국가의 자유로운 삶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개혁에 따른 과제

사우디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이에 대한 상반된 해석 때문에, 사우디의 내국인들에게조차도, '여성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억압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성 운전이 허용되면 그들을 운전하여 주었던 운전기사가 직업을 잃게 된다. 수십만 명의 외국인 출신 가정집 운전사들이 직업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65] 여성 교통경찰을 양성하는 것과 여성 운전학원을 세우는 것도 향후 사회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사우디 사회구조로서는 사우디 여성 대부분은 일할 수 없다. 그러나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도 있다. 2005년 9월 사우디 여성들은 캐런 휴스 미국 국무부 홍보차관의 사우디 방문에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식 논리에는 반감을 보인 바 있다. 휴스 차관은, “사우디 여성도 운전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일하는 여성으로서 운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토

65)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는 기드온과의 전자메일(e-mail)로 2018년 1월 23일 인터뷰 내용.

론 참석자 사우디 여성 500명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했다;

> '미국 언론은 사우디를 여성의 삶이 제한되는 곳으로 묘사한다. 모든 걸 미국식으로 바꾸려 하지 말라. 선거 때 투표 못 하고, 운전 못 한다고 우리가 딱히 불행할 게 없다. 사우디 남성은 여성에게 많은 것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여성은 이 의무가 안 지켜지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이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다.'[66]

압둘라 국왕이 여성의 사회발전 참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는 견해에 대하여 현대 사우디 여성 대다수와는 달리 사우디의 보수층은 배교자라고 비난했다. 제다의 활동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나스와 타헤르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것을 반영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바라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죠. 각자 원하는 대로 살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 선택할 권리가 동등하기를 원합니다."[67]

5. 나가는 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미래 전망 및 제언

사우디가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 300년간 이슬람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옷차림까지 엄격히 규제

---

66) 김승련, "미국식 삶의 방식이 옳다는 착각 버려라", 「동아일보」 2005년 9월 30일 자 A19.

67) Karen Elliott House. On Saudi Arabia. 방진영 옮김 『사우디 아라비아』 132.

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와하비즘 때문이다. 사우디 왕가가 사우디 여성의 운전을 허락한다고 해서 여성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착오적 이슬람 전통주의 와하비즘과의 결별하는 첫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재 사우디의 개혁에 따른 변모 양상의 요인은 첫째,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왕과 왕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사우디 내의 급격한 도시화를 꼽을 수 있다. 셋째, 사우디 여성 자신들의 용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교육과 해외유학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비판이다. 여섯째, 석유매장량의 감소이다. 일곱 번째, 여성의 노동력 필요이다. 여덟 번째, 경제위기이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여행, 미디어, 인터넷, 휴대전화, SNS 등의 통신발달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사우디 변화는 수직적이고도 수평적인 면에서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 해외 유학과 고등 교육을 받은 사우디 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는 아직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정적이다. 사우디 여성에 대한 사회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성에 대한 종교적,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여성이 남성 의존적인 시스템을 변화되어야 한다. 사우디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여성을 제지하는 각종 법규를 없애고 여성 스스로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화와 언론, SNS를 통하여 종교와 정치세력의 구조적 문제가 변화되어야만 한다. 사우디 내, 교육받는 도시 여성들과 산골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의 간격과 진보적인 여성들과 보수적인 여성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더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우디에서 근본적으로 여성 취업을 저해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

야 하며 진출 분야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여성의 사회진출에 적합한 직업교육과 기술 등 실제적인 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 사우디에서 여성들이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 남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여도 되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에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대한 장애물인 '남성보호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보호자 없이 자기 의사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국내외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17년 5월, 사우디의 살만 왕은 여성 입사를 허용하고, 여성은 남성 보호자로부터 대학 입학, 취업 및 수술을 포함한 일부 활동에 대한 허가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활동에 대한 허가이지 전면적인 허가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보았던 과거 사우디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생각과 전통의 변화를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 왕가의 개혁 정책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실행할 수 있다면, 사우디의 인적 능력을 높이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우디 여성들이 복음에 더 쉽게 노출될 전망이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본산이며 종주국으로써 가장 큰 영향을 이슬람 세계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 여성의 지위 변화는 다른 이슬람 세계의 여성의 지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외 문헌

Aburish, Saïd k. *The House of Saud.* London; Bloombuty, 2005.

Badran, Margot. *Feminism in Islam.* Oxford: Oneworld, 2009.

Commins, David. The Wahhabi Mission and Saudi Arabia. London. NewYork; I.B.Tauris & Co. Ltd, 2009.

Elckeman, Dale F. and Anderson, Joh W., ed. *New Media in the Musli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Mernissi, Fatima. *Beyond The Veil.*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Keddie. Nikki R. *Women in the Middle East: past and present.* Princeton & Oxford, Princetion University Press, 2007.

Keddie, Nikki R. & Baron,Beth., ed. *Women in Middle Eastern Hist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1.

Roald, Anne Sofie. *Women in Islam the Western experi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1.

Sasson. Jean P. *Princess.* West Yorkshire: Bantan Books edition published, 1993.

Suha Taki-Farouki and Nafi, Basheer M. *Islamic Though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I. B. Tauris 7 Co Ltd, 2004.

Walter, Wiebke. *Women in Islam.*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Third Printing, 1999.

Yamani, Mai., ed. *Feminism and Islam.* London: Ithaca Press, reprinted 1997.

Zubaida, Sami. *Beyond Islam.* London & New York: I.B.Tauris, 2011.

2. 번역서

Chourqui, Andre. *Les hommes de la Bible.* 박종구 옮김.『성서 시대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부키, 1999.

House. Karen Elliott. *On Saudi Arabia.* 방진영 옮김.『사우디 아라비아』. 서울: ㈜ 메디치미디어, 2016.

Lewis, Bernard. *The Middle East.* 이희수 옮김.『중동의 역사』. 서울: 까치글방, 2000.

하르트무트보브친,『이슬람교의 역사와 신화』. 염정용 옮김.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5.

3. 국내 서적

서정민. 『인간의 땅, 중동』. 서울: 중앙 books ㈜, 2009.

이정순. 『무슬림 여성과 베일』. 서울: CLC, 2004년 2쇄.

_____ . 『이슬람 문화와 여성』. 서울: CLC, 2009년 2쇄.

최영길. 『나의 이슬람 문화 체험기』. 파주: 한길사, 2012.

4. 신문 및 인터넷

김민경. “여성은 운전, 투표도 못 하는 사우디 그러나 49세 철녀는 거칠 것 없다”. 「중앙일보」 2008년 8월 16일 자. 16면

김수혜. “사우디에 ‘여성 해방구’ 차도르 벗는 백화점 열어”.「조선일보」 1998년 7월 14일 자. 9면.

김승련. “미국식 삶의 방식이 옳다는 착각 버려라”.「동아일보」 2005년

9월 30일 자, A19.

김시현. “사우디 여성들 여성 속옷 왜 남자가 파나 불매운동”.「조선일보」 2009년 3월 27일 자, A16.

김현지. “사우디도 인터넷 해금”.「중앙일보」 1999년 2월 22일 자, 10면.

노석조. “사우디는 죽은 8번째 왕비의 나라”.「조선일보」 2015년 5월 1일 자, A20.

연합뉴스. “히잡 벗어 던진 사우디 여성 록그룹”.「조선일보」2008년 11월 26일 자, A2면.

유지혜. “히잡 쓰고 올림픽 출전 사우디 첫 여성 선수 고국서 여론 몰매, 왜”. 「조선일보」2012년 8월 8일 자. 12면.

윤재석. “사우디 왕세자 여권신장 발언 화제”.「국민일보」1999년 5월 19일 자, 34면.

이기환. “사우디왕자”.「경향신문」2017년 6월 23일 자, 30면.

장민석. “사우디 154명 선수 중 여성은 0”.「조선일보」2006년 11월 27일 자, E6 면.

전정윤. “사우디선 큰일...여 운동가 ‘남성 후견인 없이’ 출소”.「한겨레신문」2017년 8월 1일 자, 14면.

정시행. “사우디 국왕 여성 속옷가게, 남성 점원 퇴출”.「조선일보」2011년 6월 10일 자. A 18면.

황수정. “47살 남자-8살 소녀 결혼 사우디 혼인 무효 소송기각 논란”.「서울신문」, 2009년 4월 14일 자. 18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20180419051251009.HTML <연합뉴스> 2018년 4월 19일 접속, 강훈상. “사우디 35년 만에 영화관 재개관…"활기찬 경제·사회로 전환".

http://news.joins.com/article/19165962. 2018년 1월 10일 접속. 정원엽. “투표 따로, 연설 안 돼 ... 사우디 여성 얼굴 없는 함정”. 「중앙일보」 인터넷판.

5. 국외 사전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Family, Law and Polities. Volume 2, 2005 ed. S.v. “Honor: Crimes of”.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Family, Law and Polities. Volume 2, 2005 ed. S.v. “Political Parties and Participation.”

6. 기타 자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는 기드온과의 전자메일(e-mail)로 2018년 1월 23일 인터뷰 내용.

서정민, ‘떠오르는 중동의 민간 부호’. 「이코노미스트」 2008년 2월 2일과 19일. 924호 합본호. 39.

최영길, 『성 꾸란 의미와 한국어 번역』,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파하드 국왕 성꾸란 출판청, 1999.

SBS 뉴스 ‘[오! 클릭] 온건화 바람 부는 사우디, '첫 여성 마라톤' 개최’. 2018년 3월 5일 방송.

사우디의 변화와 아랍의 기독교[1)]

The Change of Saudi Arabia and the Christianity of Arab

정 형 남[2)]

Chung, HyungNam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사우디의 역사와 MbS
III. MbS와 이란
IV. MbS와 타종교들
V. 아랍의 기독교
VI. 나가는 말

---

1) 이 논문은 『전방개척선교』, Vol. 76, 2018. 5~6호에 칼럼 형식으로 실린 필자의 "사우디의 변화와 아랍의 기독교"를 기초로 하여 작성됨.

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MbS)이 중동 뉴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MbS의 현재 나이는 만 32세이다(1985.8.31 생). 그가 강경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를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 이름의 약칭 MbS에서 M은 그의 이름 무함마드(Mohammad), b는 아들이라 뜻의 빈(bin), S는 그의 부친이며 현재 왕인 살만(Salman)의 첫 글자이다.

MbS는 왕세자로 책봉된 직후 강경 이슬람의 뿌리가 되는 '와하비주의' 율법 학자들이 장악한 종교경찰의 체포 권한을 박탈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율법 학자가 숙청되었다. 일단 최고 종교기구인 고위 율법 학자 위원회는 이슬람 율법이 "우리에게 부패에 맞서 싸우라고 가르친다."라며 그의 숙청을 추인했다. 그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벗어나는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가고 있다. 여성 운전, 병역,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 등을 허용하고, 비키니 착용과 음주를 할 수 있는 관광특구 설치 등의 계획이 담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의 크기보다 44배가 큰 특별 신도시(NEOM) 건설계획도 발표했다. MbS는 여성에게 몸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검은색의 이슬람식 원피스인 '아바야'와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인 '리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무슬림 형제단에게 학교 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세짐 스미스 전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는 "MbS가 온건 이슬람을 뿌리내리기

위한 긍정적인 문화 개혁을 시작했다"라며 "미국과 사우디의 순조로운 협력을 위해 MbS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3)]

그동안 사우디는 이슬람 이외의 어떤 종교 시설과 예배 행위나 관련된 문화 행사 등을 전혀 허락하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교회들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 교회들 또는 다민족 교회들이 은밀한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사우디의 변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때로는 그들의 예배 현장이 발각되어 예배당이 폐쇄되기도 하고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한 자들도 있었고 수난을 겪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작년(2017) 7월에 MbS는 르네상스 시대 거장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세계의 구원자', 즉 구세주 예수그리스도란 뜻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을 경매 사상 최고가인 4억 5030달러(약 4929억 원)를 주고 구매하여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선지자며, 선지자의 얼굴을 묘사하는 것은 신성모독인데,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히 여겨지고 있다.[4)] 또한, 사우디 당국은 작년(2017)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 추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역사상 최초로 허락하였다. 금 년(2018) 초에 그는 이집트와 영국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여 각국의 정상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콥트 교황 타

3) www.newsis.com/view/?id=NISX20180319_0000255559&cID=10101&pID=10100 검색일 2018.4.9.

4) 그림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 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왼손에 수정으로 만든 큰 구슬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위를 가리키고 있다. 크기는 가로 45.4cm, 세로 65.6cm 이다 1506~1513년쯤 다빈치가 프랑스의 루이 12 세를 위해 이 작품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현존하는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작품 20 여 점 중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우두르스와 영국의 성공회 대표 저스틴 웰비와 뉴욕의 유대교 랍비들과 천주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의 집무실이 있는 교회당과 회당을 각각 찾아가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이 기회에 사우디의 역사, MbS와 함께 변화되는 사우디와 더불어 아랍의 기독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우디의 역사와 MbS

사우디의 역사에 중요한 두 가문이 있다. '사우드'라는 정치적 가문과 '와합'이라는 종교적 가문이다. 그리고 역대 왕들과 MbS의 외가, 즉 현재의 왕인 살만의 처가인 '수다아리' 가문이 중요하다.

1. 사우디의 두 가문과 MbS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2년에 건국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사우디는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274년 전인 1744년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동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사람은 아라비아반도 내륙 네지드 지역의 무함마드 빈 사우드라는 부족장이다. 또 한 사람은 무함마드 빈 압둘 와합(Wahab)이라는 이슬람 율법 학자이다. 압둘 와합은 무함마드 빈 사우드에게 코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엄격한 근본주의 교리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사우디는 와하비주의(Wahhabism)의 발상지가 되었다. 오스만터키는 1818년 이집트로부

터 군대를 파견하여 무함마드 빈 사우드의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와하비주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오늘날의 사우디 국가건설은 무함마드 빈 사우드의 후손인 압둘 아지즈 빈 사우드가 재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빈 압둘 알 와합의 신조를 따르고 전파하였다. 1902년 쿠웨이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는 리야드를 점령하였으며, 이후 20년 동안 아라비아반도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였다.[5] 마침내, 그는 1932년 사우디 왕국을 건설하여 초대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우디 국가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두 가지 토대를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하나는 '사우드' 가문의 정치적 토대이며, 다른 하나는 '와하비주의'라는 종교적 토대이다.[6]

초대 왕 압둘 아지즈는 유력 부족장의 딸들인 22명의 부인에게서 45명의 아들을 낳았다. 외손주들까지 포함하면 손주는 약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의 증손자들과 그의 형제들이 낳은 방계까지 포함하면 7천 명에 이르는 왕자와 공주 등 1만 5천여 명의 왕족이 있다. 또 이에 필적하는 와하비즘 율법학자들과 종교경찰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초대 왕의 손자 중에 왕세자로 책봉된 MbS가 사우디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를 통하여 권력 구조의 근간인 사우드 왕가와 와하비즘 율법학자들의 정-교 동맹이 바뀔지가 주목되고 있다.

---

5) 훗날(1990년 8월 2일), 사우디 정부는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침공을 받았을 때, 쿠웨이트 자베르 3세 국왕과 그의 왕족들을 사우디로 맞이하여 망명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6) 황병하,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장과 정부의 반테러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2016. 10]: 76-77.

2. 사우디의 역대 왕들과 MbS

초대 왕 압둘아지즈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2년에 그의 나이 57세에 사우디 왕국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여 1953년에 그의 나이 78세에 죽을 때까지 약 21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둘째 아들 사우드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형제상속원칙을 유언하였다. 초대 왕은 아내 22명을 통해서 아들 45명을 낳았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왕세자로 책봉되었다.[7] 왕세자 10명 중에서 6명이 왕위에 올랐고, 4명은 오르지 못하였다. 1명은 자진 퇴위하였고, 2명은 노년(80세와 77세)에 죽었던 술탄과 나에프이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77세의 나이에 10대 왕세자가 된 후 약 3개월 만에 현재의 왕에 의하여 강제 퇴위를 당했다. 그가 바로 초대 왕의 35째 아들인 무끄린이다.[8]

사실, 제2대 사우드 왕은 그의 통치 기간에 초대 왕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의 맏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려고 나름대로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왕세자였던 파이살과 여러 왕자에게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힘을 합하여 사우드 왕을 폐위시키고 파이살이 제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그 후로 초대 왕의 형제 상속원칙의 유언은 지켜지게 되었다. 사우디는 의회와 정당이 없고, 국왕이 임명하는 국정자문위원회(150명)가 운영되어왔다.

---

7) 왕세제란 왕위(王位)를 이어받을 임금의 아우이다. 조선 시대에 영조가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어 왕위에 올라 집권한 적이 있다.

8) https://en.wikipedia.org/wiki/King_of_Saudi_Arabia. 검색일 2018.4.9.

핵심부처의 장관직은 대부분 왕실의 왕자들이 맡으며 4년마다 연임하는 형식으로 이전까지는 평생직과 같을 정도로 내각 교체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왕자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제2대부터 현재의 7대 왕에 이르기까지 초대 왕의 아들들로서 왕위에 오르게 된 여섯 명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대 사우드가 51세에 즉위하여 11년 동안(1953-1964), 3대 파이살이 57세에 즉위하여 11년(1964-1975), 4대 칼리드가 62세에 즉위하여 7년 동안 (1975-1982), 5대 파하드가 61세에 즉위하여 23년 동안 (1982-2005), 6대 압달라가 81세에 즉위하여 10년 동안 (2005-2015) 통치하였다. 그리고 7대 살만이 2015년 1월 79세에 즉위하여, 그의 아들 MbS와 더불어 사우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있다. 이제 사우디는 권력이 여러 왕자에게 분산되지 않고 중앙 집권적이 되어, MbS가 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변이 없는 한, 그의 통치가 40년 이상 펼쳐지며 사우디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3. 수다아이리 7과 MbS

초대 왕 압둘 아지드의 여러 아내 중에 사우디의 네제드 지역의 유력한 부족인 수다아이리 부족장의 딸 핫사가 있다.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명의 왕자들을 “수다아이리 쎄븐”(Sudairi Seven)이라고

한다. 그들 중에 첫째 파하드는 7년 동안 왕세자로 재임한 후 제5대 왕이 되어 23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였다. 또한, 파하드는 왕세자 시절에 제4대 칼리드 왕이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왕을 대신하여 왕국을 통치하였다. 둘째 술탄은 왕세자로 재위 중에 80세에 죽어 왕위에 즉위하지 못하였다. 넷째 나에프도 왕세자로 재위 중에 77세에 죽어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초대 왕의 손자 중에 최초의 왕세자가 되었지만 2년 만에 왕세자 직을 박탈당한 자가 바로 나에프의 아들 MbN이다. 여섯째는 현재의 왕이며 MbS의 부친인 살만이다.

수다아이리 쎄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자가 파하드이다. 그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7년 동안 왕세자 직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 제5대 왕으로 즉위하여 1995년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10년 동안은 직접 통치하였다. 그리고 2005년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의 실질적인 통치권자는 왕세자 압달라였다. 파하드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인 통치 기간은 그가 왕이었을 때 보다 왕세자였던 시절로 평가되고 있다. 그 기간에 그는 여러 개혁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다. 그리하여, 현재의 왕세자 MbS가 제시하는 개혁적 비전들이 최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되면서 그의 비전 성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파하드 왕 시절에 사우디가 개혁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강경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 또한, 그 시절에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이 지출되었다. 최영길이 한국어로 번역한 꾸란의 한국어판, 즉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도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파하드 왕은 1986년에 자신을 "두 개의 거

룩한 사원의 수호자"라고 일컫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왕 자신이 그의 세속적인 권위보다는 이슬람적 권위를 상징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에는 이슬람의 3대 성지중에서 2대 성지가 있다. 하나는 이슬람의 태동지인 메카의 하람 사원이며, 또 하나는 이슬람의 최초의 공동체인 움마가 탄생된 메디나의 사원이다. 제5대 파하드 왕에 이어 제6대 압달라 왕과 제7대인 지금의 살만 왕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거룩한 사원의 수호자"라고 자칭하고 있다. 지금까지 왕국의 모든 왕이 죽은 후에야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살만 왕은 죽기 전에 MbS에게 왕 위를 넘겨주고, 자신은 "두 개의 거룩한 사원의 수호자"직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제7대 왕 살만과 MbS

사우디의 현재 왕인 살만(82세)은 초대 왕 압둘 아지즈의 25번째 아들이다. 사실, 살만이 왕위에 즉위하였던 2015년 1월 23일은 곧 그의 이복동생 무끄린이 왕세자로 책봉되었던 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살만 왕은 무끄린의 왕세자 직을 3개월 만에 박탈시킨 후에 그의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Muhammad bin Nayef: MbN)를 제1 왕세자로 책봉하며, 그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살만 왕은 당시 29세인 그의 아들 MbS를 제2 왕세자로 책봉하며, 그동안 자신의 직책이었던 국방부 장관직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약 2년 반이 지난 후, 그는 MbS의 왕자의 난이 성공하도록 하였다(2017.6.21.).

살만 왕은 19세부터 20세까지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의 부지사로 1년 동안, 28세부터 74세까지 45년이 넘도록 리야드의 주지사로 재직하였다.[9] 그리고 그는 74세에 국방부 장관에, 75세에는 왕세자로, 마침내 7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2015.1.23.). 특히, MbS는 그의 부친의 주지사 재직 기간 중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매주 리야드 시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과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맡아 20대임에도 뛰어난 업무 수행력을 보이면서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다. 그는 살만 국왕이 셋째 부인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이다. 그는 부친 살만이 국왕으로 즉위하자 젊은 나이임에도 그의 형들을 제치고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제 왕세자 MbN을 제키고 왕세자로 책봉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만 왕은 즉위와 더불어 수차례에 걸쳐 개각 또는 장관직 교체를 단행하여, 선왕인 압둘라 국왕 재위 시의 장관 중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인물들은 정부 내에서 그 중요성이 낮은 장관 중에 4명뿐이다. 또한, 살만 국왕은 즉위 직후 국왕 자문단의 경제개발이사회(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CEDA)와 정치안보이사회(Council of Political Security Affairs, CPSA)를 설립하고, MbS를 양대 이사회의 의장으로 임명하여 전권을 부여하였다. 특별히, MbS는 그의 사촌들인 11명의 왕자와 현직 장관 4명과 수십 명의 전직 장관들을 부패 혐의로 호텔에 3개월 동안 가둔 가운데 그들의 충성 명세를 받아 내며 그의 절대 권력을 강화했다.

---

9) https://en.wikipedia.org/wiki/Salman_of_Saudi_Arabia. 검색일 2018.4.9.

III. MbS와 이란

MbS는 사우디를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개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외부의 적이 바로 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4대 왕 파하드가 왕세자 초기 시절에 개혁적인 비전을 제시였지만, 그가 왕세자와 왕으로 각각 재직하던 시절에 오히려 사우디가 더욱 강경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란 때문이라는 것이었다.[10]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MbS에 따르면, 그의 숙부인 파하드가 왕세자로 재직 중이던 1978년 1월부터 1979년 2월까지 진행되었던 호메이니에 의하여 시작된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혁명 때문이었다. 그 혁명으로 2,500년 동안 계속 되어왔던 페르시아 왕정 제도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사우디의 칼리드 왕은 이란 혁명의 성공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내심으로는 그 혁명의 불길이 사우디까지 미치게 될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11] 사실, 이란에서 가까운 사우디 동부 지역과 이웃 나라 바레인의 인구는 시아파 무슬림들의 인구 비율이 수니파 인구 비율보다 훨씬 더 높다.

'시아'는 아랍어로 추종자들이라는 뜻이다.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의 추종자들인데, '알리'가 생략된 것이다. 무함마드에게 12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러 첩도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무함마드의 진정한 후계자(칼리파)는 그의 사위이며 그의 사촌 동생인 알리며,

10) https://en.wikipedia.org/wiki/Fahd_of_Saudi_Arabia. 검색일 2018.4.9.

11) https://en.wikipedia.org/wiki/Khalid_of_Saudi_Arabia. 검색일 2018.4.9.

알리를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무슬림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리가 칼리파가 되기 전에, 세 명의 칼리파들이 이미 세워졌다. 첫째 칼리파 아부 바크르와 둘째 칼리파 오마르는 각각 무함마드의 장인으로 2년과 1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오스만이 셋째 칼리파로 통치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 그가 살해되었다. 마침내, 알리가 넷째 칼리파가 되었다. 그러나 셋째 칼리파인 오스만의 생질이며 시리아 다메섹의 총독 무아위야가 알리의 칼리파 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삼촌 오마르와 자신의 성을 따라 움마위야 왕조라는 최초의 이슬람 제국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무아이야로 대표되는 수니파와 알리를 따르는 시아파의 대결 구도가 구체화 되었다. 알리와 그의 아들 후세인이 무아위야의 군대에 의하여 죽게 되어 시아파의 순교자들이 되었다.

시아파는 수니파에서 인정하고 있는 1대부터 3대까지의 칼리파들을 무시하고, '이맘'만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맘'은 앞에 있는 자, 인도자, 지도자라는 뜻으로 수니파에서는 보통의 이슬람 예배의 인도자를 지칭할 뿐이다. 그러나 시아파의 주류에서는 12명의 '이맘'만을 인정한다. 알리가 제1대 이맘이며, 그의 두 아들 하산과 후세인이 각각 3대와 4대 이맘이며, 그리고 수니파에 의하여 순교를 당한 제4대 이맘 후세인의 후손들이 5대부터 12대까지의 이맘들이다. 그런데, 제12대 이맘이 곧 마흐디이다.[12] 특별히, 시아파의 중요 교리 중에 마흐디의 재림 사상이 있다. 마흐디는 아랍어로 "인도받는 자"라는 뜻으로, 기독교의 재림 예수 개념과 엇비슷한 면이 있다.[13] 시아파의 주류인 12 이

12) https://en.wikipedia.org/wiki/Mahdi 검색일 2018.4.9.

13) 이라크 대학생선교회 대표 마히르 압둘아하드에 따르면, 수니파 이라크인들보다는 시아파 이라크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게 된 개종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맘 시아파의 마흐디관(觀)에 따르면, 이맘 마흐디는 종말 시대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순결하다. 그는 874년 5살 때 사라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 이븐 알하산 알아스카리이다. 그는 '알마흐디 문타자르', 즉 '기다려지는 마흐디' 이다.

이란을 신정(神政)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슬람법 전문가정(專門家政)이다. 이슬람법 전문가들이 이맘 마흐디가 재림할 때까지 그로부터 권위와 인도의 능력을 위임받아 시아파 국가를 지도한다는 것이다.[14] 다시 말해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마흐디가 재림하기까지 그를 대신하는 이슬람법 전문가들이 통치하는 나라이다.[15]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지 약 9개월 정도 지난 1979년 11월 20일(이슬람력 1400년 1월 1일) 아침, 수백 명의 종말론적 지하드 전사들이 사우디 정부가 신앙적으로 타락했다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 이슬람의 최대 성지인 메카의 카바신전을 점령하였다. 그 전사들의 주도자 알우타이비는 그들과 함께하였던 알까흐타니가 재림한 '마흐디' 라고 주장하며 모든 무슬림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시아파의 '마흐디'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필자의 동역자가 된 이라크 시아파 출신의 개종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 또한, 필자는 시아파 무슬림들이었던 한국 주재 이란인 약 20명을 상대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 점을 확인하였다.

14) 박현도, "마흐디(Mahdi) - 순니와 시아가 다른 이유" 월간조선 2017 년 8 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1708100042&page=1. 검색일 2018.4.9.

15) 박현도, "마흐디(Mahdi) - 순니와 시아가 다른 이유" 월간조선 2017 년 8 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1708100042&page=1. 검색일 2018.4.9.

우타이비 일행은 이란의 호메이니옹 설교에 영향을 받고 그 사건을 일으켰다.[16] 그들의 메카의 점령 사건은 마흐디의 재림을 신봉하는 종말론적 지하드의 위력이 시아파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니파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특별히, 사우디가 시아파의 마흐디 사상을 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맘 마흐디가 재림할 장소가 메카라는 데 있다. MbS는 이란이 사우디를 겨냥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란 정권의 주목표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슬림의 예배 방향인 메카에 도달하는 것이 이란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다.” MbS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하고자 하였지만, 하메네이는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국가는 히틀러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몰랐다. 중동지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17] 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맹주인 사우디와 이란은 지역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다퉈왔다. 양국 사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지만, 예멘과 시리아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18] 특히 최근엔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는 이란에 대한 사우디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16) https://en.wikipedia.org/wiki/Grand_Mosque_seizure. 검색일 2018.4.9.

17)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8/04/mohammed-bin-salman-iran-israel/557036/ 검색일 218.419.

18)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배경과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예멘 한국대사 박웅철(단국대 GCC 국가 연구 기고문, 2017.6.22.)의 글을 참고하라

IV. MbS와 타종교들

그동안 사우디는 이슬람의 종주국이라는 관점에서 그 나라 안에 다른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과의 국제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런데, MbS와 더불어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 MbS의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관계

MBS가 왕세자가 된 후에 이집트와 영국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다른 종교지도자들을 따로따로 만났다. 지난 3월 초에 이루어진 사흘 동안의 이집트 방문 기간에 둘째 날에는 콥트 정교회 교황 타우두르스를 만났다. 그의 부친 살만 왕이 그 교황을 이집트 공식 방문 중에 여러 유력인사와 함께 잠시 만난 적은 있었다. 그렇지만, MbS는 교황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집무실이 있는 콥트 교회 당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첫 번째 사우디 왕족이 되었다. 그는 교황에게 종교들의 관용과 세계 발전을 위한 공존과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생애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교황이 사우디에 있는 그의 교우들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그를 초청하겠다고 응답하였다.[19] 콥트 교회는 이집트에 약 천만에서 1천

19) http://www.arabnews.com/node/1259731/saudi-arabia. 검색일 2018.4.9.

5백만 교우들을 갖고 있다. MbS의 이집트 방문은 이집트 대통령의 선거 몇 주일 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절대다수의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강경 이슬람인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모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현재의 대통령 엘시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MbS는 이집트 방문을 마친 후 영국을 연이어 방문하여 성공회 대표 저스틴 웰비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집무실이 있는 교회당을 각각 찾아갔다. 그는 사우디의 국내 개혁을 위하여 다른 종교에 속한 자들과 관용적인 자세로 종교 간의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웰비 대표는 MbS에게 사우디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예배 공간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20] 또한, MbS는 뉴욕에서 역사상 최초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 간의 관용과 공존과 동역을 통한 인류 발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2018.3.29.). 그가 만났던 유대교 지도자는 개혁 유대교 연맹의 대표인 랍비 리처드 제이콥스, 보수 유대교 연합 회당 연맹 대표인 랍비 스티븐 워르닉, 정통 연맹 실행 부대표 알렌 패긴이었다. 그 자리에는 MbS의 친동생이며 현재 주미 사우디 대사인 칼리드(1988년생)도 함께 하였다.[21] 또한,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bS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점들이 아주 많다고 하였다.

---

20)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saudi-archbishop/saudi-crown-prince-commits-to-interfaith-tolerance-says-anglican-church-idUSKCN1GK1V1. 검색일 2018.4.9.

21)https://www.haaretz.com/middle-east-news/saudi-crown-prince-officially-met-jewish-leaders-for-the-first-time-1.5961422. 검색일 2018.4.9.

2. MbS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란은 1950년에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중동의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79년의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성공으로 그 관계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아랍국가 중에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수립된 나라는 이집트와 요르단뿐이다. 그런데, 지난해(2017) 10월 초에 MbS자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사우디는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일치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아랍권과 이슬람권이 크게 소동하고 있고, 특별히 그 약속대로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된 직후부터 가자지구에서는 진행되는 시위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MbS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다고 한다.

미국과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어서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 터/이슬람의 제3의 성전 이슈로 인하여 그렇다. 그 이슈에 대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이해가 상충한다. 이를 위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이해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22)]

V. 아랍의 기독교

사우디와 달리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이 많다. MbS는 사우디를 그와 같은 국가들처럼 개조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이슬람화와 아랍화, 그리고 아랍과 사우디의 기독교 현황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자.

1. 이슬람화와 아랍화

이슬람 신학에 따르면, 이슬람화와 함께 아랍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아랍어로 기록되면서, 그 내용과 그 기록 언어인 아랍어까지 절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앙고백을 비롯하여 기도와 예배 전체를 아랍어로만 진행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슬람화된 인구는 16억 정도가 되지만, 아랍화 된 인구는 약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아랍어는 UN 6대 공용어 중의

---

22) 유대교의 예루살렘의 성전 터는 곧 이슬람교의 제3의 성전이다. 그에 대하여 기독교의 이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친 유대교적 이해로 기독교 시온주의적 또는 예루살렘 중심적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새 예루살렘) 중심적이 이해이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CLC, 2009), "예루살렘 중심적 종교들과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 "왜 이사 간 옛 처갓집(여호와 하나님의 집) 말뚝(통곡의 벽)을 보고 절을 하나" 등에서 자세히 밝혔다. 그 책과 글들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정형남 교수의 게시판에 올려져 있다.

www.acts.ac.kr/modules/board/bd_view.asp?id=teachers54&no=3&mncode=&left=

하나이며,[23] 22개국에서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그들은 아랍국가연맹(Arab League)에 속하여 있다. 이 연맹의 정식 영어 이름은 League of Arab States이다(발족, 1945년).[24]

언어체계가 비슷한 셈어 지역(이라크와 레반트 지역)과 함어 지역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슬람화와 함께 아랍화가 되었다. 반면에, 이란인 지역과 튀르크(터키)인 지역은 아랍화는 되지 않고 이슬람화만 되었다. 이란어는 인도·유럽어 계통이며, 튀르크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므로 아랍어와는 너무나 다른 언어체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편법으로 아랍어 알파벳을 그들의 문자로 채택하였고, 많은 종교적 아랍어 어휘들을 채용하였다.[25]

2. 아랍의 기독교

아랍 22개국 안에 아랍화만 되고 이슬람화되지 않은 자들, 즉 아랍 기독교인의 수가 1천 5백 만에서 2천 5백 만으로 추정된다.[26] 그

---

23) UN 6대 공용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이다.

24) 아랍국가연맹 기구의 원 가맹국은 이집트·시리아·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요르단·예멘 등 7개국이며, 연맹의 상설본부와 사무국은 이집트 카이로에 설치되었다. 그 뒤 회원국은 확대되어 2008년 현재 22개국이 가입하였다. 1979년 3월 이집트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었다가 1989년에 회복되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관해 연맹국 간에 분열이 생겼다.

25) 아랍어는 히브리어와 함께 셈어로서 그 어순이 영어와 엇비슷하며, 영어권 선교사들이 한국인들보다 아랍어를 습득하는데 수월하다. 한편,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슬람화는 되었지만, 아랍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언어들(예컨대, 터키어, 이란어, 우르드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어 등)을 영어권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익힐 수가 있다.

들은 이슬람화의 물결 속에서 아랍화는 되었지만, 이슬람화는 되지 않고 기독교인들로 남아 있는 자들이다. 아랍, 즉 아라비아의 최초 선교사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다(참조, 갈 1:17, 고후 11:32).[27] 오늘날까지도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가진 수많은 아랍 교회들이 있다. 아랍권은 복음의 불모지도 아니고 복음의 처녀지는 더욱더 아니다. 패트릭 존스턴에 따르면, 아랍어권은 기독교와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기독교 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되는(continued) 여섯 나라(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28]

② 기독교가 붕괴된(collapsed) 북아프리카에 속한 다섯 나라(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③ 기독교가 7세기에 뿌리 뽑힌(uprooted) 아라비아반도의 일곱 나라(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④ 북쪽 지역은 기독교가 붕괴하였지만, 남쪽은 20세기와 21세

---

26) http://simple.wikipedia.org/wiki/Arab_Christians. Egypt: 6,000,000 to 11,000,000, Lebanon: 1,100,000, Syria: 1,000,000, United States: 700,000, Jordan: 290,000, Canada: 200,000, Australia: 140,000, Israel: 115,000, Iraq: 5,500. (브라질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곳에 이주하여 사는 아랍 기독교인들이다).

27) 정형남 “아라비아의 최초 선교사 사도 바울”, 횃불트리니티 신학교 이슬람연구소, 「우리 형제 이스마엘」 제107호(2011. 4. 15).

28) 이 나라들의 기독교 역사와 교회들만을 소개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한국인으로 이성옥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와 이라크의 앗시리안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 비교 연구"(레바논대학)과 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에 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를 각각 발표하였다.

기에 기독교가 지배적인(dominated) 나라(수단).[29]

⑤ 아랍 연맹에는 속하여 있지만, 아랍보다는 아프리카 성향이 강한 세 나라(소말리아, 지부티, 코모로).[30]

개신교회 신학교가 있는 아랍국가들은 이집트와 레바논과 요르단과 팔레스타인과 수단이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카이로 복음주의신학교는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 학교의 영어 이름은 ETSC(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of Cairo이다.[31] 또한, 이집트에는 감리교 신학교와 하나님의 성회 신학교 등이 있다.[32] 레바논의 경우에는 85년의 역사를 지닌 근동신학교로, 이 학교의 영어 이름은 NEST(Near East School of Theology)이다.[33] 그리고 아랍 침례신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의 영어 이름은 ABTS(Arab Baptist Theological College)이다.[34] 또한, 지중해 성경대학(Church of God),과 기독교 성결 신학원(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가 있다.[35] 요르단의 경우에는 필자가 교수로 섬겼던 요르단 복음주의신학교가 있으며, 영문명은 JETS(Jord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이다.[36] 팔레스타인에는 "검문소

29) 수단에서 남수단이 분리 독립되었다(2011.7.9).

30) Johnstone, Patrick, Mandryk, Jason, Johnstone, Robyn, Opertaiton World: When we pray God works 21st Century Edition, 6th ed. London, Parternoster Lifestyle, 2001.

31) http://etsc.org/new/

32) 공일주, 359.

33) http://www.theonest.edu/

34) https://abtslebanon.org.

35) Ibid., 358.

의 그리스도"(Christ at the Checkpoint)라는 컨퍼런스를 2년마다 개최하여,[37] 더욱 유명해진 베들레헴 성경 대학이 있으며, 그 영어 이름은 BBC(Bethlehem Bible College)이다.[38] 수단에서 초교파적으로 운영되던 나일 성경 대학(Nile Bible College)의 경우에는 아랍어 과정은 수단에 계속 남아 있고 영어과정은 남수단으로 내려왔다. 또한, 그리고 기드온 신학교도 남수단으로 내려갔다. 장로교가 운영하던 쥐레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불타고 무단 점거당한 후에 문이 닫혔다.

기독교 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되는 아랍국가 중에 필자가 섬기고 있는 요르단 교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요르단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정도이지만, 193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었다. 무슬림 인구가 요르단으로 유입되고 기독교인들이 서구로 이민을 나간 점, 무슬림 인구와 비교하면 기독교 인구의 출산이 저조한 점 등이 이유가 되겠다. 사실, 그 점에서는 시리아나 이라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요르단 국회의 하원 130석 중에서 9석이 기독교인들의 몫이다. 정교회 교우들의 수는 약 125-300,000이고, 천주교회 교우들의 수는 114,000 정도이며, 개신교회 교우들의 수는 30,000 정도이다.[39]

요르단에는 다섯 개의 복음주의 교단들이 연합하여 협의회를 이루고 있다. 그들이 정부의 법무부에 등록된 연대별로 열거하자면,

---

36) http://jets.edu/

37) https://christatthecheckpoint.bethbc.edu/

38) https://bethbc.edu/

39) https://en.wikipedia.org/wiki/Christianity_in_Jordan.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교회(1927), 나사렛(Nazarene) 교회(1951), 복음 자유(Evangelical Free) 교회(1955),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교회(1957), 그리고 침례(Baptist) 교회(1957)이다. 영국성공회(Anglican)와 독일의 루터(Lutheran) 교회는 정부의 종교부에 천주교회와 정교회 등과 함께 등록되어 다섯 개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구별되어 있다.[40]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위 다섯 개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지역 교회가 약 60개, 성도 수가 8,000명 정도가 된다.

아랍 22개국의 기독교인 통계를 보면 이집트에 47%, 나머지 21개국이 53%이다. 이집트 기독교인은 콥트, 가톨릭, 개신교 16 교단을 포함한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교회는 이집트의 콥트 교회이다. 콥트 교회는 이집트에 약 천만에서 천 오백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2015년 초에 리비아의 지중해 해변에서 IS에 의하여 콥트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을 때, 영국 콥트 교회 앙가엘로스 총주교는 IS에 대한 최고의 무기는 용서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무슬림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적지 않다.[41]

---

40) Jiries Habash, “Evangelical Churches in Jordan,” MEATE [Middle East 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Journal 6, no. 1 (December 2011): 1 –15

41) 정형남, [시론] 용서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 기독신문, 2015년 11월 24일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62. (검색일 2018.6.26.)

3. 사우디의 교회들

사우디에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탄생(주후 570년 경) 훨씬 이전, 즉 4세기에 세워진 교회당이 발굴되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주바일(Jubail) 교회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우디에는 자국인 교회나 교인이 공식적으로 없음은 물론이며,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마저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우디 안에는 비공식적인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다.

1) 아랍 교회들

기독교 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되는 여러 아랍권 국가들과 여러 비아랍권 국가에서 온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아랍 교회 공동체들이 있다.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선교사역을 은밀히 펼쳐지고 있다. 또한, 여러 아랍어 기독교 위성 TV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우디인들을 비롯한 아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 바레인을 비롯한 사우디 주변 아랍국가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사우디 안의 여러 아랍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방문 사역하는 분들도 있다.

2) 외국인 교회들

사우디를 비롯한 아라비아반도의 국가들 안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각각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픈도어스 기독교 핍박지수(Open Doors 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3년에는 세계 2위였는데 2018년에는 12위로 떨어졌다. 대중교통도 없고 여성들은 혼자서 택시를 탈 수 없었지만, 최근에 카카오택시나 우버 같은 기술들이 보급되면서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어, 사우디 주재 외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42] 보안 관계 등의 이유로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한 선교 사역이 은밀한 가운데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필리핀인들 중에 헌신 된 가정부들을 통해서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아랍 무슬림 가족의 여인들과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의 수도 작지 않다.

3) 한인교회들

사우디에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1970년대에 한국 건설회사들의 중동 진출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70~80년대에 연간 평균 약 120만 명이 중동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그들과 만나고 배웠다.[43] 그들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다. 또한, 열사의 나라에서 땀 흘려 일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자

42) 문열림, "사우디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에 따른 선교 전략", 전방개척 선교 Vol. 76, 2018년 5-6월호, 64.

43) 중동에 진출한 한인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1979년:105만, 1980년:131만, 1981년 156만, 1982년:161만, 1983년:152만, 1984년121만, 1985년88만, 1986년60만 1979~1986년도까지 연평균 94만 7천 명.

들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사우디의 종교경찰을 피하여 사막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은밀히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당시 사우디에서 평신도로서 현장교회를 섬겼던 경험을 지닌 중동선교회 본부장 홍계현 목사에 따르면, 당시의 중동 건설 현장에는 한인교회 40여 개와 현장교회 150여 개가 존재했다.[44]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한인교회들의 역사는 이른바 '현장교회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하게도, 대부분 건설회사에는 숙소와 함께 종교시설이 허락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목회자는 없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현장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예배시간에는 그들 중에 직접 설교하기도 하고, 고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테이프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더러는 고국에서 전임 교역자를 초청하여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현장교회들도 생겼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목사로서 이슬람권 선교사로 헌신하여 준비하고 있던 이연호 목사는 1976년에 총회 세계선교회(GMS의 전신) 사우디 선교사로 충현교회(담임: 김창인 목사)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는 셋째 딸 에스더를 해산한지 40 일만에 아내와 세 명의 딸들을 고국에 남겨두었다. 당시 그는 건설회사인 한국건업(회장 김인득 장로)의 직원 12명을 인솔하고 사우디로 향했다. 그의 사우디 입국은 그동안 목회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

44) 홍계현 목사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사우디와 이라크에서 근무하며 현장교회와 한인교회를 섬긴 후에, 귀국하여 전임목회자가 되었으며, 지금은 중동선교회(MET)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155690&code=23111111 (2014.03.21. 국민일보).

되었지만, 몇몇 불신자들과 대사관 직원들에게는 불안하고 불쾌한 사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사우디 입국 2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한 국인의 고발로 추방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고국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연호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중동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국제 선교단체들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싱가포르, 파키스탄을 거쳐 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이집트의 장로교단과 연락이 되어, 7개월이 넘도록 떨어져 지내던 그의 아내와 세 딸이 기다리고 있는 고국과 정 반대 방향의 이집트를 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최초 한국인 선교사로 카이로에 도착하였다(1977.3.12.). 도착 후 1달가량 되었을 때 카이로 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1977년 4월 10일). 또한, 이집트 장로교 교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단 소속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교단은 가족을 초청하도록 초청장을 발급하여 주었고, 그의 아내 김신숙 선교사는 애굽복음주의장로회 교단신학교인 카이로복음주의신학교(ETSC) 도서관에서 문서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그는 가족과 함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심히 안타깝게도, 이연호 선교사는 지중해의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되는 이집트와 수단 목회자들의 수양회에 초청을 받아 가던 중,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1979년 7월 11일). 그때 김신숙 선교사는 치료차 고국 방문 중이었다. 김 선교사는 남편 이 선교사가 천국으로 떠나간 후 1년 만에 세 딸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4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아랍권 선교사로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45] 김 선교사는 남편 이 선

교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우디 사역을 하던 중에 고국에 있던 자신에게 발송하였던 다음과 같은 편지 한 통을 그의 유서로 받아들이며 그의 소원대로 순직의 길이요 순교의 길을 간 것이라고 해석한다.

>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날까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감사하며 가는 것, 주의 종이 가는 길이예요.[46]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붐이 계속됨에 따라, 차츰 가족을 동반하는 회사 직원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겼다. 그리하여, 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였고, 교회의 주일학교도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아졌다. 그와 같은 교회들을 '현장교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른바 '한인교회' 또는 '한인연합교회'라고 일컬었다. 한인(연합)교회의 전임목회자는 청빙 받아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현장교회' 의 경우에는 전임목회자라 하더라도 싱글이거나 가족을 고국에

---

45) 필자가 김신숙 선교사를 처음 만났던 때는 이연호 선교사가 천국으로 떠난지 약 4년이 지난 후인 1983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당시 김 선교사는 이집트인 개종자 자카리야를 총신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일시 귀국 중이었고, 필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의 아랍권 선교후보생이었다. 또한, 김 선교사가 선교지로 돌아간 직후에 일시 귀국한 쿠웨이트한인연합교회 담임 최형섭 목사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 교회의 예비 선교사가 되어 신학대학원 재학을 위한 장학금을 약속받았다. 필자는 김 선교사와 자카리야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의 부친 김득룡 박사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총신대학교 신학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재학 중 쿠웨이트한인연합교회의 장학금을 받았다(1984~1987년). 이 교회는 중동선교회(회장 두상달) 탄생(1984년)과 중동지역선교사협의회(중선협)의 전신인 중동지역한인연합회(중한연) 탄생(1985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46) 김신숙, 『사막의 장미꽃이』. (서울: 횃불출판사, 1997), 47-50.

두고 왔다. 차츰 가족과 함께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자영업자들도 많아지게 됨에 따라, 한인교회들의 규모와 역량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기독교가 뿌리 뽑힌 사우디의 한인교회역사는 기독교가 다시 뿌리를 내리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들의 예배 모임 등은 이른바 지하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사우디 공항 입국 때부터 성경책을 빼앗기기도 하고, 현지 종교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당을 태권도장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마련하여, 운동 복장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교회당에 성경과 찬송가를 가져가지도 못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심지어, 리야드에 소재한 한인교회의 경우에는 예배 때 종교경찰의 급습을 받고 체포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곧 강단에서 설교하던 담임목사와 성가대석에서 성가대 복장을 하고 있던 남녀 성도들이었다. 그때의 담임은 강일용 목사였다. 강 목사와 그의 가족만 추방당함으로 그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그 교회당은 완전히 폐쇄되었다.[47]

그 후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사우디에 입국하여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사역하여왔다. 이미 다녀갔던 자들도 있고, 지금도 묵묵히 그곳에서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방문 사역을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을 축복하고 있다. 그 땅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헌신한 자들도 아주 많다. 예컨대, 6년 동안의 사우

47) 강일용 목사는 사우디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한동안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설교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바레인에서 맞이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잠시 목회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의 새동도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http://m.churchnewdongdo.org/).

디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국내 목회를 하는 오영택 목사의 사모인 김형민 목사에 따르면, "오 목사의 하반신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이 16세 때에 참석한 부흥회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였다. 마침내 사우디에 나가 있던 한 지인이 연결되어 휠체어를 비행기에 싣고 사우디로 갔다. 하루에 9번씩 먹어야 하는 약은 공항에서 전부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뛰고 축구까지 하게 됐다…."[48] 또한, 그들과 함께 동역하던 네덜란드 선교사는 체포되었다가 미국 CIA에 의해 구출되었고, 한인교회 집사도 체포되었다 한다. 그렇지만, 미국 상원의원 두 사람과 연락이 닿게 되어 석방되었다고 한다. 한편, 필리핀인 사역자 두 명에게는 사우디 당국은 마약 혐의를 덮어씌워 할라스[49] 광장에서 공개처형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처형이 가해지지는 않았다.[50]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 안에서 여러 국적의 그리스도인들

48) 김형민, "불치병 남편과 떠난 사우디 선교… 신유의 기적이", 국민일보. 2012-04-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997562 (검색일 2018.6.27.). 오영택 목사는 하늘비전교회 담임목사이다(http://www.hvbc.kr). 그의 부인 김형민 목사는 대학연합교회 담임목사이다(www.ucc.or.kr). 다음은 그들이 사우디 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후에 대한 김 목사의 간증이다.

49) 할라스(khalas)라는 뜻의 "끝"의 뜻을 지닌 아랍어이다.

50) Ibid. 김형민 목사에 따르면, 필리핀인의 두 명의 사역자 처형 사건 이후에도 그의 교회는 새벽마다 전 교인들을 독려하자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새벽예배에 참석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눈물이 가득 고인 체 그에게 다가와, "할라스 광장에 붙잡혀 가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신앙이 아직 약하니까 목사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교회가 경찰의 급습을 받아 교회당이 폐쇄되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클린턴 미국

이 은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가 있는 줄 믿는다.[51]

> 우리는 중동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 눈물의 기도가 척박한 중동 영혼들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 줄 믿는다.

이는 사우디와 다리로 연결된 섬나라 바레인에 세워진 바레인 한인교회의 제1대 담임목사로서 6년 동안 사역하였던 최수영 목사가 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필자에게 하였던 말이다. 최 목사는 수년 전에 고인이 되었는데 그의 말은 필자의 뇌리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최 목사가 말한 '우리'는 곧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남에 따라 중동에 진출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 땅의 영혼들과 중동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이다. 지금 사우디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척박한 중동 영혼들의 밭이 옥토가 될 때까지 그 밭을 일구는 그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적 사건이다. 사실, 그 '우리'들이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중동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친 사례들은 무수히 많았다. 앞으로도 더욱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미 국무부 차관보가 사우디에 와서 종교성 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종교성은 한인교회 예배를 허락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51)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14년 5월 11일에 주최한 선교대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중동의 한인교회들과 중동 선교" 글에서 발췌되었다. http://www.acts.ac.kr/modules/board/bd_view.asp?no=11&ListBlock=&gotopage=1&Pagecount=1&sk=&sv=&id=teachers54&ca_no=&mncode=&left=&sleft=

많은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고, 위하여 기도한다.

VI. 나가는 말

이집트의 무바라크나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시리아의 아사드, 요르단의 후세인, 이란의 호메이니 등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다. 그들에 비교하여,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국이며, 아랍권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이슬람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여러 왕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다. 그들 모두 다 우리에게는 사우드의 왕들일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왕위에 등극하였을 때의 나이가 아주 많아 그들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짧았던 점도 이유가 되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권력이 왕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왕자에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핵심부처의 장관직과 수도 리야드를 비롯하여 여러 주지사와 시장은 대부분 왕실의 왕자들이 맡으며 평생직과 같을 정도로 내각 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MbS(32세)의 시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79세의 나이에 제7대 왕으로 등극한 그의 부친 살만 왕이 지난 3년 동안에 걸쳐 그의 아들 MbS에게 왕국의 절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그의 부친 살만은 앞으로 '두 개(메카와 메디나)의 거룩한 사원의 수호자' 역할만 하고, MbS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여 개혁의 고삐를 계속 당길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장래에 대하여 쉽게 낙관할 수

만은 없다. 사실, “사우디 또 '궁중 쿠데타'?… 왕세자 빈살만 신변 이상 說”이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MbS가 한 달 이상 동안에 걸쳐 진행된 그의 이집트, 영국, 미국, 프랑스 방문 중에 다양한 뉴스의 중심인물이었는데 40일 이상 동안 그에 대한 뉴스가 전혀 보도되지 않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 개막식 직후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경기가 진행될 때 러시아의 푸틴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고, 그 직전에 그의 러시아 방문 예정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가 사우디의 변화를 통해 중동에 다른 측면의 변화를 주도록 협력하며 견인하여 주면 좋겠다. 강성한 이슬람이 아니라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의 개조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새 리더십으로 그의 사우드 및 귀족 가문을 넘어서서 나라의 주역들을 넓히고 젊은 세대를 중용하기 바란다. 석유에만 매달리는 경제를 넘어서서 부가가치 높고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로 경제구조가 변혁되어가길 바란다. 언젠가 적어도 요르단처럼 입헌 왕정국가가 되길 바란다. 아라비아반도의 바레인과 쿠웨이트나 UAE나 카타르 등에서 외국인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사우디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존재했던 여러 아랍권의 나라에서처럼 사우디에도 합법적인 아랍 교회들까지도 세워지고, 그 교회들의 선교사역이 힘차게 펼쳐지는 가운데 뿌리뽑힌 기독교가 다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아라비아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사우디의 변화와 함께 아랍의 기독교가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권에서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공일주, 『아랍 교회에 부흥 있으라』서울:예루살렘, 2000.

_____, 『중동의 기독교와 이슬람』서울:예영, 2003.

김형민, “불치병 남편과 떠난 사우디 선교… 신유의 기적이”, 국민일보 2012-04-15.

문열림, “사우디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에 따른 선교전략, 『전방개척선교』 Vol.76, 2018. 5~6.

박바울, “사우디의 변화가 아랍창에 미치는 영향”,『전방개척선교』 Vol.76, 2018. 5~6.

박웅철,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배경과 전망)”, GCC 국가연구기고문, 2017.6.22.

박현도, “마흐디(Mahdi)-”순니와 시아가 다른 이유”, 월간조선 2017년 8월호.

엄익란, “사우디비전 2030에 따른 사우디 사회변화”,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2017.11.02. No. 111.

정형남 “아라비아의 최초 선교사 사도 바울”, 횃불트리니티신학교 이슬람연구소, 『우리 형제 이스마엘』제107호, 2011. 4. 15.

_____. “사우디의 변화와 아랍의 기독교, 『전방개척선교』 Vol. 76, 2018. 5~6.

_____. “중동의 한인교회들과 중동선교”, KWMA 선교대회, 2014.5.11.

황병하,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장과 정부의 반테러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2016.10.

Culver, Jonathan E. 『이스마엘』 제이콥 조 옮김, 서울:도서출판 인사이더스, 2015.

Halm, Heinz. *Shi'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Habash, Jiries. "Evangelical Churches in Jordan," MEATE [Middle East 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Journal 6, no. 1 (December 2011): 1－15.

Johnstone, Patrick, Mandryk, Jason, Johnstone, Robyn, Opertaiton World: When we pray God works 21st Century Edition, 6th ed. London, Parternoster Lifestyle, 2001.

Rassam, Suha. *Chrisianity in Iraq London:* Gracewing Publishing, 2010.

https://en.wikipedia.org/wiki/Fahd_of_Saudi_Arabia.

https://en.wikipedia.org/wiki/Grand_Mosque_seizure.

https://en.wikipedia.org/wiki/Khalid_of_Saudi_Arabia

https://en.wikipedia.org/wiki/King_of_Saudi_Arabia.

https://en.wikipedia.org/wiki/Salman_of_Saudi_Arabia.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과 아라비아 최초 선교사 바울의 메시지 1)

The Assertion of the Supporters of Trump and the Message of Paul the first Missionary in Arabia on Jerusalem Temple

정 형 남

Chung, HyungNam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바울의 3년간 아라비아 사역
III.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선포한 메시지
IV. 나가는 말

1) 이글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이슬람연구소(http://ttcis.ttgst.ac.kr)의 "우리 형제 이스마엘" 제107호(2011년 4월 15일)에 실린 "아라비아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그의 메시지"가 수정 보완된 것이다. 또한, 이 글의 일부가 선교타임즈 2017년 12월 호에 실렸다

I. 들어가는 말

지난해(2017) 12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올해(2018)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자들은 트럼프를 이 시대의 고레스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로서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의 노예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주었다. “투르만과 이스라엘의 건국”의 저자 마이클 벤슨에 따르면, 해리 S. 투르만은 14세 때 이미 4번에 걸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자신을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식시켰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같은 자라고 자처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와 달리 부통령 마크 펜스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인 참모들과 그들로 대표되는 성전재건 운동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시대의 고레스라고 추앙되고 있다.

한편, 국제기도의 집(IHOP)의 대표 마이크 비클은 트루만과 트럼프를 정치적인 고레스라고 칭하며 자신을 영적인 고레스라고 자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재건 운동을 하는 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되어 그 재건의 때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아랍권과 이슬람권을 크게 자극하며 중동과 세계 평화에 먹구름을 가져오고 있다. 그들은 1948년의 이스라엘

의 건국과 1967년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탈환은 성경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었으며, 언젠가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될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 예언성취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혈통적 후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을 자리를 엿보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예언성취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인데 교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체신학 이슈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체신학이라는 마귀의 신학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힐난하며 핍박하고 있다.[2)]

본 고에서는 아라비아의 최초 선교사인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바울의 아라비아 서신 또는 아라비아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선포하였던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겠는가?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먼저 바울의 소명 사건과 그 이후의 그의 여정에 대하여 집중하여 보자. 그의 소명 사건은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회심 사건과 더불어 동시에 일어났다.[3)] 사도행전에 따르면,

---

2)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형남의 “기독교 시온주의와 대체신학(?)”을 보라. 한국선교 KMQ 2104 봄호, 통권 49호, 52-64.

3)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소명 사건의 시점이 다메섹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김세윤은 그와 같은 주장의 그릇됨에 대해서 그의 두 책을 통하여 잘 밝히고 있다. Seyoon Kim, 『바울 복음의 기원』,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1994). 『바울신학과 새 관점』.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2002).

그는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서 얼마 동안 지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동안 머물렀다(갈 1:17).[4] 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으며,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지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소명 받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5] 본 고에서는 위의 두 번째 해석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아라비아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그의 사도직을 수행한 첫 번째 선교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라비아인들에게 선포하였던 메시지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으며 특별히, 그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주장이 그릇됨을 알 수 있다.

---

4) 이 구절에 관한 연구로, Martin Hengel and Anna M. Schwemer,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The Unknown Years (trans.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97), pp. 178~184를 참고하라.

5) 바울의 아라비아행은 그의 사도직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기 함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J. B. Lightfoot, E. J. Goodspeed, Burton, H. Ridderbos, H. C. Kee, A. Deissmann, N. Taylor, Charles C. Ryrie, James Montgomery Boice, John R. W. Stott, Charles R. Swindoll 등. 한편, 그의 사도직에 대한 소명에 순종하여 선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O. Betz, G. Bornkamm, M. Hengel, Maria Schwemer, John B. Polhill, F. F. Bruce, John Pollock, Jacob van Bruggen, John McRay, Udo Schnelle, Howard Marshall, Ian Paul, Rorbert Raymond, 김세윤, 김철홍 등.

II. 바울의 3년간 아라비아 체류에 대한 이유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던 주된 이유가 그의 사도직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는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라비아 사막이 일찍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였던 점에 주목한다(참조, 출 3:1; 왕상 19:8 참조).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나름대로 기도와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아라비아 3년 생활의 전부일 수는 없을 것이다.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고 유대교를 신봉할 때에도 아주 열정적이었다(갈 1:13-14).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회심 사건과 소명 사건을 체험하였다. 또한, 주님께서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에게 바울과 관련하여 직접 계시하여 주셨다(행 9:15). 그리하여, 그 둘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9:17-19에 따르면,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인하여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인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그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선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사도행전 9:20-22에 따르면, 바울은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으며, 그의 설교를 듣고 의아해하자, 더욱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특별한 계시

를 받지 않고 유대교에 속하여 있을 때도 남달리 열심을 내었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 침묵의 기간'으로 보낼 수가 있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개의 구절, 즉, 행 9:23~25와 고후 11:32~33이 잘 밝히고 있다. 그 두 구절 모두 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사도행전 9:23~25에 따르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자들이 유대인들이며, 고린도후서 11:32~33에 따르면, 아레다 왕의 다메섹 고관(방백)과 그의 부하들이다. 아레다 왕은 아레다 4세이며, 나바티안 왕국(Nabatean Kingdom) 의 왕이다(주전 9년~주후 40년).[6]

요세푸스(Josephus)에 따르면(Ant. 1. 220~221), 나바티안 인들은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 느바욧의 후예들이다.[7] 신약 성경의 아라비아는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나바티안 왕국(Nabatean Kingdom)이다.[8] 나바티안 왕국의 백성들이 곧 신약 성경의 아라비아인들로 사도행전 2:11의 "아라비아인들"도 나바티안 왕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부터 홍해까지의 전 지역이 "나

---

6) 아레다 IV 왕은 다메섹 동남쪽 아라비아 지방 중심으로 펼쳐졌던 나바티안 왕국의 왕으로서 헤롯 안디바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로마 황제 갈리굴라는 다메섹을 아레다IV 왕에게 주었다.

7) Seyoon Kim, 『바울신학과 새 관점』, 175.

8) 나바티안 왕국은 BC 2세기에 세워진 왕국으로서 다메섹 인근에서부터 히자즈(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지역) 남방으로 펼쳐있었다. 그 왕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Martin Hengel and Anna M. Schwemer,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The Unknown Years, trans. by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97), 386, n. 571 을 보라. 나바티안 왕국의 역사에 관한 짧은 소개는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970-73 에 있는 David F. Graf의 논문 "Nabateans,"을 보라.

바테네"(Nabatene)라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들의 후손들이 아랍인들이 되었다. 그런데, 아랍(ARAB)은 어원적으로 "AR"과 "AB"의 합성어인데, "AR"은 나바티안 왕국의 왕 "아레다"(Arete)에서, 그리고 "AB"는 아브람(Abramos)에서 각각 나온 것이다.[9] 아랍 또는 아라비아라는 말이 나바티안 왕국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위의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느바욧의 초기 후손 중에 "아레다"가 있었고, 그 이름이 훗날에 유력한 가문의 이름이 되었고 때가 되매 나바티안 왕국의 왕조가 되었다고 본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9:23~25와 고린도후서 11:32, 33을 기초하여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첫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바울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둘째, 사도행전 9:23의 "여러 날" 에는 곧 바울이 아라비아를 다녀온 약 3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아라비아 3년에 대해서 침묵하였다. 셋째, 바울의 아라비아행은 그의 사도직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소명에 응답하여 사역하기 위함이었다. 만일에 바울이 나바티안 왕국에서 그의 사도직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묵상만 하고 있었더라면, 왜 그 왕국의 아레다 4세 왕이 그의 다메섹 고관을 시켜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였었겠는가(고후 11:32)?[10] 바울이 그 왕국의 백성들에게 만 왕의 왕이신

9) Josephus, Ant. 1.220-21; cf. Hengel and Schwemer, Paulus, 190. Martin Hengel, "Paul in Arabia",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2.1 (2002) 50에서 재인용.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여 귀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레다 4세 왕의 바울 사도에 대한 살해미수 사건(고후 11:32, 33)은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여러 내용이 소개되는 본문 중의 마지막 부분이다(고후 11:16~33).

애석하게도, 바울의 첫 선교사역은 다메섹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됨으로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그릇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귀히 부여받은 이방인의 사도직을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지 않고 지낸 셈이 된다. F.F 브루스에 따르면, 그 기간은 약 15년이나 된다. F.F. 브루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약 3년을 보낸 다음(갈 1:17), 예루살렘을 거쳐 그의 고향 길리기아와 수리아 등에서 보냈던 기간을 11년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이다.[11]

또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정도 함께 목회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F.F. 브루스와 달리, 바울의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의 기간이 5년 안팎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12] 7년 안팎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다.[13]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안디옥교회의 바나바로부터 부름을 받기

10) Margaret Thr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CC; Edinburgh: T&T Clark, 2000), 2:770.

11) F.F Brcue,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Eerdmans 1977), 475.

12) Frank. J. Goodwin, 바울의 생애(A Harmony of the Life of St. Paul). (서울 크리스챤 서적 1989), 37.

전까지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았으며, 그는 그 기간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다소와 안디옥이 공동 수도였던 속주의 결합된 명칭인데, 갈라디아서 1:21~24에 따르면,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유대의 교회들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바울을 전에 만나 본 적이 없어서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대의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바나바이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첫 사역을 감당한 후,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자, 그를 그의 고향으로 피신하도록 도왔다(행 9:26-30). 마침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바울을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다(행 11:25-26). 그것은 바울이 그때까지 그의 사도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의 사도직을 잘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틴 헹엘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개척했던 선교지의 교회들을 재방문하였던 것처럼,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다메섹과 아라비아의 교회들을 적어도 몇 차례 더 방문하였을 것이며, 특별히 그의 방문 길에 바나바가 동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14]

---

13) Robert E. Picirilli, 사도 바울(Paul The Apostle), (서울 솔로몬 1994), 105.

사도행전 15:36-41에 따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일로 심히 다툰 다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그곳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그 교회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의 선교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거쳐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돌아온 후부터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의 오랜 기간 사역의 열매임에 틀림이 없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AD. 55년경) 14년 전에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고후 12:1~6). 로버트 피키릴리에 따르면, 그때가 바로 그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의 사역 기간이라는 것이다. 고후 11:23~27에 소개되는 재판 중 몇 가지 일은 그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히, 고후 11:24에 소개된 바울의 태형 사건, 즉 그가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는 사건은 사도행전에 소개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15]

갈라디아서 1:11~20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과 소명 사건을 경험한 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그의 사도직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다.[16] 그리하여, 그는

14) Martin Hengel, Paul in Arabia, Bulletin for Bilblical Research 12. (2002). 65~66.

15) Robert E. Picirilli, 104~106.

16) 이한수, 『갈라디아서, (서울: 선교횃불, 1997). 53.

자기의 복음은 그가 다메섹 동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았으며, 그러므로 그는 그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곧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다. 그가 훗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보름 정도 머물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등을 만나 잠시 교제하기 위함이었다. 사도행전 9:26~30에 따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그의 사도직을 열심히 수행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바나바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그의 고향으로 피신시켰다.

이제 바울의 다메섹 소명 사건과 아라비아 선교사역의 관련성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하여 보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 받은 것(갈 1:15~16)을 일차적으로 이사야가 소개하는 여호와의 종이 소명 받은 것(사 49:1, 6)과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명 받은 것(렘 1:5)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17] 여기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각각 들어 보자.

---

17) 김세윤은 바울신학과 새 관점(Paul and the New Perspective) 제3장 "이사야 42장과 바울의 소명"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40여 페이지에 걸쳐(169-210) 바울이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갖게 된 소명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 42장을 참고하였을 것이라고 명쾌하게 밝혔다: ①"하나님이 기뻐하셨다…" ②"이방의 빛'이 되리라는 소명", ③"내가 곧 아라비아로 갔다", ④"택정하심' ⑤"'이전 것'과 '새 것'", ⑥"하나님의 구원 심판 혹은 그의 의의 복음을 전파함', ⑦"이방인들의 소망", ⑧"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⑨"백성의 언약', ⑩"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⑪"이스라엘의 완악해짐', ⑫"결론".

>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사 49:1)
>
>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
>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위의 구절들을 갈라디아서 1:15~16과 비교해볼 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소명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가 소개하는 여호와의 종의 소명 사건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에 비추어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으로, 김세윤은 갈라디아서 1:15~17에서 바울이 그의 소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인 이사야 49장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인 이사야 42장도 똑같이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8]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곧 이방의 빛이 될 것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다(사 42:6 등).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이방인은 느바욧, 게달, 셀라의 주민 등으로 대표된다(사 42:11; 60:7 등; 창25:13 참조). 느바욧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큰 아

18) Ibid., 171.

들이고, 게달은 둘째 아들이다(창 25:13).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사 42:11)”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셀라’의 주민들이 70인 역(LXX) 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페트라’로 번역되었다.[19] 셀라의 주민들은 곧 페트라의 주민들이다. 페트라는 나바티안 인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암벽에 세워진 도시로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였다.[20]

이사야 60:7에 따르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양 무리와” 첫째 아들인 “느바욧의 숫양”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열납되는 가운데 하나님에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 로마서 15:16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쳐질 제물로 소개되는 "게달의 양 무리"와 "느바욧의 숫양"의 실체와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정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이 분명하다.[21] 그 제물들의 실체는 게달과 느바욧,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길렀던 양 떼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 자신들인 곧 사람들이며, 그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11:1-2를 통해서 볼 때, 사람은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제물이 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 자체를 통해서 제물이 된다

---

19) Seyoon Kim. 『바울신학과 새 관점』, 175.

20) 페트라는 요르단의 최대 명소로 유네스코가 공인한 세계문화유산이다(1985년). 최근에는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었다. 페트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명장면으로도 유명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21) 김철홍.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은?” 한국신약학회(NTSK 신약논단 2009. 봄호(1호) www.iktinos.org/seminar/upfile/070920 김철홍.pdf, 3~8.

는 것이다.[22]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다(고전 3:3-16-17, 6:19; 고후 6:16 등).[23]

존 스토트에 따르면, 로마서 15:16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칭하였는데, 그 '일꾼이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가 '오로지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에 대해서만' 사용되며, 신약에서 유대의 제사직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둘 다에 사용되었다.[24]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물로 드리는 것",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 등과 같이 제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25] 바울이 자신의 직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자각하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롬 15:15)라고 밝혔던 것처럼, 곧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까지 그에게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었다(cf. 롬 12:3; 15:15; 고전 3:10; 갈 2:9; 엡 3:2, 7, 8). 이사야 66:20-21에 나타난 이방인들이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예언이 로마서 15:16절의 중요한 구약성경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사야 66:20-21에 따르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성산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치게 하며 그들

22) Ibid., 7.

23) Ibid., 2-3.

24) John R. W,. Sott.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1996). 506.

25) Ibid., 506-507, 김철홍 3. James D. G. Dun. Romans 9-16, World Biblical Commentary 38B. (Waco: Word, 1998) 867~868.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고 하셨다. 바울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제사장이 결코 될 수가 없었다(롬 11:1; 빌 3:5).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곧 제사장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이사야 66장의 예언의 말씀이 진정한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66:1~2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 일찍이 바울에게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려준 자가 있다. 그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 모독죄로 체포된 스데반이었다(행 6:13).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일조하였던 자이다(행 7:58).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 모독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위하여 선포하였던 설교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행 7:48)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질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를 한 번 더 던졌다(행 7:49~50).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일찍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현존하는 헤롯 성전도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다른 성전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다(참조, 마 26:61; 27:40; 58; 막 11:12~23; 막 14:58; 15:29; 요 2:19; 고전 3:16; 고후 6:16).[26]

---

26) Ibid., 6.

예루살렘 성전 모독죄로 인하여 체포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던 스데반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와 똑같은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며, 그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의 교회의 일꾼 된 자신도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 성전의 향기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열납되고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마 26:61; 27:40; 막 14:58; 요 2:19; 행 6:13~14).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에 바울 그 자신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죄로 체포되는 사건(주후 57년경)이 발생했다(행 21:28).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약 25년 전의 스데반의 죽임당한 사건을 언급하였다(행 22:20). 그것은 그가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죽임당하기 직전 선포하였던 그의 설교를 통하여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사 66:1-2), 즉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와 그에 대한 스데반의 답을 생생하게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의 사도직 속에는 곧 제사장직도 포함되며, 그가 몸담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며, 그의 제물은 죽은 동물들이 아니라 곧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제물이 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자체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제사장적 사도직을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라비아인들, 즉 나바티안 왕국의 백성들을 상대로 약 3년 동안에 걸쳐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그 왕국의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다메섹으로 피신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그 왕은 다메섹의 방백을 시켜

바울을 죽이도록 하였다.

III. 바울의 3년간 아라비아 사역

바울이 아라비아 교회를 위하여 남긴 서신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그의 아라비아에서 진행되었던 선교사역 기간이 3년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갈 1:17, 18) 후에, 아라비아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다(갈 4:21~5:1).[27] 그 말씀은 바울이 아라비아의 최초 선교사가 되어 3년 동안 사역하였던 기간에 준비되고 선포되었던 여러 말씀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28]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즉, 하갈의 자손들과 사라의 자손들의 비유를 기초한 두 언약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는 여종 하갈의 자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이며,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손들로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이다. 전자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로 대표되고, 후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 즉 이스라엘로 대표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

27) 윌렴 핸드릭슨에 따르면, 갈라디아서는 A.D. 50-53(제 2차 선교 여행)에 기록된 것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온 바울의 모든 서신중 가장 이르고 오래된 것이다: Willilam Hendrikson, 갈라디아서,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28.

28) M. McNamar은 바울이 아라비아, 즉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 페트라에 지내게 되면서, 하갈과 시내 산을 연관 짓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이기도 하지만, 페트라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나 시내 산의 칭호도 된다는 것이다: M. McNamara, “tode(Hagar) Sina oros estin en te Arabia’ MS 2(1978) 27~36; cf. Longenecker, Galatians, 212. 이한수, 갈라디아서 431-432. 재인용

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다. 시내 산과 예루살렘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바울은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였다(갈 4:25). 바울은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 산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시내 산과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사라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시내 산 주변에 사는 하갈의 자손들인 아라비아인이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한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하갈의 자손들이 아니라 사라의 자손들에 속하여 있지 않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하갈의 후손들이 사는 아라비아의 시내 산만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마저도 하갈의 자손들과 결부시켰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아라비아의 시내 산은 율법을 상징한다. 또 하나는 그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여전히 율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들, 즉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유 있는 사라의 자손들이 아니라 여종 하갈의 자손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요, 자유 있는 사라의 자손들이라는 말인가? 육체적으로 하갈의 자손들, 즉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되어 이삭과 같이 자유 있는 사라의 자손들이요 약속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요,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따르면(히 11:16; 12:22),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계 21:2, 9~10),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새 예루살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이다.

바울은 “땅 위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는 가운데, 특별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고 일컫는다(갈 4:26). 시편 87편은 시온(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로 찬미하는 노래이며, 이사야 66:7-11에서는 예루살렘(시온)이 아들을 낳은 산고 가운데 있는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참조. 또한, 사 50:1).[29] 또한, 김철홍은 바울이 갈 4:19에서 자신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여성명사를 그 주어로 요구하는 “해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에 주목한다.[30] 또한, 그는 고전 3:2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는" 젖먹이 엄마라고 일컫는 것에도 주목한다.[31] 그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7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유순한 자”라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돌보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바울의 이

29) Richard N. Longeneker, Galatians. World Biblical Commentary 41. Dallas: Word, 1990. 31, 김철홍, 9.

30) 김철홍. 4.

31) Ibid., 5.

러한 자기 이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산모요, 그들을 양육하는 유모라는 이해의 기원은 이사야 66:7~13이라는 것이다.[32]

이사야 66:7~11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사야 66:7의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진통'은 갈라디아서 4:19의 동사 "해산하다"의 명사형이다.[33] 이사야 66:8에 따르면, 종말에 하나님은 매우 기적적인 방식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의 백성을 창조하신다. 이사야 66:11~13에 따르면, 그렇게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양육하신다. 바울은 이사야 서의 예언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아기를 낳고" "기름"으로 즉, 개종(cf. 고전 9:20~22)과 양육(cf. 롬 12:2; 고전 2:6; 14:20: 빌 3:15; 골 1:28; 4:12; 엡 4:13)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34] 바울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와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여 오던 종말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난 후, 그의 교회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온"(사 66:7~11)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자신을 "시온"과 일치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

32) Ibid., 5.

33) J. Louis.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A; New York: Doubleday, 1997), 424.

34) Ibid., 6.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6)라는 말씀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8~29)와 같은 말씀도 그의 아라비아 3년 사역 기간에 준비되고 선포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아라비아인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아라비아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또한, 바울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갈 6:16)와 같은 축도도 그의 아라비아의 사역 기간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아라비아인들을 향하여 선포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세대 주의자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을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중의 그리스도인들만으로 국한했다고 주장한다.[35]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란 수식어가 덧붙여진 것은 새로운/참된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과 옛/거짓된 이스라엘, 즉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참조. 롬 2:25~29, 갈 1:13, 14).[36]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하기(갈

35) Robert Saucy,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The Church in God's Program), 95~98.
36) 이한수, 593.

6:16) 직전에, “할례나 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선언하였다(갈 6:1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갈 6:15)는 고린도후서 5:17의 “새로운 피조물”이다.[37]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이 포함된 문맥(갈 5:19 이하) 안에는 옛 세상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38]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범주 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라비아인들과 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이다.[39]

---

37) 홍인규, 『바울신학사색』, (서울: 이레서원, 2007), 308. 홍인규는 우리 말 개역성경과 표준 새 번역이 “카이테 크티시스”를 “새 피조물로 번역한 것”(고후 5:17; 갈 6:15)에 대하여 “새 창조”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번역은 요 3:3, 5, 7에서 언급된 새로운 탄생과 같은 개인적인 개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두 본문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KJV, NKJV, TEB, LB, NASB은 새로운 피조물(New Creation)로 RSV, SRSV, NEB, REB, JB, NIV. 참조 R.P. Martin, 2 Corinthians (WBC; WACO; Word Books, 1986, 152.

38) O. Palmer Robertson,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54.

39) 필자의 책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 188~191에서 요약하였다.

V. 나가는 말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특별히 이사야 말씀 등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라비아를 그의 첫 선교지로 택하여 그곳에 가서 약 3년 동안 사역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았다. 아라비아는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나바티안 왕국이었으며, 그 왕국 백성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자료들이나 이른바 바울의 아라비아 서신이 남아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3:16, 29와 4:21~5:1, 6:16 전후 등과 더불어, 바울이 아라비아인들이 혈통적으로는 하갈의 후손들을 향하여 그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들 역시 영적으로는 사라의 자손들이요, 약속의 자손들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선포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보았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으며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을 기초하여(갈 6:16), 바울이 아라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의 말씀은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라비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위와 같은 말씀들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였던 것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통하여 탄생 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로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자들이라고 일갈하였다(갈 1:6-10).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들과 엇비슷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인들을 강조하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독교 시온주의자들로 일컬어지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 시대에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 선언과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강조하며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대체신학의 오류에 빠진 자들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필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에 속하는 자들로 거듭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의 심정으로 그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있다.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글이 사용되기 바란다. 그리하여, 그들이 21C의 바울의 후예들이 되어 아랍권과 이슬람권 선교에 앞 잘 설 것을 기대한다.[40]

---

40) 필자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롬 11:12)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롬11:15), 그 둘의 통합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롬 11:26)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믿는 자로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롬 11:12)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가 공헌한 바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 어린 비판을 하게 됨을 여기에 밝힌다.

• 참고문헌 •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홍성희 역. 서울: 엠마오, 1994.

_____. 『바울신학과 새 관점』.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2002.

김철홍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까닭은?” 한국신약학회/NTSK 신약논단 2009년 봄호(1호).

윤바울, “요르단의 선교 현황과 과제” 선교타임즈 2010년 4월호 (http://missiontimes.co.kr).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2.

이한수. 『갈라디아서』. 서울: 선교횃불, 1997.

정형남.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 서울: CLC, 2009.

_____. “아라비아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그의 메시지”, 『우리 형제 이스마엘』 제107호(2011년 4월 15일).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이슬람연구소.

_____. “예루살렘 중심적 종교들과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 『중동연구』, 제1권 제1호(창간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_____. “기독교 시온주의와 대체신학(?)”, 『한국선교 KMQ』, 2104 봄호, 통권 49호.

홍인규. 『바울신학사색』, 서울: 이래서원, 2007.

Blaising, Craig A. & Bock, L. Darrell. 『하나님 나라와 언약』. 곽철호 역. 서울:CLC, 2005.

Bruce, F.F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Grand Rapids: Eerdmans 1977.

Carter, Jimmy. *We Can Have Peace in the Holy Land: A Plan That Will Work.* Simon & Schuster, 2009.

Chapman, Colin. *Whose Holy City?* Grand Rapids: Baker, 2005.

Donaldson, Alistar W. *The Last Days of Dispensationalism*. Wipe Stock. Eugenh, Oregon.

Evans, Mark. *Jimmy Carter: The Liberal Left and World Chaos: A Carter/Obama Plan That Will Not Work.* Cross staff Pub, 2009.

Groningen, Gerard Van. 『구약의 메시아 사상』. 유재원, 류호준 역. 서울: CLC, 1997.

Hendrikson, Willilam. 『갈라디아서』,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Hengel, Martin and Schwemer, Anna M.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The Unknown Years* (trans. John Bowden; London: SCM Press, 1997.

Hengel, Martin. "*Paul in Arabia"*,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002.

Horton, Mickle,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Madanat, Suhail Audeh. *Roy Whitman*, Translated by Kelsy, George E. from Arabic Book.

Robertson, Palmer.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Saucy, Robert. *The Church in God's Program.* Moody Press, 1972.

Sizer, Stephen. *Zion's Christian Soldier?* England: Itner-Varsity Press 2008.

Sott, John R. W. 『로마서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1996.

Thrall Margare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CC; Edinburgh: T&T Clark, 2000).

Victor, Barabara, *The Last Crusade*, London: Constable & Robinson Publishing 2005.

Vol. 2, 2018

JOURNAL OF ACTS MIDDLE EAST RESEARCH INSTITUTE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ISSN 2635-4152

값 12,000원